

08

예술가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4
AUGUST
vol.272

Cover Story

국립오페라단 초청 오페라 카르멘

반갑습니다 메조소프라노 백재은
건축으로 보는 부산, 부산 문화 소박하지만 삶이 묻어나는 집

음악감독 금난새와 함께하는 첫 번째 부산 실내악음악축제

BUSAN CHAMBER MUSIC FESTIVAL

Soloists

Evgeny Izotov Pianist
Yangji Baek Clarinetist
Youngwook Yoo Pianist
Dmitry Lokalenkov Trumpeter

Gum Nanse

금난새

Artistic Director

Euro-Asian Ensemble

Amphion Quartet
Busan Sinfonietta
Camerata BS
Busan Chamber Philharmonic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2014 | 8 | 28 pm 7:30 29 pm 7:30 30 pm 3:00 31 pm 3:00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광역시

주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부산문화회관 EURO-ASIAN CORPORATION 후원 복권위원회

티켓가격 R 20,000원 S 1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할인)

티켓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부산은행 전 지점 인터파크 ticket.interpark.com 1544-1555

"이사업은 복권기금 문화나눔의 일환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여 전국의 문예회관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

부산문화회관
예술아카데미

장일범 명작 오페라 속으로 오동주 가곡 교실

새로운 나를 찾아가는 즐거운 음악산책

장일범 '명작 오페라 속으로'

- 모집인원 : 100명
- 일 시 : 9월 15일부터 11월 24일
매주 월요일 오후 5:00 (총10회)
- 수 강 료 : 1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음악평론가, KBS클래식 FM '장일범의 가정음악' DJ, 경희대 포스트모던 음악학과 겸임교수, 한국외대 러시아어과 졸업, 문예진흥원 공연예술아카데미 극작, 평론 수료,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음악원 성악과 수학, 객석 편집 자문위원, 영화의전당 마티네 콘서트, 대구시민회관 모닝콘서트 진행중, 충무아트홀 이사, 대구오페라 재단 이사, 자랑스런 외대인상 수상



오동주의 가곡교실- '내 마음의 가곡'

- 모집인원 : 50명
- 일 시 : 9월 16일부터 11월 18일
매주 화요일 오후 2:00 (총10회)
- 수 강 료 : 6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경성대학교와 이탈리아 루이자 단논치오 국립음악원, 이탈리아 페스카라 국립아카데미 오페라 연기과 졸업, 부산시립합창단 기획, 부산시공무원합창단, 목련합창단 지휘자, 경성대학교 외래교수, 남성성악양상블 4+1, 이태리음악연구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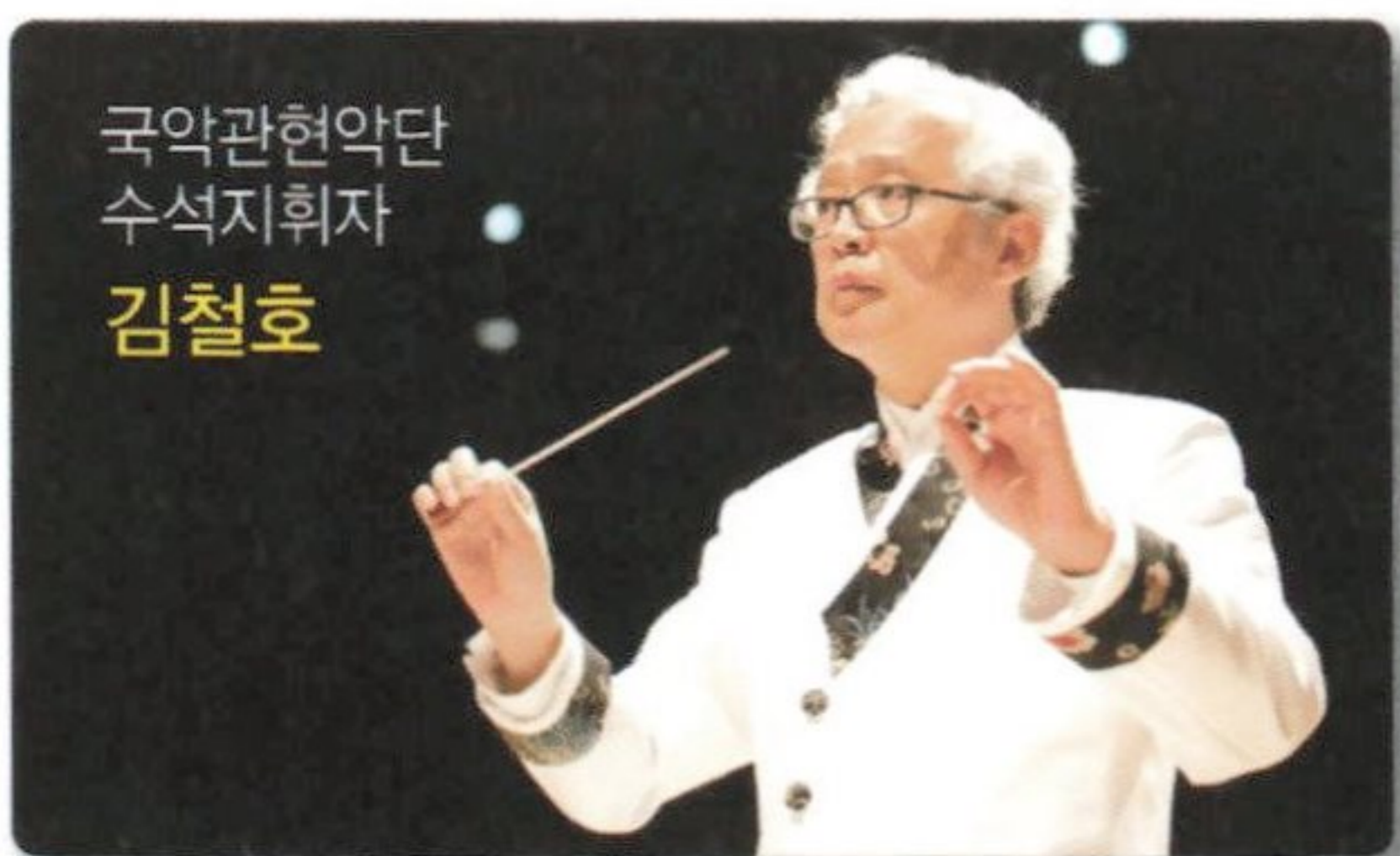
접 수 : 2014년 8월 18일(월)~29일(금)
접수방법 : 방문, 전화, 이메일접수(bsculture@naver.com)
접수처 및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 최종명단은 2014년 9월 1일(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 게시
- 수강료 납부 순서로 선착순 모집 마감
- 신청서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

Busan Cultural Center

파이스와 같은 트윈커피

시원한 은사커피



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김철호

CAST

해금_ 윤해승 가야금병창_ 신현주, 김영심
가수_ 서문탁 모듬북_ 최오성
부산예술단_ 김태현, 박승빈, 황진삼, 박성규
드럼_ 윤혁성 베이스 기타_ 유경훈

PROGRAM

- ▷ 국악관현악 [꿈의 바다]
- ▷ 해금협주곡 [해금 탕고를 위한 Dance of the Moonlight]
- ▷ 가야금병창을 위한 국악관현악
- ▷ 가수 서문탁과 함께하는 국악관현악
- ▷ 국악관현악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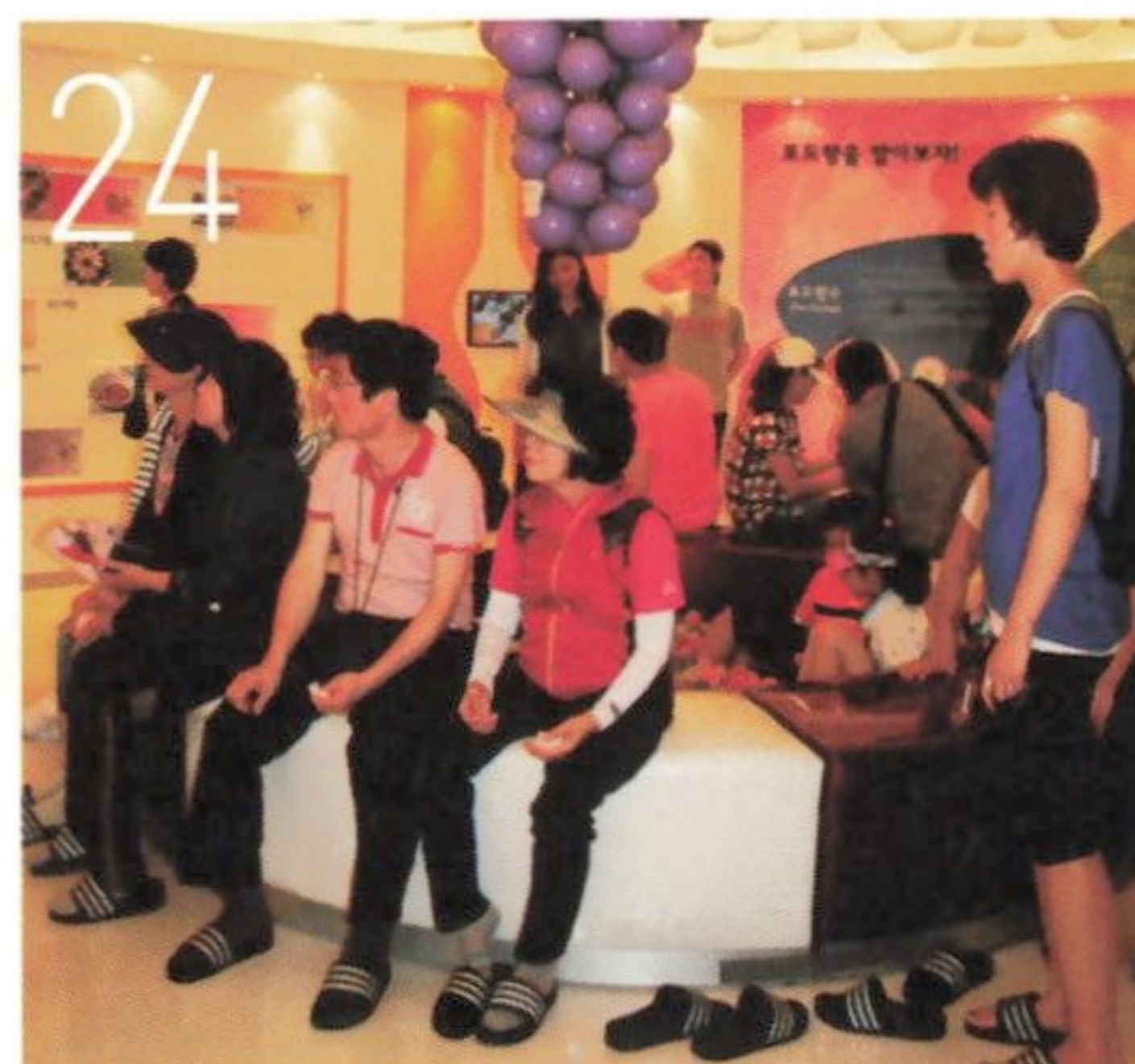
일시_ 2014. 8. 22[금] 19:30 장소_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_ 부산광역시 | 주관_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예매_ <http://culture.busan.go.kr>

입장료_ A석 20,000원 / B석 10,000원 | 공연문의_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051) 607-3123 / 홍보마케팅부 051) 607-3100

C o n t e n t s

2014
AUGUST
vol.272



06 **커버스토리**
국립오페라단 초청 오페라 '카르멘'

Cultural Story

- 08 **공연 일정**
- 10 **반갑습니다**
국립오페라단 오페라 '카르멘' 주역 메조소프라노 백재은
- 12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파리, 조레스, 시몬 그리고 인간을 위한 사랑의 찬가_전은정
- 16 **불멸의 거장-셰익스피어**
소네트와 사랑 셰익스피어② _송홍한
- 18 **건축으로 보는 부산, 부산 문화**
소박하지만 삶이 묻어나는 집_강기표
- 20 **그곳에 가면**
금정산성 문화체험촌
- 22 **우리는 문화가족**
이야기 할배 · 할매
- 24 **테마가 있는 여행**
정기회원가족을 위한 테마여행 안내
- 28 **하인상의 생각그림**
수직의 질주

Boards Inside

- 30 **프리뷰**
- 38 **리뷰**
- 40 **프로그램 가이드**
- 56 **새로 나온 음반**
- 57 **새로 나온 책**
- 58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Center News

- 59 **부산문화회관 소식**
- 62 **부산문화회관 路**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4년 8월호 통권 272호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811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051 120(주간), 051 607 6222(야간)

예술단 공연문의 051 607 3100 대관문의 051 607 6051~5

발행인 박성택 편집인 박원철 편집 백경옥 정복엽 발행일 2014년 7월 25일 인쇄처 효민디앤피 051 807 510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국립오페라단 초청 오페라 <카르멘> G. Bizet

자유를 갈망하는
치명적 매력의 여인 카르멘



2012년 화제의 작품
다시 한 번 그 감동의 무대를 재현한다

8월 29일 금요일 오후 7:30

8월 30일 토요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B석 4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부산문화회관 607-6057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607-3100

“

자유를 갈망하는 치명적 매력의 집시 카르멘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비제의 명작 오페라 '카르멘'이 8월 29일과 30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에 오른다.

지난 2012년 국립오페라단이 창단 50주년을 기념하여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오페라'로 선정된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은 자유를 갈망하는 치명적 매력의 집시 카르멘과 무뚝뚝한 하사관 돈호세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국립오페라단이 2012년 창단 50주년 기념작으로 제작, 많은 화제를 모은 '카르멘'은 지난해 공연에서 '전석매진' 신화를 기록하기도 했다.

프로스페르 메리메의 '카르멘'을 원작으로 작곡된 전 3막 2장의 오페라 '카르멘'의 배경은 19세기 세비야. 작곡가는 집시 카르멘의 드라마틱한 사랑이야기를 스페인, 쿠바, 프랑스 3국의 이미지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정열적인 음악 속에 환상적으로 녹여냈다. 특히 화려한 색채감의 오케스트라 선율과 이국적인 느낌의 리듬은 마법 같은 매력으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카르멘이 호세를 유혹하며 부르는 '하바네라-사랑은 들새와 같아'를 비롯해 '집시의 노래' '투우사의 노래' 호세가 카르멘에게 호소하듯 부르는 '꽃노래' '미카엘라의 아리아' 4막의 '카르멘과 호세의 2중창' 등 선물처럼 쏟아지는 친숙한 멜로디의 아리아와 합창을 들으며 관객들은 카르멘과 열정적인 사랑에 빠진다.

비제의 '카르멘'은 1875년 3월 파리 오페라 코미크 극장에서 초연 당시 음악가들과 평론가들에게서는 대단한 찬사를 얻었지만, '청순가련형'인 이탈리아 오페라의 소프라노 여주인공들에게 익숙한 일반 관객들은 전통적인 여성의 이미지와 도덕을 뛰어넘는 카르멘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그러나 작곡가 브람스는 '카르멘'의 예술성에 감탄하며 공연을 20회나 관람했고, 철학자 니체는 '음습하고 우울한 독일적 분위기를 단번에 날려버리는 찬란한 태양의 음악'이라고 말하며 '풍요롭고 정밀한 동시에 건축적으로 완벽한 작품'이라고 '카르멘'을 평가했다.

2014년 국립오페라단은 최고의 미장센을 선보일 크리에이티브팀을 구성, 오페라 '카르멘'을 최고의 역작으로 만들어냈다. 연출은 현재 프랑스 메츠 메트로폴리스 오페라하우스의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벨기에 태생의 연출가 폴 에밀 푸흐니가 맡는다. 전 세계를 무대로 '호프만 이야기' '아이다' '마



농 레스코' '리골레토' '파우스트' '아리안느와 푸른 수염' '로미오와 줄리엣' 등 많은 작품을 선보인 바 있는 그는 2007년 문화예술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프랑스 최고 권위의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수여받은 관록의 연출가이다.

음악은 지휘자 이병욱과 부산시립교향단, 의정부시립합창단, CBS소년소녀합창단이 열정 가득한 화려한 집시 음악으로 오페라의 감동을 더해준다. 캐스팅 또한 화려하다. 2012년 공연에서 '이 시대 가장 매혹적인 '카르멘'으로 팜프파탈의 진수를 선보인 백재은이 카르멘으로 생애 첫 부산공연을 갖고, 2004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지휘한 오페라 '카르멘'에서 돈호세 역으로 일본 도쿄신국립극장에 데뷔하여 언론의 극찬을 받은 테너 정의근이 돈호세를 연기한다.

2005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국제콩쿠르에 입상하여 주목을 받은 백재은은 슈타코오페라, 그린스보로오페라, 슈레브포트 오페라, 버지니아오페라 등에서 폭 넓은 활동을 펼치며 2005-2006년 슈레브포트오페라에서 '올해의 성악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스위스 제네바, 프랑스 툴루즈, 스페인 빌바오, 몬테카를로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는 테너 정의근은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졸업 후 '라 트라비아타' '카르멜회 수녀들의 대화'의 주역가수로 이탈리아 트리에스테극장, 몬테카를로오페라, 오스트리아의 클라겐푸르트극장 등에서 활동하였다. 2001/02 시즌에는 '라보엠'의 로돌포역으로 열연하여 독일의 오페라매거진 오펜벨트가 선정하는 '올해의 테너', 스위스 일간지 루체른신문으로부터 '올해의 음악가'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소프라노 이세진(미카엘라), 바리톤 제상철(에스카미요), 메조소프라노 신민정(메르세데스), 소프라노 김민지(프라스키타), 바리톤 김지단(모랄레스) 등 최고의 출연진이 '카르멘'의 치명적인 매력을 전해준다.

CULTURAL SCHEDULE

SUN

전시실

8월 1일(금)-8월 3일(일) 중전시실
부산서예협회 초대작가전
문의:윤종철(628-0718, 010-9753-0718)

8월 2일(토)-8월 5일(화) 대전시실
한서미술대전
문의:김향숙(010-7769-3569)

MON

8월 7일(목)-8월 10일(일) 중전시실
2014 부산매직페스티벌 카드전시회
(8/7 15:30~17:00, 8/8~8/10 13:00~19:00)
문의: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조직위원회
(626-7002)

8월 12일(화)-8월 19일(화) 대, 중전시실
신작전 300호전
문의:부산예총(631-1377)

TUE

8월 20일(수)-8월 23일(토) 대, 중전시실
남부 워터칼라 페스티벌
문의:박호(781-7116, 010-8500-7116)

8월 25일(월)-8월 31일(일) 대, 중전시실
2014 부산 미술로 꿈을 꾸게 하다
문의:부산미술협회(632-2400)

3

4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福岡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공연'
17:00 균일 2천원
부산문화회관(607-6058)

5

10 2014 부산매직페스티벌-국제미술
대회 결선, 시상식 13:00 2만원
나이트 매직 갈라쇼 19:30 4만원, 3만원

2014 부산매직페스티벌-온니버스
스페셜쇼 15:00, 기획공연 '더핸즈'
17:00 2만5천원, 2만원

2014 부산매직페스티벌-매직라디
오쇼 10:00/료&김치 투맨쇼 17:00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조직위원회
(626-7002)

11

12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심수봉과 함께하는 써머판타지 콘서트'
19:30 1만원, 7천원, 5천원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17 브니엘 무용발표회 19:00 무료
브니엘국제예술고등학교(582-7671)

18

19 아코르청소년오케스트라 제12회 정
기연주회 19:30 초대
아코르청소년오케스트라
(010-2065-2490)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 내한공연
19:30 5만원, 3만원/(주)JS 모던기획
(010-7793-5756)

24

25

김승현 귀국 피아노 독주회 19:30
초대/김승현(010-4064-0877)

26

31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 15:00
2만원, 1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57)

제5회 참플룻 정기연주회 15:00
무료/참플룻(010-4016-7477)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
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
안내는 <http://culture.busan.go.kr>
을 click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측에
문의바랍니다.

● 대극장
 ● 중극장
 ● 소극장
 ● 야외공연장
 ● 국제회의장

WED

THU

FRI

SAT

1

●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공연
 2014 웰빙콘서트 III "코지 판 투데"
 11:00 균일 1만원/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 부산시립극단 여름연극교실 워크숍
 14:00 부산시립극단(607-3151~2)

2

● 극단 노마드 창작뮤지컬 '7월의 연인'
 19:00 무료/극단 노마드(626-0116)

● 토요상설무대 미토리 '풍류가 있는 소리'
 16:00 무료(공연 30분 전부터 선착순)
 부산문화회관(607-6056)

6

7

● 2014 부산매직페스티벌-명인렉처
 13:00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조직위원회
 (626-7002)

8

● 2014 부산매직페스티벌-국제마술
 대회 본선 13:00 2만원 나이트 매직 갈라
 쇼 19:30 4만원, 3만원

● 2014 부산매직페스티벌-마이클 아
 머 스페셜 쇼 15:00 기획공연 '더 핸드'
 17:00 2만5천원, 2만원

● 2014 부산매직페스티벌-명인렉처
 10:00 료&김치 투맨쇼 17:00 부산국제
 매직페스티벌 조직위원회(626-7002)

9

● 2014 부산매직페스티벌-국제마술대
 회 본선 13:00 2만원 나이트 매직 갈라쇼
 19:30 4만원, 3만원

● 2014 부산매직페스티벌-데이타임
 스페셜쇼 15:00 월드 클로즈업 쇼 17:00
 2만5천원, 2만원

● 2014 부산매직페스티벌-명인렉처
 10:00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조직위원회
 (626-7002)

13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금년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16:00
 균일 1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8)

14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음악회
 테너 엄정행과 오지탐험가 도용복이 함께
 하는 '청소년 해설음악회' 17:00 무료
 (선착순입장)/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61~2)

●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14
 한여름밤의 춤 작품전' 19:30 균일 5천원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15

● 부산의, 치대 관현악단 제42회 정기
 연주회 19:30 초대/부산의, 치대 관현악
 단(010-3100-2483)

16

● 토요상설무대-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
 퓨전음악극 '백설공주' 16:00 무료(공연 30분
 전부터 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

20

● 한빛예술단의 Music in The Dark
 in Busan 19:30 초대/한빛예술단
 (02-989-3148, 010-9782-1191)

● 국립안동대학교 성악과 교수들과
 함께하는 그리운 우리 가곡의 밤 19:30
 균일 1만원/오페라 21세기
 (010-8330-3222)

21

● 제1160회 MBC목요일음악회
 '무지카 비바의 해설이 있는 영화음악'
 19:30 1만원, 5천원/부산문화도시네트워크
 (760-1494)

22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기획연
 주회 '필빙수같이 시원한 콘서트' 19:30
 2만원, 1만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3)

● 제23회 동아의대 관현악단 정기연주회
 19:30 무료/DMC(010-4878-3079)

● WINA Concert-내노래
 20:00 균일 3만원/문화기획단 무대공감
 (010-4010-8406)

23

● 제33회 인제대의대 관현악단 정기연주회
 19:30 무료/인제대의대관현악단
 (010-8730-2829)

● 토요상설무대-이노연 무용단 16:00
 무료(공연 30분 전부터 선착순)
 부산문화회관(607-6056)

27

28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챔버뮤지컬페스티벌' 19:30
 2만원, 1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7)

● Clazy Ensemble PASSAZIO와
 함께하는 한 여름밤 콘서트 19:30
 균일 1천원/Clazy Ensemble 'PAS-
 SAZIO' (010-7535-9764)

29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국립오페라단 초청 비제의 '카르멘' 19:30
 10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57)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챔버뮤지컬페스티벌' 19:30 2만원, 1만
 원/부산문화회관(607-6057)

● 영화 속의 클래식 19:00
 무료/칸타슬레(010-2915-1324)

30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국립오페라단 초청 비제의 '카르멘' 15:00
 10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57)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챔버뮤지컬페스티벌' 15:00 2만원, 1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57)

● 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합창단 16:00
 무료(공연 30분 전부터 선착순 입장)
 부산문화회관(607-6056)

백재은

—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오페라'로 선정된 비제 오페라 '카르멘'. 국립오페라단 최고의 역작 오페라 '카르멘'의 주역으로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만나게 될 메조소프라노 백재은이 부산공연에 앞서 예술에의 초대 독자들과 특별한 만남을 갖는다. 2014년 카르멘을 시작으로 C장조 미사, 나인 심포니, 갈라 콘서트,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현대오페라 작품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청중들과 만나게 될 백재은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국제콩쿠르에 입상하여 주목을 받았으며 2005-2006년 슈레브포트오페라 (Shreveport Opera)에서 '올해의 성악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첫 부산 공연 믿어지지 않지만, 부산 공연은 이번이 처음이네요. 전에도 몇 번 오페라나 콘서트 기회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다른 연주와 겹치고 해서 한번도 이루어지지 못했었습니다. 국립오페라단과 함께 여름과 가장 잘 어울리는 오페라 '카르멘'으로 부산 관객들을 처음 뵙게 되어 무척 기쁘고 기대됩니다.

언제나 반가운 부산, 부산 사랑 이상하게도 저의 절친한 친구, 선배들이 모두 부산 출신이네요. 물론 걸출한 음악가를 많이 배출한 '부산예고'라는 인재풀에서 자연스레 서울음대로 이어지는 인맥 탓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부산 사람 고유의 시원시원한 성격과 모든 일에 진취적인 자세가 제게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게 이유가 아닌지 싶어요. 그래서인지 부산은 연주보다 놀러왔던 기억이 더 많은 곳이네요.

카르멘으로 부산 입성 국립오페라단과 좋은 프로덕션으로 전국 여러 관객들을 뵙는 것도 특별한 일이지만, 그간 한번도 뵙지 못했던 열정이 넘치고 남달리 음악을 사랑하는 부산관객들 앞에서 공연하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이 참으로 반갑습니다.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10대 오페라에 언제나 빠지지 않는, 무엇보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오페라로 선정된 '카르멘'을 보시면서 오페라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영원한 카르멘 백재은 2008년 국내 첫 데뷔 무대가 카르멘이었습니다. 카르멘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듣고 보고 하던 오페라 애착이 많았습니다. 오페라, 콘서트 버전을 다 합치면 아직 백번은 아니지만 그 근접한 횟수가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무대에 언제나 똑같은 음악으로 오를지라도 늘 새로운 기분으로 공연하게 되는 신기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행히 많은 분들이 제가 부르는 카르멘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꾸준히 같은 작품으로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립오페라단의 프로덕션 이전에는 고전적인 연출로 많은 카르멘을 불렀는데, 이번엔 굉장히 색다른 미니멀적인 무대와 연출로 다른 각도에서도 카르멘이라는 인물을 조명해 볼 수 있었던 매우 신선한 기회였어요. 연기하는 아티스트로서도 만족스런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카르멘과 함께 성장한 백재은 같은 작품이라도 세월에 따라 공연 느낌이 다릅니다. 단순히 나이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경험을 하고 나서 작품을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지 않나 싶네

요. 예를 들자면 결혼하기 전에, 아이 낳기 전에 했던 나비부인과 그 후에 나비부인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삼년이나 키우던 아이를 바다 건너 다른 나라로 보내게 되는 장면은 엄마가 된 이후에 몇 번이나 리허설을 중단해야 했을 정도로 감정이 북받쳐 올라 무대에서도 진심을 다해 장면을 연기할 수 있게 되더군요. 하지만 카르멘 같은 작품은 나이와는 별개의 작품이 아닌가 해요. 사람의 열정이란 결코 늙는 법이 없으니까요.

비제 최고의 명작 카르멘 카르멘은 1875년에 초연된 비제의 작품입니다. 당시 여러 유럽 문화계 인사들에게 '너무나 과장되고 비도덕적인 내용' '천박한 집시 여인이 주인공' '여자가 무대 위에서 살해되는 충격적인 장면' 등의 이유 때문에 맹비난을 받았던 문제작이었죠. 가엾은 비제는 이 충격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3개월 뒤 심장마비로 요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제의 죽음 이후부터 오페라 카르멘은 인기를 더하기 시작, 현대에 이르기까지 오페라사에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작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죠. 카르멘을 많이 부르는 성악가로서 가끔 (이게 가능하다면) 비제에게 전화라도 해서 이런 기쁜 소식과 안타까운 심정을 얘기해 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한 1년 만이라도 더 버티고 살았으면 좋은 날을 봤을텐데! 웃기는 얘기가 될지 몰라도 가끔 저까지 억울하다니까요~

가장 매력적인 주인공 '카르멘' 카르멘은 제 인생에 가장 매력적인 주인공입니다. 죽음보다 강하고 사랑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서슴지 않는 특별한 여성이죠. 일상생활에서 열정과 활력을 잃어가는 현대 관객들에게, '당신의 마음속에도 이런 열정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어!'를 일깨워 줄 수 있는 카르멘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에 다른 인물, 다른 시대, 다른 감정을 펼쳐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공연의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스페인의 정열을, 프랑스의 섬세함을, 한국 성악가의 역량을 제대로 보여주는 카르멘을 연기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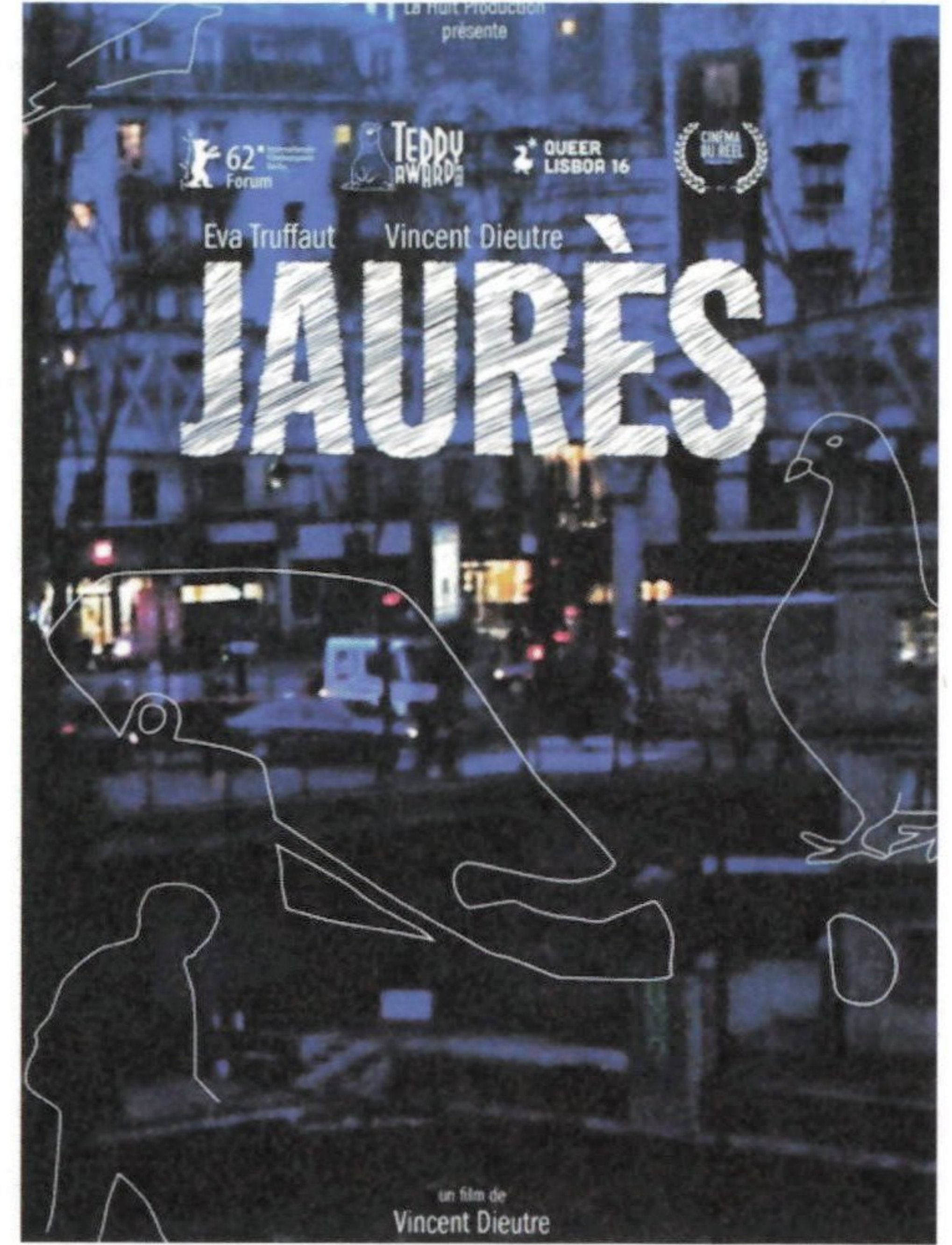
'카르멘' 감상포인트 이번 작품은 여지껏 보아왔던 많은 고전 '카르멘'과는 달리 프랑스의 색채를 잔뜩 머금은 미니멀적 작품입니다. 무대는 크지만, 조명과 의상 등으로 인물의 심리에 조금 더 섬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색다른 오페라라고 할 수 있지요. 이번 카르멘은 전혀 다른 매력을 발견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립오페라단에서 열심히 준비한, 보기 드문 작품과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글
전은정
프랑스 통신원

내가 사는 동네는 파리의 북동부,
유럽을 이어주는 파리 동역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그 가까이 파리의 북동쪽을 가르는
까날 생 마르땅(Canal Saint-Martin)이라는 작은 운하가 있다.
주로 소형 유람선과 화물선이 오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 곳은 산책로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도 하다.
햇볕이 좋은 날이나 요즘 같은 여름이면 운하변을 따라
많은 이들이 늦은 밤까지 시원한 바람을 맞고 있는
여유로운 모습을 볼 수 있다.
필자 또한 종종 이 길을 따라 걸어서 운하 곁에 위치한
한 영화관을 찾는 것을 즐기기도 한다.

이 까날 생 마르땅의 모습은 에디뜨 피아프의 노래 등에
재현되기도 했으며 마르셀 까르네(Marcel Carnet),
미셸 공드리(Michel Gondry) 등
많은 영화감독들의 작품에 등장한 곳이기도 하다.
특히 장 삐에르 쥬네(Jean-Pierre Jeune)의
〈아멜리 뿔랑(Fabuleux destin d'Amélie Poulain)〉의 배경이 되면서
이 운하는 대중들의 시선을 끌기도 했었다.
하지만 필자에게 이 곳은 까날 생 마르땅을 지나는
'조레스'라는 지하철역을 배경으로 찍은 뱅상 디유틀르(Vincent Dieutre)의
〈조레스(Jaurès, 2013)〉라는 다큐멘터리의 현장으로 가슴에 남아있다.

역사적인 인물로 명명된 지하철역이 많은 파리에서 이 역 또한
프랑스의 정치인 '장 조레스'를 기리는 의미에서 이름 붙여졌기에
제목만으로는 장 조레스에 관한 이야기일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이 영화는 조레스 역 가까이 살았던 감독의 옛 연인인 시몬과의
운명적인 사랑이야기였다.



〈조레스〉 포스터

파리, 조레스, 시몬 *love* 그리고 인간을 위한 사랑의 찬가

뱅상 디유틀르(Vincent Dieutre)의 〈조레스(Jaurès)〉



- ① 창문너머로 보이는 조레스역. 지하철이 지나가는 교각, 그 아래, 다리 위의 교차로. 그리고 다리 아래 운하변의 난민들의 텐트. 이렇게 조레스 역은 다중화된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 ② 에바 트뤼포
- ③ <조레스>의 영화적 장치. 작은 녹음스튜디오 안에서 러쉬를 보며 옛 연인을 회상하는 감독의 뒷 모습.
- ④ 뱅상 디유트르

1960년생인 디유트르 감독은 프랑스의 국립영화학교 졸업 후 단편 영화작업을 하던 중 '황량한 로마(Rome désolée, 1995)'라는 장편으로 영화계에 입문한다. 로마거리의 모습 위에, 디유트르 작품들을 관통하는 모티브 중의 하나인 자신의 동성애에 대한 사유를 담은, 자전적인 요소가 강한 이 다큐멘터리는 이후 전개될 디유트르의 영화세계를 함축적으로 보여주었다. 그 후 '르송 드 테네브르(Leçon de ténèbres, 2000)' '본 누벨(Bonne nouvelle, 2001)' '나의 겨울여행(Mon voyage d'hiver, 2003)' '은총의 조각들(Fragments sur la grâce, 2006)' 등의 작품으로 마르세이 다큐멘터리 영화제, 로카르노 영화제 등에서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으며 '조레스'는 베를린 영화제에서 테디 베어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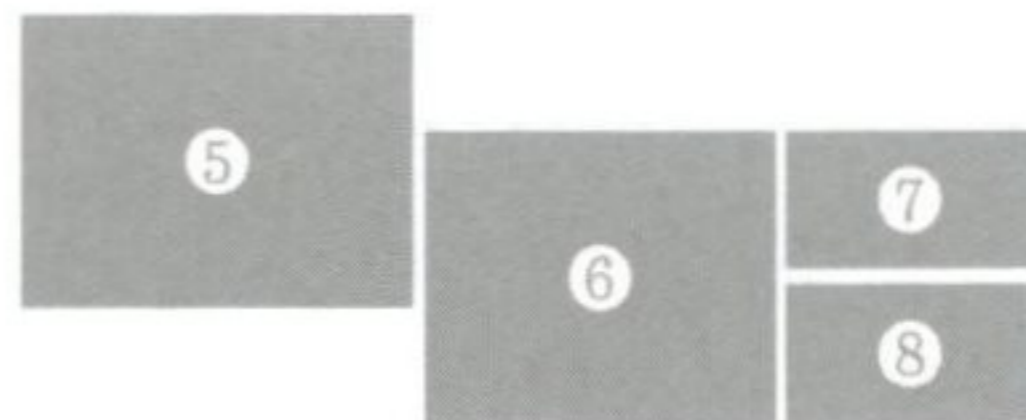
사적이면서 자기성찰적인 목소리가 강한 디유트르의 작업들은 세상과 개인의 관계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그만의 고유한 영화세계를 만들어간다.

'조레스'의 영화적 장치는 늘 그래왔듯이, 아주 간결하다. 감독은 자신의 녹음 스튜디오에 친구인 에바 트뤼포(Éva Truffaut, 프랑소와 트뤼포의 딸이다)를 초대해 옛 연인, 시몬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

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현재 스튜디오 안에서 스크린에 투영되는 한 영상을 보며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 그리고 과거 시몬과 함께 했던 시절에 감독의 DV로 찍은 그 영상 뿐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영상 속에는 두 연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단지 그들이 사랑을 나눴던 시몬의 아파트 창 너머 아래로 보이는 조레스 역 거리, 그리고 그 아래 까날 생 마르팡 난민캠프촌 사람들의 일상을 찍은 영상만이 그가 가지고 있는 시몬에 대한 유일한 흔적이다.

영화의 서사는 에바의 질문에 답하는 디유트르의 회상으로 이어가면서 '조레스'는 단순히 감독의 나르시시즘적인 자조적 독백을 넘어 서게 한다. 가끔은 동성애자인 그들의 너무나 사적인 사랑묘사는 혹자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마저도 책임지는 감독의 윤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글
전은정
프랑스 통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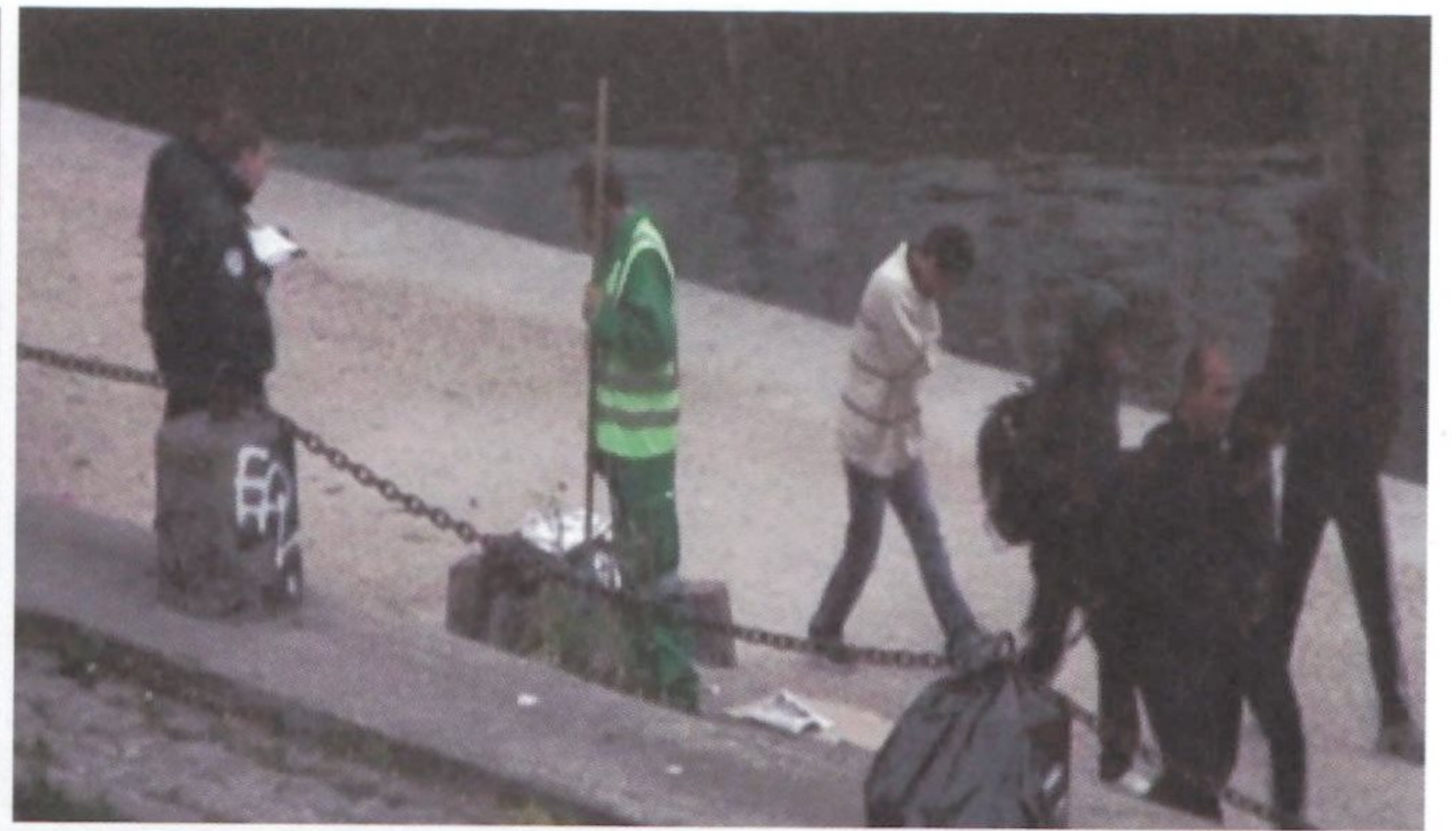
- ⑤ 담요를 쓴 한 난민. 그는 마치 시몬처럼 세상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 화면 위로 감독은 이야기한다. 시몬과 길을 걸을때 자신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세상에 외치고 싶었다고... 감춰져야만 했던 그들의 사랑을 이 난민의 이미지로 상징화시키는 감독의 영화미학을 엿볼 수 있다.
- ⑥ 운하 결의 난민캠프. 이들은 불안정한 삶 속에서도 아침이면 일어나 씻고 잠자리를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 ⑦ 이른 아침이면 난민들도 각자의 일터로 떠나며 일상을 살아간다.
- ⑧ 담장에 매달려 잠겨있는 문을 넘어오는 한 난민. 그 아래는 운하가 흐르고 있다. 출근을 하기 위해 이 사람은 매일 아침 이렇게 위험하게 이쪽 세상으로 건너온다. 디유트르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그의 손이 얼마나 아플지 자신 또한 고통스럽다고 에바에게 고백한다.

리적 자세를 통해 정제되며 우리는 시몬을 향했던 그의 마음에 대해, 그래서 그에게 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행복했으며 다시는 그러한 사랑이 오지않을거라는 것을 담담하게 털어놓는 그에게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공감하게 된다.

카메라는 아파트 안쪽에서 창문 너머로 향해있기에 간간히 들리는 감독과 시몬의 대화, 시몬이 연주하는 단조로운 피아노소리, 식기들이 부딪히는 소리, 샤워소리 등을 통해 아파트 안 두 연인의 일상을 상상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의 목소리로 그려내는 시몬의 모습은 그 어떤 이미지보다도 생생하게 다가온다. 시몬은 한 아시아 여인과 결혼을 했으나 지금은 헤어졌으며 세명의 아들이 있으며(디유트르는 이들을 소개받은 적이 없다) 극좌에 가톨릭 신자이며 여러 인권단체에서 난민구호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단 한번도 시몬의 아파트 열쇠를 가지지 못한(이렇게 그들은 서로의 삶으로 스며들어가지 못한다) 디유트르는 저녁 7시쯤이면 이 아파트에서 시몬을 만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각자의 생활로 돌아가는 일상을 반복한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놓여 있는 창문너머 운하변 아프카니스탄 난민들의 이미지는 어떤 거창한 구호로 이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난민들의 선동적인 집회나 처참하고 극적인 그들의 생활은 볼 수 없다. 비록 은밀하고 불안한 일상이지만 그 일상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우리는 사회 안에서 정당화되지 못한 두 세계를 보게 된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규제와 편견은 두 남자의 사랑도, 전쟁을 피해 온 불법이민자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것이다. 그리하여 두 연인의 일상이 본질적으로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감독은 그들의 반대지점에서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며 더욱이 이 아이러니한 세상에 대해 사회학자적인 분석을 늘어놓거나 판단하지 않는다. 단지 소외된 '존재'를 쓰다듬을 뿐이다. 시몬의 삶에 어떠한 자리도 가지지 못한 디유



트르의 아픈 사랑, 그리고 사회 속에 편입되지 못하는 난민들. 이렇게 그들은 닮아있다. 한시적이며 불안정하며 드러낼 수 없는 그런 비밀스러운 약자들의 삶. 하지만 이것이 조금은 달라보이는 ‘그들’만의 삶은 아닐 것이다.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이들과 결국은 닮아있다.

익명의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일상의 모습과 감독의 사랑이야기가 씨실과 날실이 되어 서로 엮어 들어가면서 이 영화는 사적 영역과 정치적 영역을 넘나든다.

삶이 만들어내는 우연의 일치일까? 파리 한켠의 나날은 디유트르와 시몬이 헤어지던 그해 까날 생 마르팡의 난민촌도 강제철거²⁾되면서 ‘조레스’의 일상은 끝난다. 그들의 사랑도 끝나고 난민들도 어디론가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래도 이들은 어딘가에서 살아갈 것이며 사랑할 것이다.

흔하디 흔한 한 개인의 연애담에서 시작한 영화이지만 결국 ‘조레스’

는 한 시대의 흔적을 담은 파리의 기록으로 남는다.

그때, 한 사람이 한 사람과 사랑을 나누었던 그때, ‘조레스’에는 일상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감독의 말처럼 세상을 아주 조금씩 바꾸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1) 프랑스의 대표적인 인본주의자이며 사회주의 운동가인 장 조레스(Jean Jaurès)는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프랑스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히기도 한다. 올해는 그가 암살당한 지 100주년(그는 1914년 7월 31일 국가주의자인 히울 빌랑에 의해 암살)이 되는 해이기도하다.

2) 아프가니스탄과 아시아에서 온 불법이민자들이 2006년부터 이 운하에 난민캠프촌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정식 이민자 신청요구를 하던 중 정부는 이 캠프촌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2010년 7월 경찰과 파리는 대규모의 인력을 투입해 무력으로 이 캠프촌을 강제철거하면서 이 곳의 난민들은 뿔뿔히 흩어지게 된다. 많은 인권단체들과 난민들은 정부의 비인간적인 정책에 항의했으며 그 후 이 운하는 난민 뿐만이 아니라 사회빈곤층 등 소외계층을 위한 저항의 장소로 기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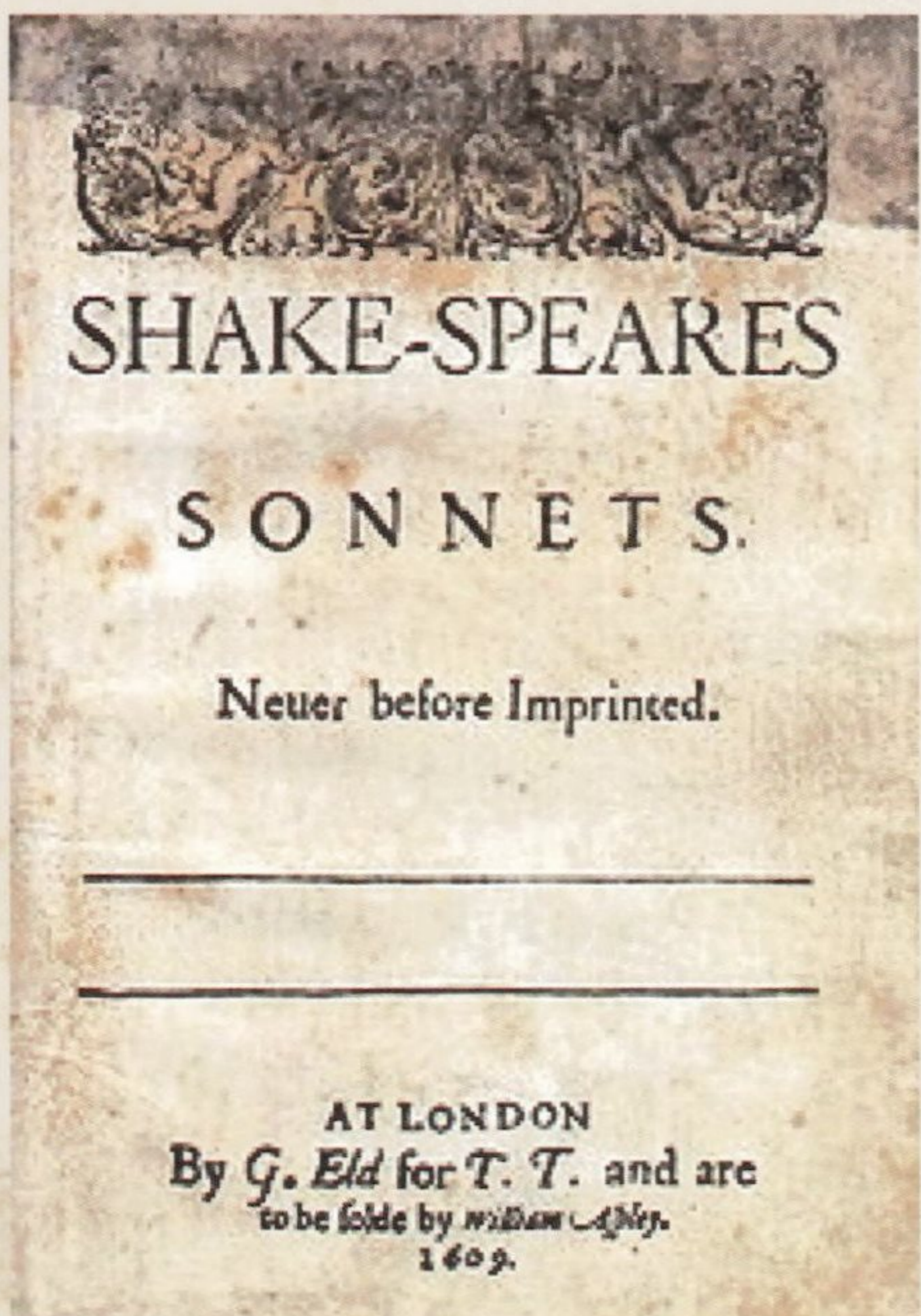
소네트와 사랑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가 사랑한 젊은이로 여겨지는 사우샘프턴 백작

“

지난 호에서 <인간성의 창조자 셰익스피어>란 제목으로 셰익스피어의 창조적인 천재성에 관해 소개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셰익스피어의 소네트와 그 속에 나타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셰익스피어의 극작품에 대한 장르별 소개에 앞서 그의 소네트를 먼저 소개하는 것이 이유가 있다. 그것은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통해 어느 정도 그의 젊은 시절의 열정과 감성, 그리고 개인적 삶의 족적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1690년 출판된 셰익스피어 소네트 사절판 시집

셰익스피어는 몰개성적인 천재이다. 셰익스피어는 다양한 인물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창조하지만 결코 자신을 작품에 투영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네트에서는 자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듯하다. 물론 소네트에 등장하는 인물이 실제 인물인가 가상의 인물인가 하는 의문은 남는다. 그렇더라도 서정시 형식인 소네트는 전통상 시인 자신의 감정의 질곡을 드러내는 전기적인 성격을 띤다. 그러므로 셰익스피어의 개인적 감정과 고뇌를 알고자 한다면 그의 소네트를 읽을 필요가 있다.

셰익스피어에 의해 만개했던 영국 소네트는 이탈리아 소네트로부터 시작된 것이었고 '작은 노래'라는 뜻의 어원에서 유래하였다. 원래 이 시형식은 13세기 이탈리아 시인들에 의해 시작된 18행의 소네토(sonetto)에 기원을 둔 것으로서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했던 서정적인 연애시였다. 이탈리아 소네트는 한 세기 후 이탈리아의 유명한 시인이자 학자인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Francesco Petrarca)에 의해 14행

시로 완성되어 페트라르카식 소네트(Petrarchan sonnet)라고도 불리게 되었다. 이렇게 변형된 이탈리아 소네트는 16세기 초 토마스 와이어트 경(Sir Thomas Wyatt)에 의해 영국으로 소개되었고 셰익스피어에 의해 영국 소네트로 자리매김하여 셰익스피어식 소네트(Shakespearean sonnet)라는 별칭도 붙게 되었다.

소네트는 각 행이 10음절이고 마지막 단어들의 배열 즉, 각운으로 운율을 맞추며 음악성을 띤다. 영국 소네트는 운율상 이탈리아 소네트와 차이가 있는데, 이탈리아 소네트는 각운이 abba abba cde cde라는 패턴으로 구성되나, 영국 소네트는 abab cdcd efef gg라는 패턴을 지녔다. 각행은 다섯 번의 강세를 포함하는 약강오보격의 운율을 지니고 있다. 마지막 두 행을 대구(couplet) 혹은 연구라고 하는데 그 전까지 제기된 갈등과 긴장을 풀고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결말을 보여준다.

셰익스피어 이전의 대표적인 르네상스 시인인 에드먼드 스펜서(Edmund

Spenser)와 필립 시드니(Philip Sidney)는 그들의 소네트에서 사랑과 연애 및 결혼 등의 개인적인 감정을 주제로 다루었다.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도 이런 개인적인 사랑의 감정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지만, 그런 감정에 장애가 될 만한 시간, 죽음, 영혼의 불멸성 등이 부수적 주제로 포함되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인의 사랑과 우정에 대한 젊은 날의 욕망과 고뇌가 잘 드러난다. 인간의 보편성과 다양성을 통찰하는 천재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작가였지만, 사랑과 우정이라는 개인적인 감정 앞에서는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의 진면목을 보게 되는 것이다.

소네트는 14행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소네트만으로도 완전한 단일 시가 될 수도 있지만,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는 <소네트>(The Sonnets, 1609)라는 연작시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소네트 연작시는 각각 독립된 시로서 주제가 완성되는 한 편의 시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하나의 대상을 상대로 일관된 감정을 표현한다. 셰익스피어는 그의 소네트 연작시에서 자신의 사랑과 우정을 다양한 관점에서 묘사하고 고뇌하며 원근을 조절하며 탐색한다. 어떤 소네트에서는 사랑의 감정에 매몰된 자신을 변명하고, 다른 소네트에서는 그 감정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묘사하기도 한다. 사랑으로 인한 기대와 실망, 환희와 고뇌를 번갈아 노래하며 이를 영원이라는 시간의 틀 속에 담아내고 있다.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한두 편을 배경지식 없이 읽어본 일반 독자들은 그의 소네트 연작시를 연인에게 사랑을 노래한 연애시 모음집 정도로 생각하기 쉽다. 셰익스피어 이전의 소네트는 이상화된 미모의 여인을 대상으로 사랑의 감정을 토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

나 154편에 이르는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연작시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126편이 미소년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 젊은이는 그의 후견인이었던 사우샘프턴 백작(Earl of Southampton)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추측일 뿐이다. 나머지 28편만이 그가 사랑에 빠진 '검은 여인(Dark Lady)'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이 여인도 정체가 불분명하다.

젊은 귀족을 상대로 하는 소네트 대부분도 우정이라기보다는 사랑에 가까운 감정을 묘사하고 있어서 오늘날 그를 동성애자로 단정하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이다. 셰익스피어 당시 당대의 시류를 따랐던 젊은 신사라면 달콤한 소네트 한편쯤을 사랑하는 여인에게 보내지 않을 자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대부분 소네트는 여인이 아닌 귀족으로 추정되는 미소년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 젊은이에 대한 사랑과 질투심, 경쟁심과 소외의식 등이 상세히 묘사되어 비록 플라토닉 러브라고 하지만 결코 평범한 우정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28편의 소네트에 등장하는 검은 피부의 여인은 피부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검은 여인으로 묘사되며, 시인은 그 여인을 사랑하면서도 그런 사랑에 빠진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하기도 한다. 육욕적이고 언행까지 부정한 검은 피부의 흑발 여인과 사랑에 빠졌지만 그녀가 자신의 라이벌 시인과 욕정을 즐기기까지 하자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연작시는 남녀 간의 전통적인 이상화된 사랑을 패러디하여 전복시키며 동성 및 이성 간의 사랑과 욕정, 배신과 절망 등의 갈등을 표현하고 있다.

셰익스피어의 소네트가 과연 언제 누구를 상대로 쓰인 것인지 확증할 수는 없

다. 그래서 소네트 연작시 전체는 하나의 극작품처럼 창조적인 상상력의 산물일 수도 있다. 셰익스피어의 극작품이 풍부한 상상력에 의해 시적 운문으로 쓰인 것처럼, 그의 소네트 연작시는 하나의 연극과도 같은 상상력의 작품일지도 모른다. 시인은 그가 사랑하는 젊은 귀족 후견인 혹은 검은 피부의 여인에게 극적인 질문을 던지거나 대답하면서 다양한 인간 유형에 대한 분석까지 곁들이고 있다. 소네트 연작시에 나타난 이런 극시적인 묘사와 인간성에 대한 셰익스피어의 통찰력은 극작품에서 인간성을 창조하는 천재로 드러난다.

Sonnet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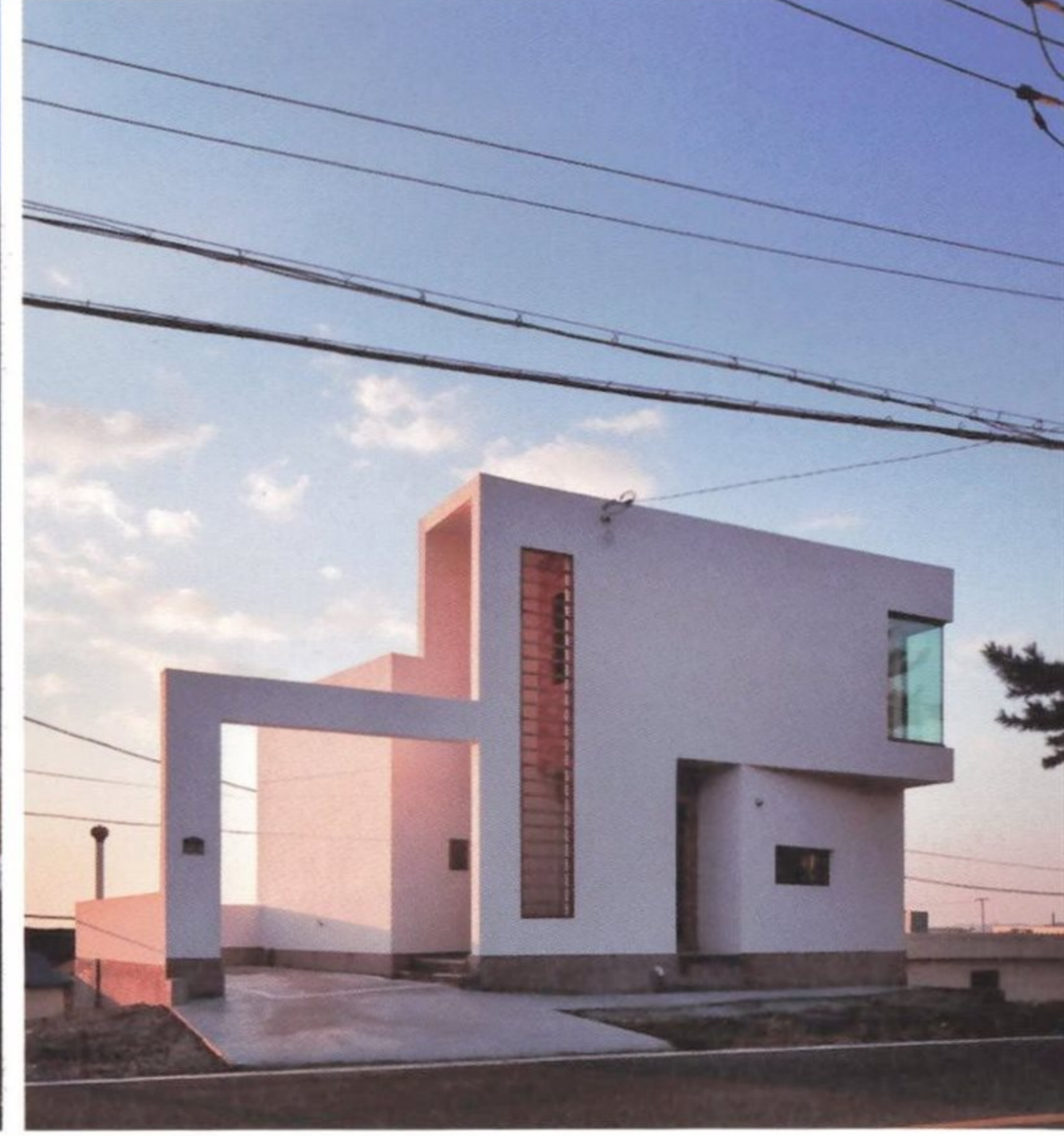
Shall I compare thee to a summer's day?
Thou art more lovely and more temperate:
Rough winds do shake the darling buds of May,
And summer's lease hath all too short a date:
Sometime too hot the eye of heaven shines,
And often is his gold complexion dimm'd;
And every fair from fair sometime declines,
By chance or nature's changing course untrimm'd;
But thy eternal summer shall not fade
Nor lose possession of that fair thou owest;
Nor shall Death brag thou wander'st in his shade,
When in eternal lines to time thou growest:
So long as men can breathe or eyes can see,
So long lives this, and this gives life to thee.

소네트 18

나 그대를 한여름 날에 비기오리까?
그대는 더 아름답고 더 온화하여라.
거친 바람이 5월의 고운 꽃봉오리를 흔드나니,
여름의 기한은 너무나도 짧게 지나가도다.
때로 하늘의 눈은 너무나도 뜨겁게 쬐이고,
그의 금빛 얼굴은 종종 흐려지기도 하도다.
어떤 아름다움도 언젠가 그 아름다움이 기우나니,
우연이나 자연의 변화로 고운 치장 소멸되도다.
그러나 그대의 영원한 여름은 퇴색될 리 없으니,
그대가 지닌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죽음도 그대가 자기 그늘에 헤맨다고 자랑치 못하리니
불멸의 시행 속에서 그대는 시간과 대등해지느도다.
인간이 숨을 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한,
이 시는 살아서 그대에게 생명을 부여하리라.

건축으로 보는 부산, 부산 문화

글 강기표
건축가 건축사사무소 아체 ANP 대표
동명대학교 건축학과 외래교수



소박하지만 삶이 묻어나는 집

“

근자에 들어 획일적, 기성제품식의 주택에서 벗어나 '집'을 찾고자 하는 이가 늘어나고 있다. 일본의 유명건축가 '안도 타다오'는 "건축이란, 단가나 규모가 아니라 건축주와 함께 얼마나 꿈을 나누며 도전해 나갈 수 있느냐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건축가의 역할과 도전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다. 건축주의 꿈을 조금이나마 함께 이룬 '집'을 살펴보고자 한다. 바다가 바라다 보이는 월내의 '반쪽집', 농촌 마을 노부부와 주말에 찾아오는 자녀, 손자들을 위한 대가족의 '생곡 주택', 조용한 전원생활과 수채화 화가의 작업을 위한 '김소춘 갤러리'를 살펴봄에 '집'에 대한 생각을 갖는다.

바다를 안은 집... 반쪽집

새롭게 확장된 도로에 의해 집과 대지의 반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할까? 기장의 푸른 바다가 보이는 도로변의 작은 집... 이 집이 시간이 흘러 도로가 확장되면서 집과 땅이 반쪽으로 잘려 나가게 되었다. 도로로 잘려 나간 좁은 땅과 보상비로 받은 부족한 건축비에서 출발한 '반쪽집'(오신욱²⁾ 건축가, 라움건축

사사무소)은 1층의 거실 겸 주방 그리고 침실, 2층의 다용도의 가족실로 구성되어 연면적 75.46㎡로, 20평을 조금 넘는 규모로 과거 온전한 집에서의 공간과 기능을 유지시키고 있다. 바다로 향한 창은 바다를 마치 풍경화 같이 받아들이고 있고 2층의 작은 발코니는 청량한 바다 내음을 선사하고 있다. 단순한 메스(건축의 큰 덩어리)의 외형과 밝은 색의 테라코트 마감은 과도한 화장을 하지 않은 채 주변 집과 어울리며 서 있다. 월내에서 활어집을 하고 있는 집주인이 홀로 살고 있지만, 주말마다 찾는 딸과 손녀들로 가족의 화목과 기쁨을 찾았다고 한다.

자주 가고 싶은 할아버지 집 - 생곡 주택

5남매의 자녀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찾아오는 대가족의 농촌주택... 온가족이 다 모이면 손주까지 22명, 많은 가족들이 모이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건축주의 요구 그리고 대지는 산과 밭을 접하고 있

어 물이 흘러들어 오고 공간적 요구와 불리한 대지 여건 등등... 쉽게 풀리지 않은 작업이었을 것이다. 강대화³⁾건축가(건축사사무소 토탈)는 이러한 불리한 조건을 장점으로 활용하며 농촌 주택의 새로움을 보여주고 있다. 물이 흐르는 대지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건축가는 '피로티 구조'로 1층을 완전히 개방함으로써 물에 대한 흐름을 해결하고, 잃어가고 있던 마을 공동체의 앞마당으로 내어 놓음으로써 마치 마을의 정자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며, 마을을 배려하고 있다.

1층의 '피로티 공간'은 마을의 쉼터가 되기도, 손자의 놀이터가 되기도 하면서 가정과 마을이 함께 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노부부와 손자들을 위하여 배려된 경사로로 걸어 올라가 맞이하는 2층 노부부의 공간은 거실과 주방, 침실이 있고, 중정으로 향한 베란다는 하늘로 열려 따스한 햇살을 받아들인다. 주말의 대가족을 위한 공간은 접이식 문으로 구분되며 마치 '게스트룸'과도 같이 별도의 영역을 부여 한다.



① 김소춘 갤러리_©강기표
 ② 반쪽집_©윤준환
 ③ 생곡주택_©조명환
 ④ 마당과 갤러리 김소춘 갤러리_©강기표

마을 주민에게는 앞마당으로, 가족에게는 안락한 생활공간으로, 손주들에게는 흥미와 즐거움이 있는 “자주 가고 싶은 할아버지 집”이 되고 있다.

아뜰리에와 전원 주택
 — 김소춘 갤러리

은퇴한 교수와 수채화 화가 부부의 집인 ‘김소춘 갤러리’(강기표⁴⁾ 건축가, 건축사사무소 아체 ANP)는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는 노부부에게 조용한 작업공간과 수채화를 전시할 수 있는 갤러리 겸 거실과 사적공간을 요구하였다. 공적 공간인 작업공간과 갤러리 겸 거실, 주방은 1층으로, 사적공간은 2층으로 배치하였다. 남쪽을 향한 집과 마당은 기장 용천리 회룡마을의 자연을 끌어 들이며 이웃한 집에 대한 배려를 생각하며 앉아 있다. 마당으로 면한 거실 겸 갤러리는 목재 데크를 통하여 앞마당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대청마루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거실은 일반적인 집의 높이 보다 높게 하여 갤러리로서의 전시공간을 형성하고 높은 천장을 통한 공간감을 풍성하게 한다. 앞마당으로 향한 창은 정원의 자연을 큰 액자와 같이 받아들이며 거실의 뒤로

면한 창은 달음산으로 향하고 있다. 거친 스타코 마감과 사이딩 판넬의 외벽은 소박하면서도 기존의 집들과 어울리며 멋 부리지 않고 앉아 있다. 원주민이 아닌 사람이 들어와 농촌 마을에 산다는 건 마을공동체와의 어울림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는 ‘홀로 전원 주택’이라는 도시민의 오만에서 벗어나는 길목이며, 마을 공동체와의 융합은 삶의 질을 높여 줄 것이다. 노부부는 마을로 향한 마당과 목재데크 마루와 낮은 돌담으로 쉽게 마을 공동체와 동화되어 아주 빨리 마을 주민이 되었다. 노부부와 그들의 집은 소박하고 멋 부리지 않고 마을에 앉아 있다.

‘집’은 주택과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이기도 하다. 집 속에는 사람과 가족과 이웃의 삶이 있다. 하지만 주택은 재산적 가치에 방점을 찍고 있다. 집은 마을이라는 공동체 속에서의 세포와 같아서 자라나고 이웃과 함께 성장한다. 집은 소박하지만 그러나 주택은 자기 과시적 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마을과 도시를 이루는 세포인 ‘집’은 가정과 이웃과 함께 할 때 진정한 집으로써 삶의 모태가 된다.

- 1) 안도 타다오 (安藤 忠雄, Ando Tadao)
 일본의 건축가. 세계 각국을 여행하고 장인과 시공업자들 주위에서 독학으로 건축을 공부했다. 물과 빛, 노출 콘크리트의 건축가로 불리며 완벽한 기하학 구조가 절묘하게 자연과 어우러지는 평온하고 명상적인 공간을 창조해냈다. 건축의 노벨상이라고 할수 있는 ‘프리츠커상’을 1995년에 수상했다. 한국에서의 작품으로는 제주도 섭지코지의 ‘글라스 하우스’와 ‘지니어스로사이’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본태 박물관’ 그리고 서울 혜화동의 ‘JTI 아트 센터’와 ‘JTI 크레이티브 센터’가 있다.
- 2) 오신욱
 동아대학교 건축공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2001년 건축가 노정민과 라움(Raum)을 설립하여 부산외국어대학교 마스터플랜 현상설계에 당선되었고, 부산침례교회 비전센터, 반쪽집, 아이누리 아트센터, 마로인사옥, 옥상라움 등 다수의 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범천 오+사 빌딩, 아토피 하우스, 화명 J하우스 등 대지의 상황이 열악한 다수의 작업을 진행중이다. 타 분야의 젊은 예술가들과 두차례 [공상전]을 통해 공간실험을 병행하였다. 현재 동아대학교 겸임교수이며 2013년 부산 신인건축가상을 수상하였다.
- 3) 강대화
 동의대학교 건축공학과, 홍익대학교 환경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일본 동경소재 (주)일본설계사무소를 거쳐 현재건축사사무소 토탈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대학교와 동의대학교 겸임교수로 있다. 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해운대 세무서, 새관안교회, 안디옥교회, 안골주택, 생곡동주택 등의 작품이 있으며, 부산건축대전 완공건축부문, 부산시 우수건축상, 부산다운 건축상 등 다수의 건축상을 수상하였고, 2012년 부산문화상을 수상하였다.
- 4) 강기표
 동의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건축사사무소 ATRCHE ANP’를 운영하고 있다. (사)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부회장을 거쳐 (사)한국건축가협회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제대학교와 동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로 있으며, 영화에 대한 관심도 많아 영화와 건축에 대한 강연과 임상수 감독 등 영화감독 초청 토크 콘서트를 수차례 하였다. 주요 작품으로는 40계단 문화관, 콩스버그 마리타임코리아, 김소춘 갤러리 등이 있으며 부산건축대전 베스트상, 동래건축문화상 등 다수의 건축상을,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부산광역시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자연 속에서 즐기는 전통문화체험 금정산성 문화체험촌

ㄴ

꼬불꼬불한 금정산 산성도로를 타고 30여 분을 달리면 도착하는 산성마을.

도심에서 멀지 않으면서도 자연으로 둘러싸인 이곳에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색다른 문화공간이 있다.

바로 금정산성 문화체험촌이 그곳.





산성도로를 오가는 203번 버스를 타고 금성마을 주민센터에서 내려 10여분을 걸어올라 가면 빈 막걸리 통을 엮어 만든 독특한 모양의 조형물이 반기는 문화체험촌과 만난다. 도심에서 불과 30여분 떨어져 있지만 아름다운 금정산 산자락에 둘러싸인 이곳은 마치 추억 속 외갓집을 방문한 듯한 정겨움을 선사한다. 체험장 외에도 수생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쉼다리와 텃밭, 숲 산책길, 잔디밭 등이 조성되어 전통문화체험 뿐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마음껏 휴식도 누릴 수 있다.

금정산성 문화체험촌은 이 곳에서 나고 자란 차일찬 촌장이 자연과 더불어 신나게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전통문화 체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998년 처음 문을 열었다. 차일찬 촌장이 취미로 배웠던 도자기빚기 체험으로 시작된 체험 프로그램은 20여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은 천연염색, 농작물 체험, 막걸리 빚기, 전통음식 만들기, 힐링 숲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보다 다양해졌다. 요즘도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 구상에 여념이 없다는 차일찬 촌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문화재발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금은 방문객 요청에 따라 체험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여건이 되면 상설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 곳에 오면 언제나 다양한 전통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는 열린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정산성 문화체험촌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어 유치원생, 청소년들의 체험수업 장소로 인기가 많다. 최근에는 자연과 가까워 질 수 있는 힐

링 숲 체험 프로그램을 개설, 도시생활에 찌든 방문객들에게 소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나 외국인 방문객들도 늘고 있다. 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수업은 뽕니뽕니 해도 막걸리 빚기.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금정산성 막걸리를 직접 빚어볼 수 있어 부산시민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이밖에 술빵, 김치, 두부 등 우리 전통음식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전통음식 체험 프로그램도 많이 찾고 있다.

이 곳 문화체험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체험프로그램은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주민들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주민 수는 모두 12명. 그래서 지난해에는 금정산성 문화체험촌이 마을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유치원생부터 청소년, 일반인, 그리고 외국인들까지 한달에 천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곳을 찾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유치원, 학교의 방문수업 요청까지 늘면서 금정산성 문화체험촌의 전통문화체험을 즐기는 숫자가 늘고 있다.

막걸리 빚기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한 체험을 제외하고는 당일 신청도 가능하나 전화 문의는 필수. 단, 단체 5인 이상이야 체험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금정산성 문화체험촌

(513-6848, sanseong.alltheway.kr)



구수한 이야기로 풀어내는 부산의 어제와 오늘 이야기 할배·할매

ㄴ

부산의 할배, 할매들이 부산을 알리는 관광도우미로 나섰다. 부산원도심 근대역사 골목투어 스토리텔러인 '이야기 할배, 할매'가 바로 그 주인공들. 삶의 연륜이 묻어나는 생생한 이야기로 벌써부터 '할배, 할매'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

부산원도심 근대역사 골목투어는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등 부산 원도심 지역에 산재한 근대 역사문화 자원과 부산의 먹거리, 볼거리를 연계해 만든 관광코스로, 새로운 컨셉의 관광 콘텐츠로 벌써부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코스는 '영도다리를 건너다', '용두산에 올라 부산포를 보다', '이바구길을 걷다', '국제시장을 기웃거리다' 등 모두 4코스.

'영도다리를 건너다' 코스는 6·25 전쟁 당시 피란민의 애환이 서린 영도다리를 시작으로 수리조선소 길, 봉래시장·남항시장, 부산어묵전시관까지 부산의 근대역사와 먹을거리 체험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코스로 도보로 2시간가량 걸린다. 초량왜관 터를 시작으로 광복로, 용두산공원, 근대역사관, 대각사까지 둘러보는 '용두산에 올라 부산포를 보다'코스는 용두산 타워에서 원도심과 부산항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이바구길을 걷다' 코스는 옛 백제병원과 남선창고 터, 초량교회를 지나 168계단, 김민부전망대, 당산, 이바구공작소로 이어지는 코스로, 역시 6·25 전쟁 피란민들의 애환을 느껴 볼 수 있다.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국제시장을 기웃거리다' 코스는 BIFF 광장을 출발해 먹자골목, 국제시장, 보수동 책방골목, 부평깡통시장, 미술의 거리까지 걷는 코스로, 이승기 씨앗 호떡, 부산어묵, 비빔당

면 등 부산의 먹을거리를 경험할 수 있는 이색 코스이다. '이야기 할배·할매'들은 코스별로 관광객과 동행하면서 골목 투어 코스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올해 6월 첫걸음을 내딛은 '이야기 할배·할매'는 모집공고를 통해 선발된 64명의 할배, 할매들이 활동하고 있다.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스토리텔러 양성교육을 통해 이론에서부터 현장, 실습까지 모두 마친 이야기 할배, 할매들은 대부분이 부산에서 태어나 자라거나 혹은 학창시절을 부산에서 보낸 분들이기에, 간혹 지루할 수 있는 근대역사 이야기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생생한 이야기로 풀어내면서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6월 14일 첫 투어를 시작한 후 지금까지 400여 명이 골목투어에 참가해 부산의 어제를 체험했다.

지난 7월 9일에는 만덕중학교 2학년 1반 학생들과 함께하는 골목투어가 펼쳐졌다. 이날 골목투어 코스는 '영도다리를 건너다'. 만덕중학교 2학년 1반 교사인 문수길 씨가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살고 있는 부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신청한 이날 투어에서는 마침 여름휴가를 맞아 대전에서 부산을 찾은 김강희, 양지애 부부도 동참했다. 이날 이야기 할배는 허광순 씨와 이내영 씨. 오전 11시 30분 남포동 부산종합관광안내소에 모인 학생들은 간단한 기념촬영 후 본격적인 투어길에 나섰다. 이날 투어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영도다리 도개 관람을 위해 서둘러 영도다리로 자리를 옮긴 학생들은 영도다리 도개를 관람한 후 수리조선소 길, 봉래시장·남항시장, 부산어묵전시관을 둘러보며 조선 산업이 최초로 태동된 항구도시 부산의 근대를 경험했다. 이야기 할배 허광순 씨의 막힘없는 해설과 끊임없이 풀어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투어의 재미를 더했다.

'이야기 할배'로 활동하기 전부터 해운대지역 관광 해설사로도 활동했던 허광순 씨는 이야기할배 모집공고를 본 지인의 추천으로 '이야기 할배'와 인연을 맺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나올 수 있는 교과서적인 내용 외에도 직접 이야기 듣고 경험했던

살아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서 관광객들의 호응이 크다는 그는 자신도 이 일을 하게 되면서 부산에 더욱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다고. 부산을 찾는 관광객 뿐만 아니라 부산시민들도 투어에 참가해 자신이 살고 있는 부산에 대해 더욱 많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허광순 씨는 2시간이 넘는 코스 중간 잠시 쉴 수 있는 편의시설, 화장실이 없는 것이 아쉽다.

투어에 같이 참여했던 이야기 할배 이내영 씨도 지인의 권유로 이야기 할배에 응시했다. 평소 다문화가정 방문지원사, 방과후 교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내영 씨는 특히 어린이, 청소년 투어에 관심이 많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부산의 역사를 속속들이 들려주고 싶다는 그는 더운 여름 지칠 법도 하건만 참여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언제나 힘이 난다.

'이야기 할배·할매'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주중에도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 홈페이지(www.bto.or.kr)나 전화(780-2178)로 신청하면 이야기 할배·할매와 언제든지 동행할 수 있다.



'이야기 할배·할매'들은 코스별로 관광객과 동행하면서 골목 투어 코스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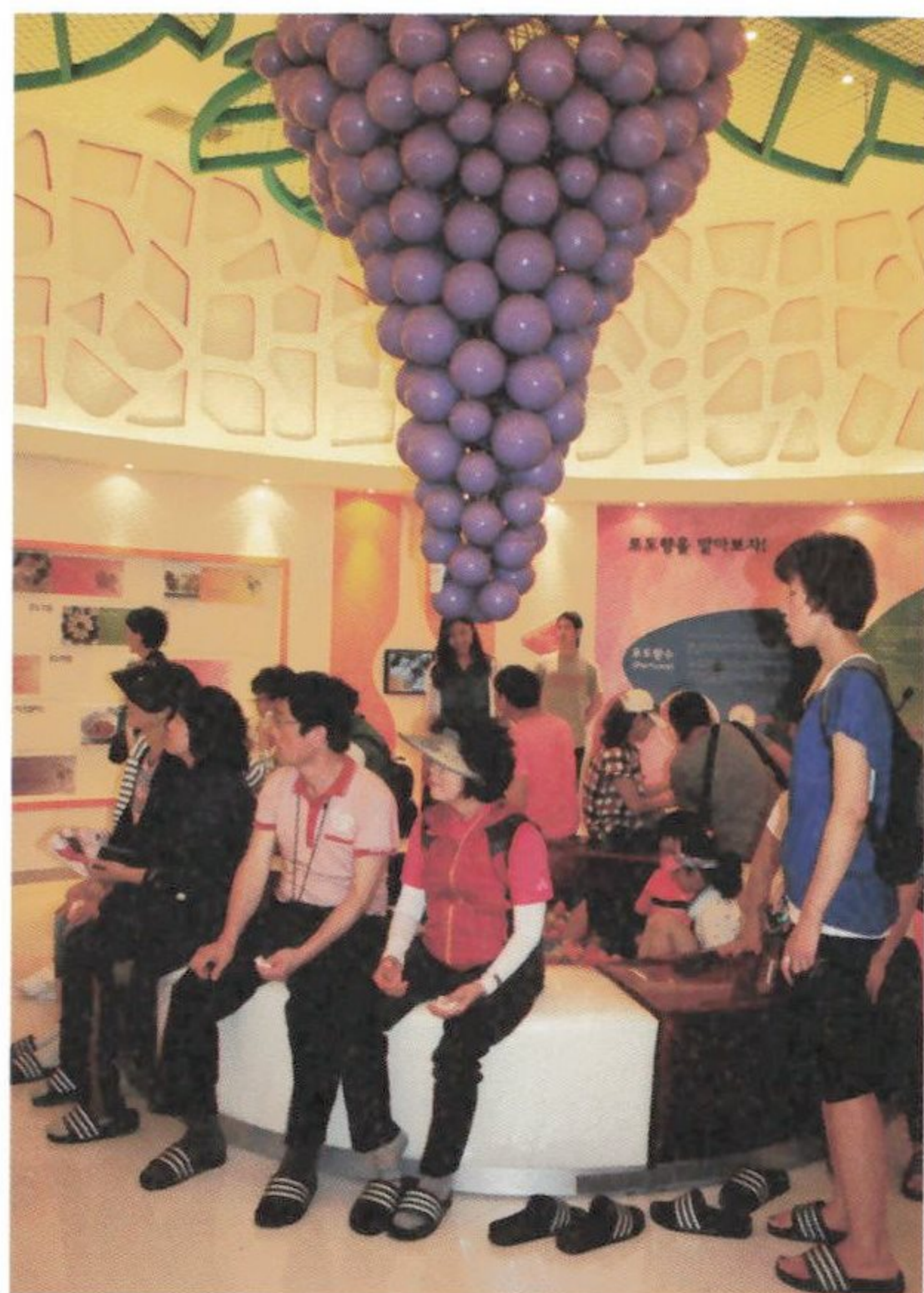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 예술이 함께했던

김천 여름여행

태풍 너구리가 지나가고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리던 지난 7월 11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들과 떠나는 99번째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7월 테마여행은 천년고찰 직지사가 자리한 김천. 사명대사의 출가득도 사찰로 이름난 직지사와 시와 음악이 실개천을 따라 흐르는 직지문화공원, 풍광이 아름다운 방초정 등을 둘러보며 김천의 여름을 느껴볼 수 있었다. 7월 테마여행에는 부산시립극단 단원 정행심, 김은희 씨가 동행했다.

세 시간을 달려 처음 도착한 곳은 포도 특구지역인 김천 반곡포도마을. 뛰어난 재배기술력으로 유기농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면서 재배가 어려운 무농약 캠벨에서부터 씨없는 거봉, 향이 진한 청포도, 눈으로 보기에 매혹적인 홍포도까지 다양한 품종의 포도를 생산하고 있는 포도의 주산지이다. 마을 주민으로부터 간단한 설명을 들



은 후 본격적인 포도따기 체험에 나섰다. 향긋한 포도향으로 가득한 비닐하우스에 들어서자 보기에 먹음직스런 홍포도가 주렁주렁 매달려 회원들을 반긴다. 굵직굵직한 포도송이와 달콤한 그 맛에 회원들의 감탄이 연신 터져나온다. 포도수확 체험 후에는 최근 마을에 문을 연 포도홍보관과 삼색포도터널을 둘러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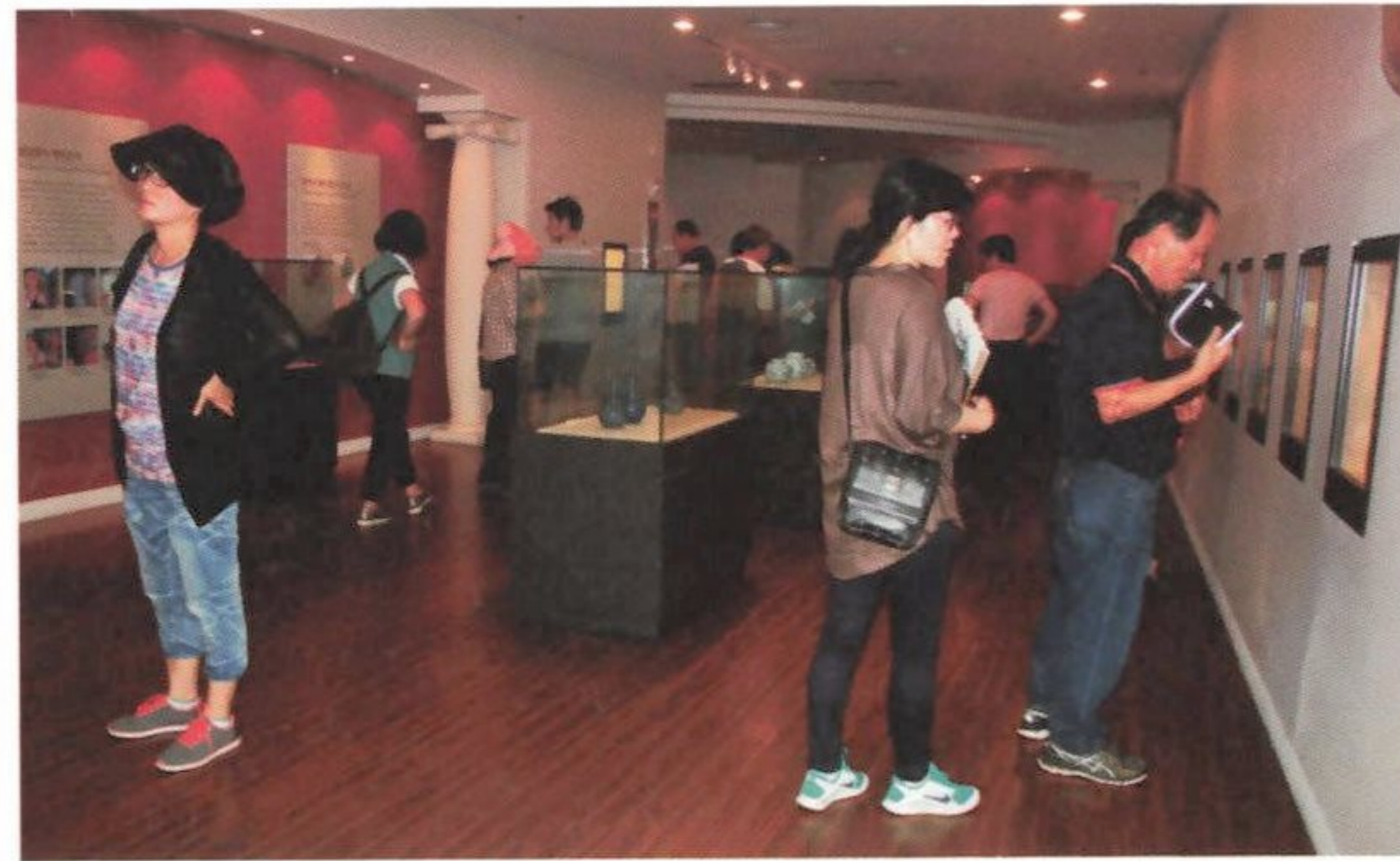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오후 본격적인 직지사 탐방에 앞서 포도즙으로 밥을 지어 더욱 향긋한 산채비빔밥으로 점심식사를 마친 회원들은 소화도 시킬 겸 직지사 입구에 조성된 직지문화공원을 따라 직지사로 향했다. 직지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조성된 직지문화공원은 중앙의 음악조형분수를 중심으로 광장, 대형폭포, 어린이놀이터 등 각종 편의시설과 국내외 17개국 유명 조각가들의 작품 50점, 20개의 시비(詩碑), 공연장 등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공원에는 김천 출신의 시조시인인 백수(白水) 정완영 선생의 작품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백수문학관과 유럽과 일본, 중국의 도자기 1,019점이 전시되고 있는 김천세계도자기박물관이 공원내에 자리하고 있어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회원가족들은 한여름 시원하게 물줄기를 뿜고 있는 중앙 분수대를 지나 세계도자기박물관을 둘러보았다. 4,585㎡ 부지에 600㎡ 면적의 지하1층, 지상1층 건물로 구성된 세계도자기박물관은 재일교포 2세인 복전영자[福田英字]가 2005년 유럽의 도자기와 크리스탈 작품 1,019점을 기증하면서 만들어

졌다. 3곳의 전시실과 영상실을 갖춘 세계도자기박물관은 백자청화모란문호, 청자상감초화문완을 비롯한 한국도자기 30점, 로열 크라운더비 병, 크라운화병 등을 포함한 유럽도자기 503점, 랄리크 사자, 무라노 앵무새, 빅토리안 촛대를 포함한 크리스탈 작품 512점 등 총 1,063점에 달하는 도자기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김천세계도자기박물관을 둘러본 후 본격적인 직지사 탐방에 나섰다. 신라 눌지왕 2년인 418년 아도화상이 창건한 직지사는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이라는 선종의 가르침에서 유래되었다는 설과 창건주인 아도화상이 김천의 황악산을 가리키며 저산아래에도 절을 지을 길상지지(吉祥之地)가 있다고 하여 이름 부쳐졌다는 설, 그리고 고려의 능여화상이 직지사를 중창할 때 직접 자기 손으로 측지하였기에 부쳐진 이름이라는 설이 전해져온다. 특히 직지사는 조선시대 사명대사가 출가하여 득도한 절로 유명한데 현재 경내에는 대웅전(1735년 중건)을 비롯해 천불이 모셔져 있는 비로전(1661년 창건), 약사전, 극락전, 응진전, 명부전, 사명각(泗溟閣) 등이 남아 있다. 중요문화재로는 국보인 금동6각사리함과 보물인 석조약사불좌상, 대웅전앞 3층석탑 2기, 비로전 앞 3층석탑, 대웅전 삼존불탱화 3폭 등이 있다. 한여름 뜨거운 별 아래에서도 회원가족들은 해설사의 설명 하나라도 놓칠세라 집중해서 귀를 기울인다.

7월 테마여행의 마지막 장소는 풍광이 아름다운 방초정(芳草亭). 상원리 출신의 유학자 이정복(李廷馥)이 인조 3년(1625년)에 선조를 추모하기 위해 지은 2층 누각으로, 자신의 호(號)를 따 방초정



이라 했다. 뜰 앞 연못 중앙에는 섬을 둘로 배치해 독특한 정원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건물·연못·수목의 배치 등은 조선 시대 정원 조경양식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방초정 앞 연못은 최씨담(崔氏潭)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이름에는 임진왜란 당시 왜군에 쫓기다 정절을 지키기 위해 연못에 뛰어든 이정복의 처 화순최씨와 그의 노비 석이의 슬픈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방초정 옆에는 최씨 부인의 정절을 기리기 위한 정려각과 상전이었던 최씨 부인을 구하기 위해 못에 뛰어든 노비 석이를 기리는 비석이 나란이 서있다. 특히 노비 석이의 비석은 그 당시 반상의 신분이 엄중했던 시기라 비석까지 만들었으

나 세우지 못하고 연못에 내던져졌던 것을 지난 1975년 최씨담 준설공사를 하던 중 발견되어 세상을 놀라게 했다.

방초정에서 테마여행의 하이라이트인 부산시립극단 단원들의 공연이 펼쳐졌다. 부산시립극단 단원 정행심, 김은희 씨가 연극 ‘늙은 창녀의 노래’, ‘걱정천리’의 한 장면을 시연했다. 제대로 된 음향, 조명시설도 없는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는 단원들의 열정적인 연기에 회원들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부산시립극단 단원과의 만남을 끝으로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 예술이 함께 했던 김천 테마여행은 다양했던 볼거리, 체험만큼이나 정기회원 가족들의 여름여행으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이다.

8월 당첨자

신규 가입하신 분

- 김진경(해운대구 반여로)
- 김혜란(남구 석포로)
- 남수진(부산진구 가야대로)
- 민수진(북구 금곡대로)
- 박혜숙(수영구 수영로)
- 방길호(사상구 백양대로)
- 손은정(사상구 주례로)
- 신영미(부산진구 냉정로)
- 윤수진(금정구 기차로)

- 이미란(금정구 금단로)
- 이상범(기장군 기장대로)
- 이신애(수영구 광남로)
- 이정연(해운대구 센텀동로)
- 이향미(금정구 온천장로)
- 이혜은(남구 석포로)
- 전정희(남구 천제동로)
- 최성덕(해운대구 우동)
- 최영미(영도구 동삼2동)
- 한지혜(부산진구 가야대로)
- 홍동석(수영구 수미로)

엽서 신청 하신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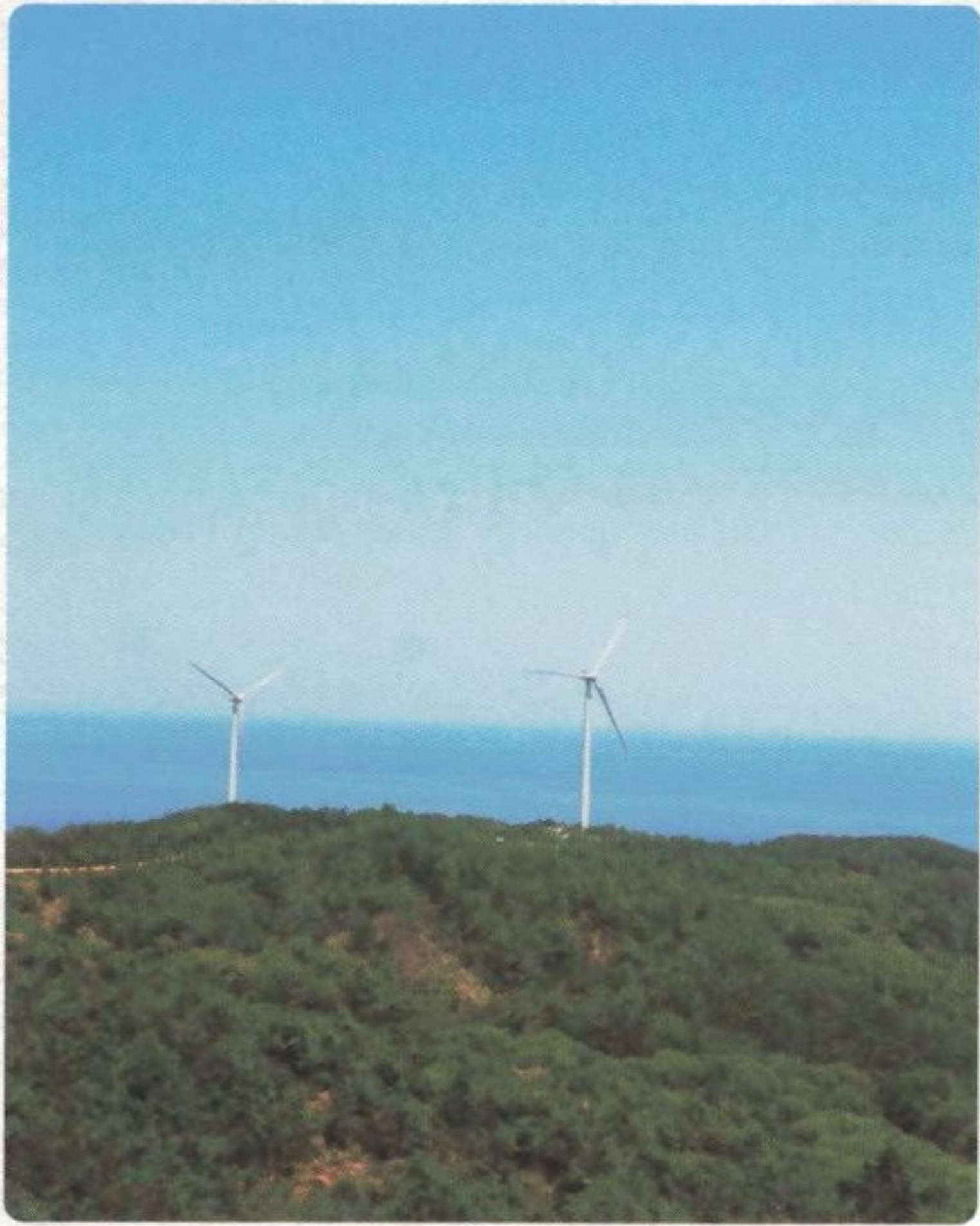
- 고은희(북구 금곡대로)
- 김경숙(영도구 꿈나무길)
- 김미자(서구 총무대로)
- 김순덕(기장군 차성로)
- 김정희(북구 용당로)
- 남희철(중구 대청로)
- 박명재(수영구 연수로)
- 백종희(중구 대교로)
- 송영숙(금정구 장전로)
- 서인애(사상구 백양대로)

- 오인숙(수영구 광일로)
- 윤선경(수영구 황련산로)
- 이고은(연제구 거제대로)
- 이동혁(연제구 고분로)
- 이수연(동래구 명륜로)
- 임가연(사하구 승학로)
- 조미숙(해운대구 양운로)
- 최정숙(서구 임시수도기념로)
- 하은해(수영구 남천동로)
- 홍지훈(금정구 금사로)

※8월은 100회 특집으로 진행됩니다.

부산녹색지원센터와 함께하는 에코투어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영덕 블루로드길

9월 12일(금)

영덕 블루로드길에서 배우는 신재생 에너지

대부분의 에너지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현황을 배울 수 있는 영덕 블루로드길 여행. 영덕의 명물 풍력발전소는 바람이 많은 영덕 창포리 지역의 사계절 바람을 활용한 명소로 미래 대체에너지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곳. 영덕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블루로드길을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배워본다.

- 07:00 부산문화회관 집결
- 10:00 풍력발전소, 신재생에너지전시관, 해맞이공원
- 12:00 중식
- 13: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4:00 죽도산 블루로드 다리, 죽도산 전망대, 어촌 체험
- 16:00 부산으로 출발



진해

10월 10일(금)

진해만 생태숲 힐링투어

환경적, 생태적, 종생물학적 보존가치가 높은 다양한 식물과 생물이 분포하고 있는 진해만 생태숲에서 즐기는 힐링의 시간. 2002년에 착공 2008년에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생태학습장인 진해만 생태숲은 자연생태계의 다양한 동식물들을 관찰, 체험, 학습 등을 할 수 있는 생태체험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 08:00 부산문화회관 집결
- 10:00 진해만 생태숲 도착 - 숲의 향기를 찾아라, 숲길 걷기, 나뭇잎 잔치, 편백비누 만들기, 마음을 담아요 등 생태숲에서 체험
- 12:00 중식
- 13:00 시립예술단 숲속 음악회
- 13:30 목재문화체험장 탐방
- 15:00 진해우체국(사적 제 291호) 방문
- 16:00 부산으로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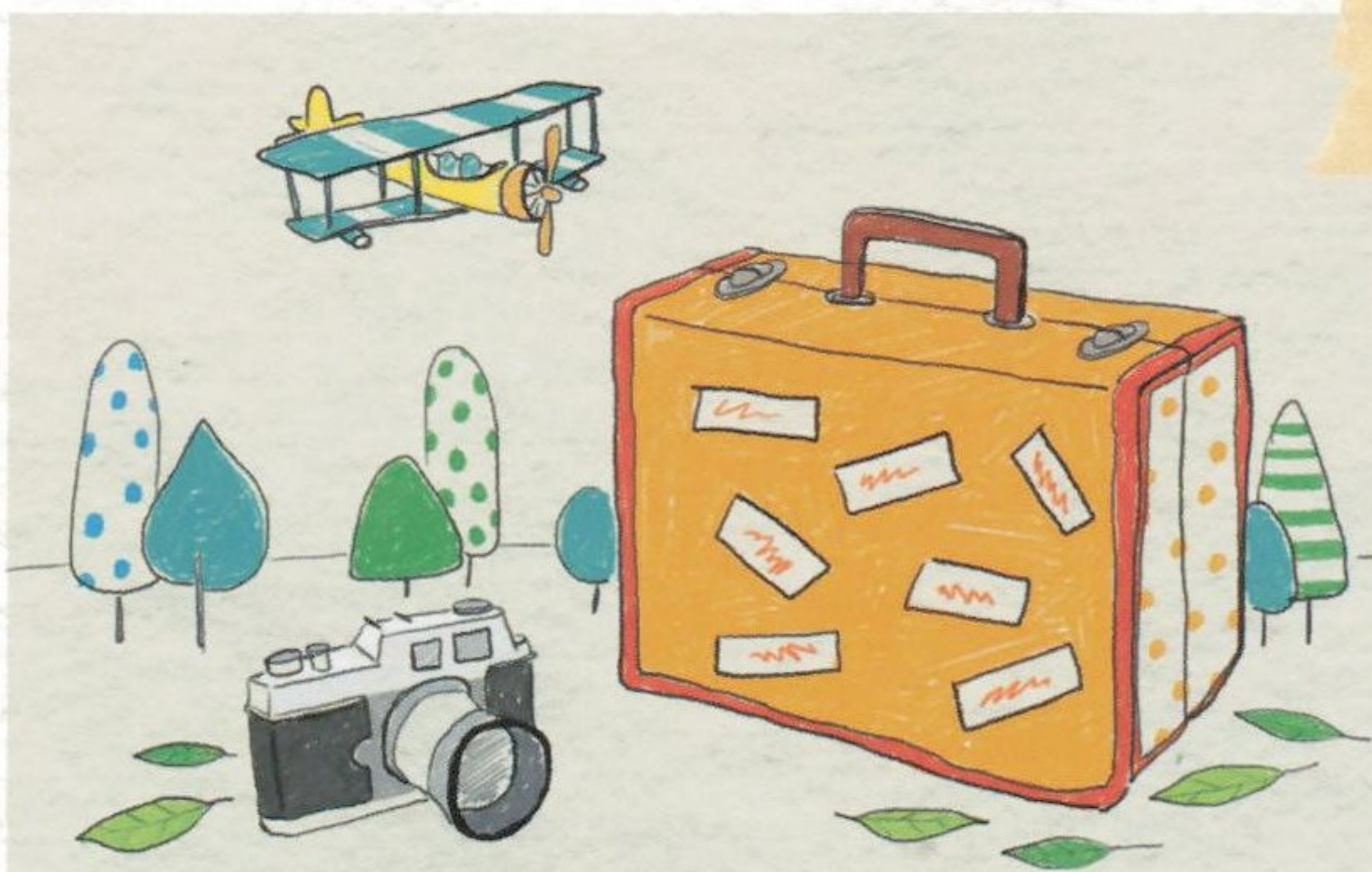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체험비는 회원 부담)

| 신청방법 | 엽서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

| 마감일자 | 8월 16일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수직의 질주

무섭게 솟아오르는 수직의 질주는 우리를 가로막고 수평의 바다와 산을 잊으라 한다.
팔뚝 병풍 뒤로 숨은 도시의 생명을 다시 불러 넣을 수 있길...



Culture Life

부산시주요공연장안내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 366-8114
부산문화회관 | 1607-6051~5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 1899-3253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을숙도문화회관 | 220-5812~3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가온아트홀 |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663-5363
공간소극장 | 611-8518
글로벌아트홀 | 505-5995
디코소극장 |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 626-0116
무대공감 | 623-0678
무지크바움 | 070-7692-0747
미리내소극장 | 504-2544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수아트홀 | 744-1415
숨사탕아트홀 | 922-454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움 | 557-3369
액터스소극장 | 611-6616
에저또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3
용천지랄소극장 | 612-4312
일터소극장 | 635-5370
음악풍경 | 987-5005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차성아트홀 |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한결아트홀(구 가마골소극장) | 1588-9155
AN아트홀 | 758-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S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LIG아트홀 | 1544-3922
MBC삼주아트홀 | 1566-3651
SM아트홀 | 1600-1602

- 30 프리뷰
- 38 리뷰
- 40 프로그램 가이드
- 56 새로 나온 음반
- 57 새로 나온 책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후쿠오카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공연



이동신



마쓰다 가즈히로



이주은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한 부산문화회관의 또 하나의 방학 선물 ‘부산·후쿠오카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공연’이 8월 4일 부산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과 후쿠오카시립 후쿠오카 세이료고등학교 관현악부가 함께 하는 이번 무대는 2009년 부터 부산의 자매도시인 후쿠오카시의 ‘ACROS후쿠오카’와의 문화교류 일환으로 진행되는 뜻깊은 자리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후쿠오카시의 랜드마크인 ACROS후쿠오카의 20주년을 기념해 양국 청소년들의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 청중이 가장 많은 여름방학,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과 후쿠오카시를 대표하는 후쿠오카 세이료고등학교 관현악부가 합동 무대를 기획, 행사의 의의를 높여준다.

함께 연주하는 후쿠오카시립 후쿠오카 세이료고등학교 관현악부는 후쿠오카시 유일의 고등학생 풀오케스트라이다. ‘후쿠오카 시민의 재산으로서의 오케스트라’를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세이료고등학교 관현악부는 2012년, 아크로스 유스오케스트라의 중심핵으로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과 함께 연주했으며, 2013년 5월과 2014년 7월에는 한국의 신예지휘자 정민의 지휘로 연주하는 등 오케스트라의 매력을 전달하기 위해 밝고 활기차게 활동하고 있다.

첫 무대는 세이료고등학교 관현악부가 마쓰다 가즈히로의 지휘로 무소르그스키 전람회의 그림 중 ‘난장이’ ‘옛성’ ‘바바야가의 오두막’ ‘키예프의 대문’을 연주하고, 이

어지는 무대에서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이동신의 지휘, 유려한 테크닉 속에서도 음악의 자연스러움과 진지한 열정이 묻어나는 피아니스트 이주은의 협연으로 라흐마니노프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가단조 작품43’을 들려준다. 연세대학교 재학 중 도독, 뮌헨 국립음대에서 디플롬을 최고점수로 졸업한 이주은은 유럽 각지의 음악제에 초청되어 독주회와 실내악 연주 및 협연으로 연 50회 이상의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마지막 무대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과 세이료고등학교 관현악부의 합동 무대로 브람스 교향곡 제1번 작품 68 1, 4악장을 들려준다.

일 시 | 8월 4일 월요일 오후 5:00

장 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8

Preview

2014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16개국 100여 명의 세계 최고 수준의 마술사들이 펼치는 2014년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이 8월 7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부산문화회관 전역에서 펼쳐진다.

최근 부산에 전용관을 오픈한 마술사 최현우의 사회로 진행되는 개막식은 세계 최고, 최대 규모의 개막식으로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는 최고의 야외 마술쇼이다.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은 개막식에 이어 부산문화회관을 중심으로 3일간 마이클 아머, 데이 타임, 옴니버스 스페셜쇼 등 세계적인 매지션들이 신기한 마술의 세계로 안내하는 특별한 스페셜쇼, 국내 최고의 마술사팀 '더 핸드즈'의 특별무대, 세계 정상급 마술사들을 배출하는 아시아 최고의 국제 마술대회 '부산국제마술대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의 가장 화려한 공연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매지션들이 최고의 공연을 선보이는 '나이트매직 갈라쇼', 다양한 자료를 통해 북측 마술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평양요술단 특별전' 등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진다.

이 중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세계적인 수준의 '나이트 매직갈라쇼'는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독일 마술사 '토파즈', 미국의 마술 거장 '마이클 아머', 우크라이나의 발가락 액트 주인공 '블라드 크리보노고프', 일본의 막강한 저글링 실력자 '키코 브라더스', 미국의 대표 코메디 마술사 '레벤트', 2014 일본 올해의 마술사 '카즈 카타야마', FISM에서 신사적인 액트로 수상한 '타나망가', 일본의 대표 여성마술사 '아사미 사코' 등 초특급 해외 게스트들이 출연하고 국내에서는 현재 세계적인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마술사 최현우, 듀오매직(유현민, 박은경), 박설하, 양희준, 최철승 등이 출연한다.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은 다양한 예술과 문화, 퍼포먼스와 만나면서 새로운 전성기를 찾고 있는 마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단지 신기함만 주는 것이 아니라 페스티벌을 통해 상상의 존재와 미지의 세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세계최초로 북한의 마술을 만날 수 있는 '평양요술단 특별전'이 부산문화회관 중전시실에서 열린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던 평양의 마술을 만날 수 있는 이번 특별전에서는 도구 총 8종류(12점), 사진 약 50점 등을 포함해 평양요술단에 대한 영상도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전시되는 도구는 북측 마술의 1인자라 불리며 조선요술협회 회장으로 있는 김택성(80세)이 1970~80년대에 직접 제작한 창작도구들로 1985년, 재일교포 안성우 씨가 평양 공연 후 직접 선물 받은 것들이다.

일 시 | 8월 7일(목)-8월 10일(일)
장 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중극장, 소극장, 중전시실
입장료 | 국제마술대회(본선&결선) 균일 2만원
스페셜 쇼, 월드 클로즈업 쇼, 더 핸드즈 기획공연 R석 2만5천원, S석 2만원
나이트갈라쇼 VIP석 4만원, R석 3만원
문 의 |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조직위원회
626-7002 www.hibimf.org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심수봉과 함께하는 써머판타지 콘서트



무더운 여름, 부산시립합창단이 선사하는 시원한 음악선물 '심수봉과 함께하는 써머판타지 콘서트'가 8월 1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막이 오른다.

오세종 수석지휘자의 지휘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국민적 사랑을 받고 새롭게 재조명되는 국내외 가요, 팝음악을 부산시립합창단만의 색깔있는 합창음악으로 편곡, 한여름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린다.

2014년 '심수봉과 함께하는 써머판타지 콘서트'는 3가지 테마로 펼쳐진다. 그 첫 무대는 '한국가요합창...그 매혹적 아름다움에 대하여'. 원곡과 편곡된 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있는 '여러분'과 합창으로 재해석된 '한바탕 웃음으로', '서른 즈음에', '봄날은 간다' 등 새롭게 재해석된 가요합창 무대를 만날 수 있다. 이어지는 무대는 'POP...Legendary Thema'로, 'Green, green grass s home', 'Top pg the world', 'What s feeling', 'Bye, bye Love' 등 추억 속 올드팝 무대가 펼쳐진다.

마지막 무대는 '한국가요합창...영혼을 울리다'라는 테마로, 오랜 세월동안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가요를 다양한 구성의 합창무대로 펼친다. 가슴 아련한 '찔레꽃'을 시작으로 경쾌함과 추억을 부르는 '네 꿈을 펼쳐라', '아, 옛날이여', '어쩌다 마주친 그대'가 무대의 대미를 장식한다. 특히 이번 무대는 '그때 그 사람', '백만송이 장미'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국민가수 심수봉이 특별출연해 보다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2014년 '심수봉과 함께하는 써머판타지 콘서트'는 최근 사회적인 사건, 사고로 상실감과 불안함으로 가득한 요즘, 청중들에게 음악을 통해 힐링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잔잔한 감동과 위로의 시간을 선사한다.

- 지휘/오세종
- 특별출연/가수 심수봉
- 객원연주
홍광현(기타), 김진훈(드럼),
김정태(기타)

일 시 | 8월 12일 화요일 오후 7:30
 장 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 607-3141~2

Preview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우리시대의 영원한 테너 엄정행과 오지탐험가 도용복과 함께 하는

청소년해설음악회



전상철



엄정행



도용복

음악회를 자주 찾을 수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여름방학 음악선물 '우리시대의 영원한 테너 엄정행과 오지탐험가 도용복과 함께 하는 청소년해설음악회'가 8월 1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중·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 나오는 우리가곡, 외국가곡, 창작음악을 중심으로 선곡한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전상철의 지휘, 주한 엘사바도르 명예영사, (사)부산문화예술진흥회 이사장, 시인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오지탐험가 도용복의 맞춤 해설과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원들의 노래와 춤, 테너 엄정행이 들려주는 우리 가곡, 정홍기가 지휘하는 부산색소폰앙상블의 색소폰 연주 등의 다양한 무대로 청소년들과 만난다.

첫 무대는 정애련 곡 '둥개둥개 둥개' '여우야 여우야' '웃놀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로 연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살아나는 정애련의 곡들은 조국의 독립을 갈망하여 민족혼을 담아 아이들에게 부르게 했던 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떠올리게 하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와 '웃놀이', '여우야 여우야' 등이 널리 불리고 있다.

이어지는 무대는 오랜만에 부산을 찾는 테너 엄정행의 협연무대. 테너 엄정행은 양산 출신의 성악가로, 1968년 서울 명동 국립예술극장에서의 첫 독창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200회에 이르는 독창회를 펼쳤다. 또 우리나라와 이탈리아의 가곡을 비롯해 오페라, 성가 등으로 음반 22장을 발표하고 1천회 이상 음악회 무대에 오르며 한국가곡 대중화를 이끌어왔다. 테너 엄정행은 고향 양산에서 (사)연우엄정행음악연구소를 설립해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한 활동과 지역의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테너 엄정행 외에도 테너 엄정행 음악연구소 소

속 아마추어합창단인 연우합창단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2009년, 음악을 사랑하는 부산·양산 지역의 아마추어들로 결성된 연우합창단은 매년 정기공연, 문화의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공연 및 요양시설 등을 방문해 자원봉사 활동, 음악활동을 펼쳐왔다. 테너 엄정행과 연우합창단은 우리 가곡 보리밭, 별, 꽃 파는 아가씨, 이태리 가곡 O sole mio 등을 들려준다. 해운대 달맞이 철학축제, 부산 100만평 국가공원 조성 초청연주,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를 찾아가는 음악회, 부산문화회관 토요일상설 무대에서 온 실력과 앙상블로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OST 중 '도레미송', 할아버지의 11개월, 최성환 곡 아리랑 환상곡, 독도는 우리 땅을 들려준다.

일 시 | 8월 14일 목요일 오후 5:00

장 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무료(선착순입장)

문 의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61~2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14 한여름 밤의 춤 작품전



부산의 여름을 빛내는 열정적인 창작 춤 무대로 오랜 전통을 이어온 부산시립무용단 '한여름 밤의 춤 작품전' 2014년 무대가 8월 14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올해는 지금까지 한여름밤의 춤 작품전에 올려진 작품 중 윤은하의 '중독', 장래훈의 '화살이 빛나간 백조Ⅱ', 정진희의 '틀Ⅲ' 등의 우수한 세 작품을 선별하여, 자신만의 춤 언어와 몸짓을 통하여 직접 빚어낸 참신한 작품 세계를 다시 한번 선보인다.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전수자인 수석단원 윤은하는 그동안 '문 열어라 꽃아', '다른 길이 있다', '나다' 등의 작품을 통해 관객들과 만나왔다.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인 부수석 단원 장래훈은 부산시립무용단 제68회 정기공연 '찬란한 유산' 주역 외 다수 무대에서 주역으로, 정진희는 부산시립무용단 제66회 정기공연 '바리', 제70회 정기공연 '순례'에서 주역으로 활동했다.

윤은하의 '중독'은 탈출하려 하면 할수록 더욱 그 늪에 빠지게 되는 중독의 속성을 춤 언어로 표현한 작품으로, 자아를 잃게 되는 가장 치명적인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귀한 존재의 몸부림을 윤은하의 1인무로 보여준다.

장래훈의 '화살이 빛나간 백조Ⅱ'는 벗어놓은 날개의 옷이 숨겨지고 지상에서 애뜻하게 사랑을 하지만 결국 천상으로 날아가 버린다는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오히려 날 수 없다는 것, 자연의 파괴로 인해 우리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에 대해 창작했다. 안무자 장래훈을 비롯해 오숙례, 김진영, 이현정, 김경미, 강모세, 박상

용, 황동하가 출연해 초자연적인 모습을 느끼게 하는 백조의 모습을 춤언어로 보여준다.

정진희의 '틀Ⅲ'는 각자가 만들어 놓은 틀을 깨고 싶어 하지만 결국엔 그 틀을 벗어나 또 다른 틀 속에 갇히게 되는 우리들의 삶을 무용수의 몸짓으로 표현하려 한다. 안무를 맡은 정진희를 비롯해 김주령, 안주희, 김동숙, 이현주, 김수잔, 양해인이 출연, 내 생각의 소리를 들으려하지 않고 불편한 마음을 다독여 가며 또 다른 새로운 시간을 맞으려 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열정적인 몸짓으로 그려낸다.

일 시 | 8월 14일 목요일 오후 7:30

장 소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 균일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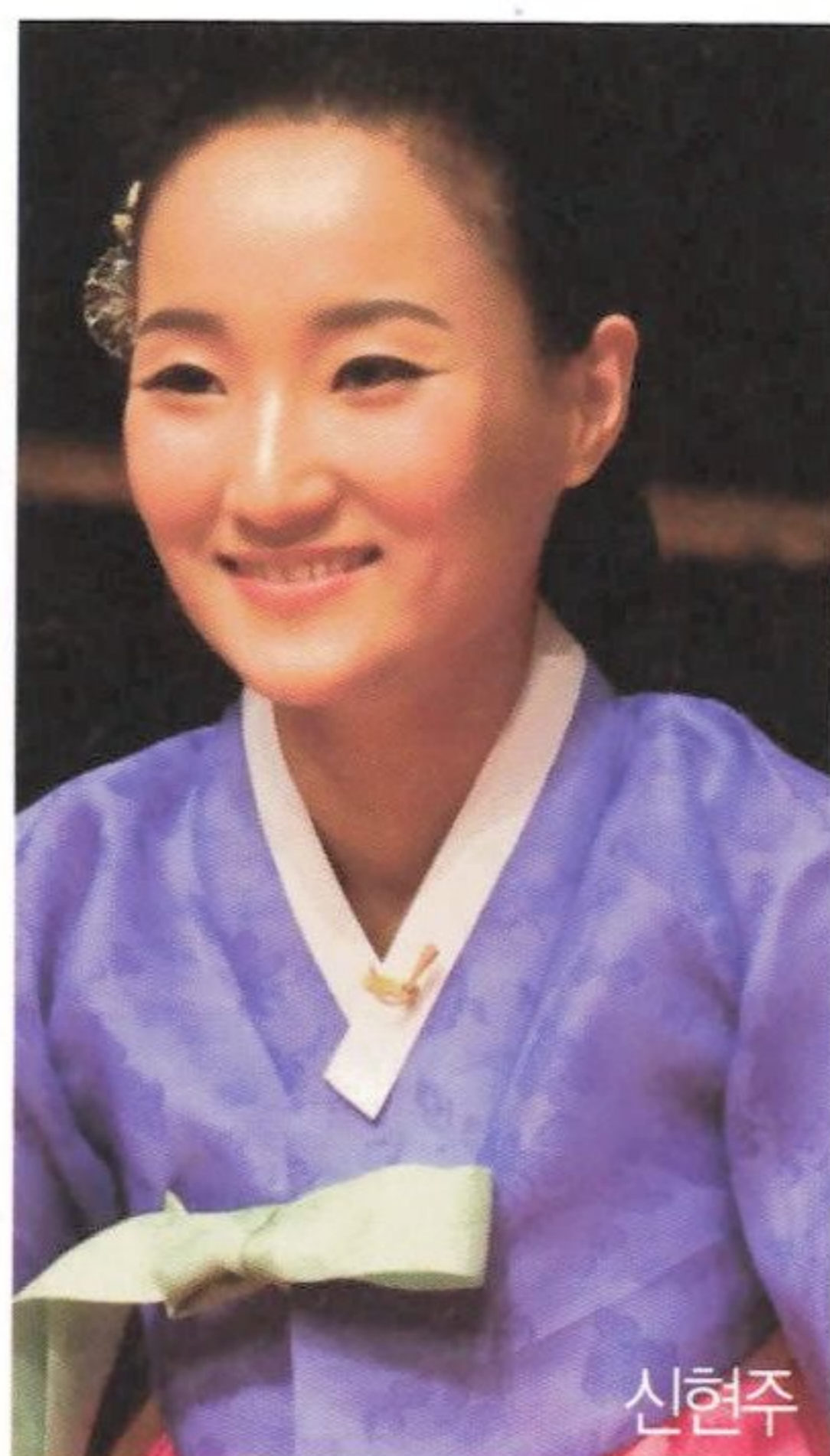
문 의 | 부산시립무용단 607-3131~2

Preview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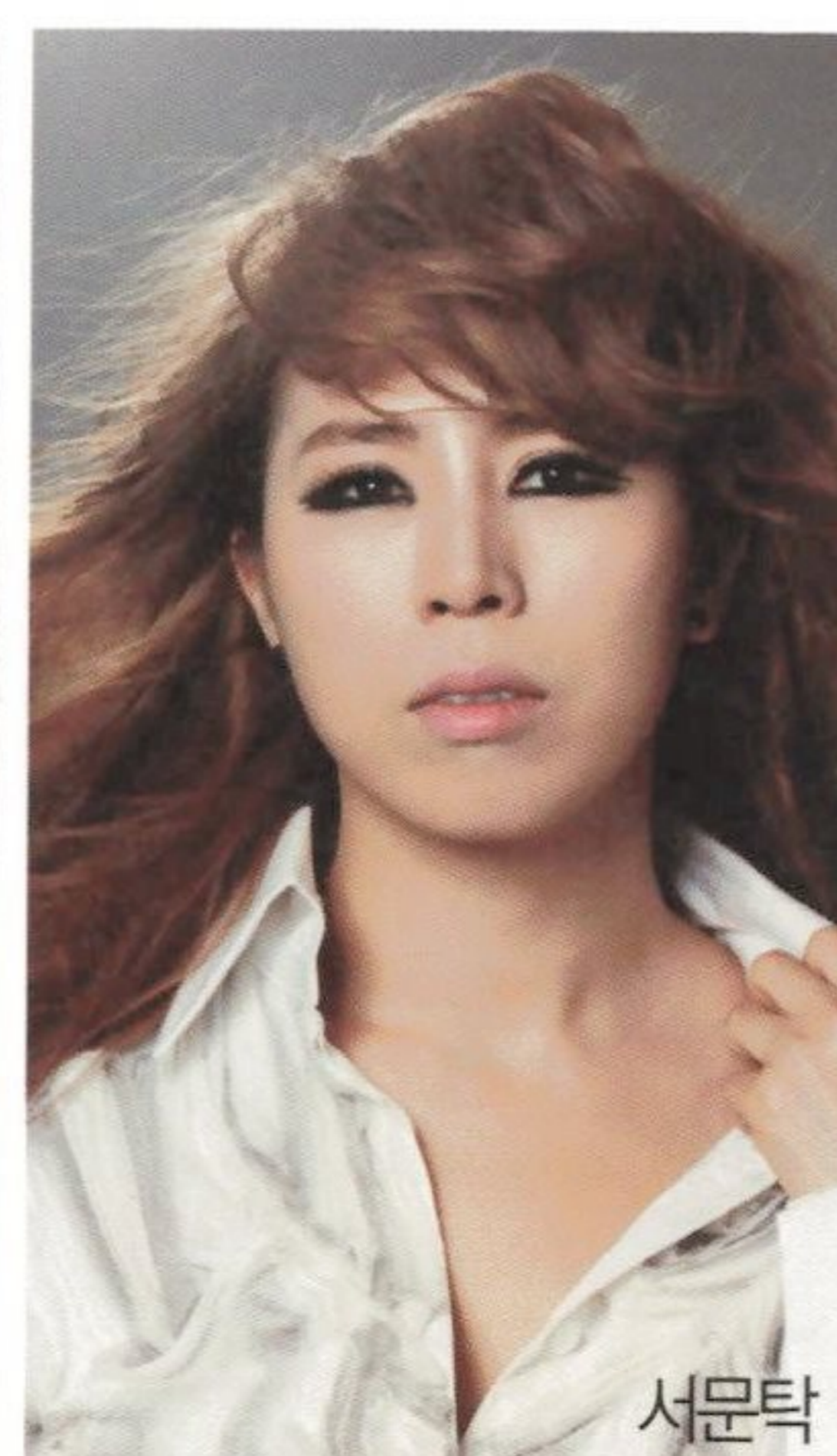
윤해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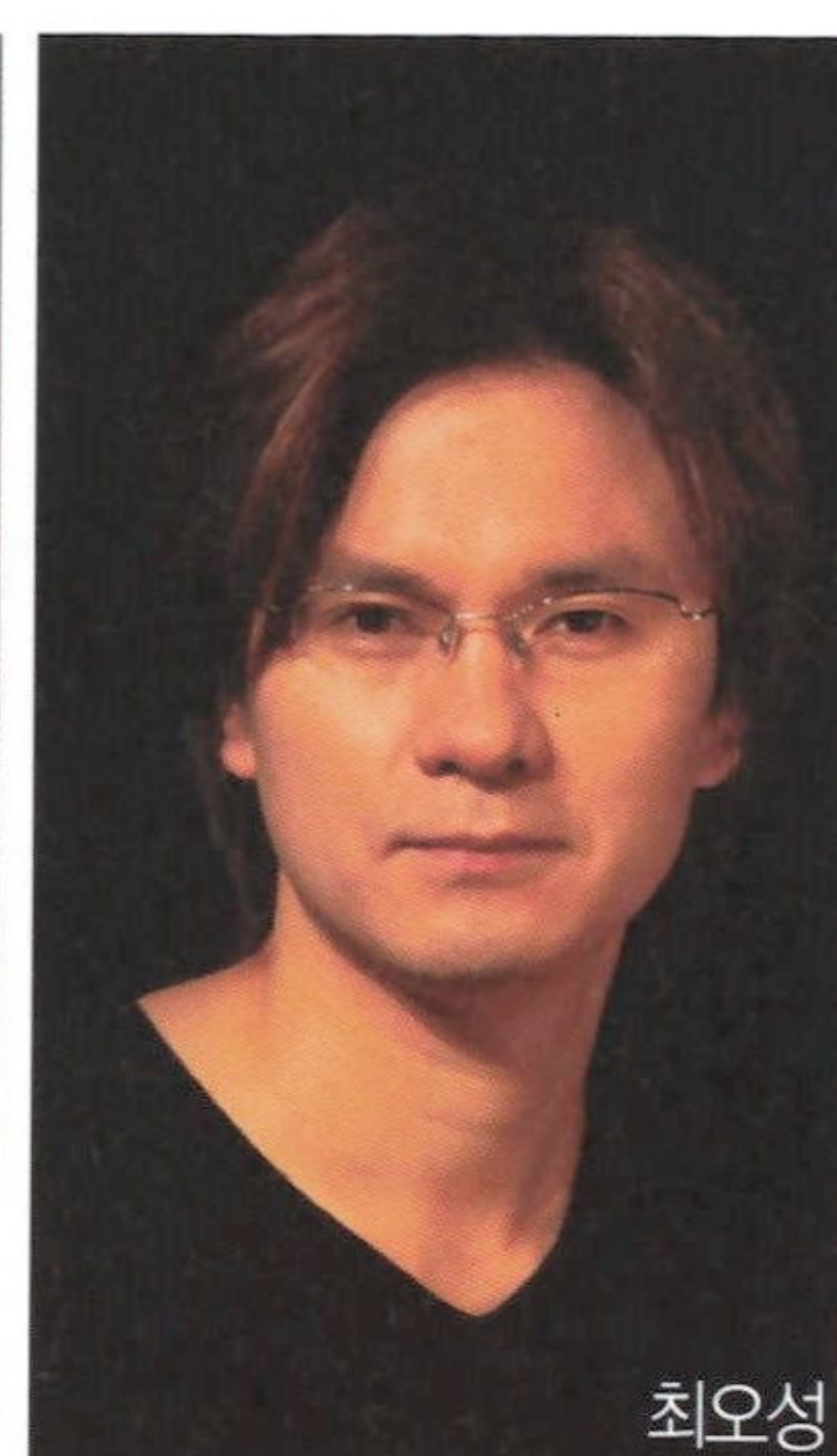
신현주



김영심



서문탁



최오성

한 여름 밤의 무더위를 날려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2014년 무대가 8월 2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매년 국악의 한계를 벗어나 전 장르와의 융합을 시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는 전 세대가 함께 호흡하는 오늘날의 생활음악, 세계음악을 표방하는 흥겨운 무대로 사랑받아왔다.

올해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김철호 지휘자의 지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해금 연주자 윤해승의 해금협연, 신현주, 김영심의 가야금병창, 폭발적인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수 서문탁이 국악관현악단과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첫 무대는 정동희 곡 국악관현악 '꿈의 바다'로 연다. 관현악 '꿈의 바다'는 부산바다의 역동성을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으로 나누어 표현한 곡으로 전통적 한국음악 어법에 토대를 두었지만 서양음악의 화성적, 대위적, 반음계주의적 어법을 과감하게 수용하고 있다. 이어지는 곡은 안현정의 해금협주곡 '해금 탱고를 위한 Dance of the Moonlight' 부산초연 무대. 해금의 다양한 기법을 살리면서 정열적이고 밝은 느낌을 담아낸 이 곡은 해금과 피아노로 작곡된 원곡을 국악관현악과 해금솔로를 위한 곡으로 편곡, 따뜻한 날의 서정과 춤의 정열을 느낄 수 있는 흥겨운 곡이다. 협연자 윤해승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이수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부산해금·아쟁연주단 해아연 단원으로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탱고의 열기를 이어갈 세 번째 무대 '가야금병창을 위한 국악관현악'에서는 국립부산국악원 단원 신현주와 김영심의 협연으로 '고고천변(편곡/박범훈)' '꽃타령' '풍년놀이(편곡/백규진)'를 들려준다. 가야금 병창은 가야금은 가야금대로, 노래는 노래

대로 잘해야 되는 매우 어렵고 예술성이 뛰어난 음악이다.

한국적인 노래와 연주에 이어 대중가수 서문탁과 함께하는 특별 무대가 마련된다. 국악관현악, 드럼과 베이스기타와 서문탁의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사랑, 결코 시들지 않는' '사슬' '사미인곡' 등 서문탁의 히트곡들을 들려준다.

마지막 무대는 이경섭 곡 모듬북 협주곡 '타'로 장식한다. '타'는 우리음악의 멋과 맛을 유감없이 표현한 곡으로 타악기의 강렬한 비트와 관현악의 섬세한 선율이 어울리는 여러북을 위한 협주곡이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최오성과 부산예술단(북/김태현, 박승빈, 황진삼, 박성규), 드러머 윤혁성이 신명나는 무대를 선사한다.

일 시 | 8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장 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A석 20,000원, B석 1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3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음악감독 금난새와 함께 하는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



음악감독 금난새



피아노 유영욱



피아노 에브게니 이조토프



트럼펫 드미트리 로카렌코프

부산시민들의 클래식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문화회관에서 2014년 8월, 감성을 자극하는 시원한 여름 음악축제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의 서막을 연다.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을 부산을 대표하는 음악축제로 만들기 위해 부산시민들과 친숙한 지휘자 금난새가 음악감독을 맡아 4일간 시민들의 눈과 귀가 즐거운 아름다운 실내악의 향연을 펼친다.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 첫 무대는 부산을 대표하는 실내악팀인 부산신포니에타를 비롯해 1997년 서울국제음악제에서 데뷔 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라시안 앙상블, 유라시안 필하모닉 소속 앙상블팀 Camerata BS, Plowman Chamber Music에서 우승하며 세계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엠피온콰르텟 등 최고의 실내악팀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교수이자 신라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에브게니 이조토프, '한국의 베토벤' 유영욱, 러시아 출신의 트럼펫 연주자 드미트리 로카렌코프,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단원 클라리네티스트 백양지 등 실력과 솔리스트, 첼리스트 이일세, 바이올리니스트 박진희, 비올리스트 박주연 등 부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연주자들로 결성된 부산챔버필하모닉 등 국내외 스타급 연주자들이 참가, 특별한 실내악의 향연을 펼친다.

음악감독을 맡은 지휘자 금난새는 창의력 넘치는 아이디어와 재미있는 해설로 클래식 음악이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늘 청중과 함께 호흡하는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 온 클래식 음악계의 스타 지휘자다. 지난 7월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선보인 오페라 여행 '라 트라비아타', 8월 '클래식은 내친구'의 매진을 통해 지휘자 금난새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연주자들은 4일간 네가지 빛깔의 음악으로 여름내 지친 부산시민들의 감성을 적셔준다.

첫날 28일은 엠피온콰르텟과 유라시안 앙상블이 연주한다.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을 통해 첫 부산연주회를 갖는 엠피온콰르텟은 바이올리니스트 Katherine Hyun, David Southorn, 비올리스트 Wei Yang Andy Lin, 첼리스트 Mihai Marica이 2009년 결성한 단체로, Plowman Chamber Music 과 Hugo Kauder String Quartet competition에서 우승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엠피온콰르텟이 그리그 현악 4중주, 볼프 이탈리아 세레나데를, 엠피온콰르텟과 유라시안 앙상블이 멘델스존 현악 8중주를 들려준다.

둘쨋날인 29일에는 에브게니 이조토프와 엠피온콰르텟, 백양지, 부산신포니에타가 슈만 피아노 5중주, 베버 클라리넷 협주곡, 브리튼 심플심포니로 또

Preview



클라리넷 백양지



엠펙온 콰르텟



부산신포니에타

다른 빛깔의 다른 무대를 연다. 전체 무대를 이끌어갈 부산신포니에타(리더/김영희)는 1986년 창단된 부산을 대표하는 실내악단으로 올해 창단 28주년을 맞이했다. 맑고 풍부한 음색과 뛰어난 앙상블로 긴밀한 입체감을 이루며, 실내악의 깊은 내면세계를 추구해온 부산신포니에타는 그동안 120여 회의 연주를 통하여 국내·외 정상급 지휘자와 독주자를 초청하여 바로크시대부터 현대 음악까지의 다양한 레퍼토리로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부산신포니에타와 협연할 백양지는 부산예고 졸업 후 독일 자브뤼켄 국립음악대학에 입학, 전문연주자과정, 최고연주자과정을 최우수성적으로 졸업했다. 자르로르 룩스 오케스트라, 홈부르크 챔버, 룩셈부르크 챔버의 수석, 독일 오스나부뤼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을 역임한 백양지는 Internationales Oleg Kagan Musikfest Kreuth, Tegernseer Tal, Telavi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Domleschger chamber music festival, Swiss 등의 초청연주를 통해 세계무대에 실력을 알렸다. 현재는 국내에서 현대음악앙상블 21AND 멤버,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30일에는 엠펙온콰르텟의 드볼작 현악4중주 '아메리카', 엠펙온콰르텟 단원인 Katherine Hyun과 Camerata BS가 들려주는 비발디 사계 중 '여름', 엘가 '서주와 알레그로'가 연주된다.

마지막 날인 31일은 '러시아 음악의 날'로 아렌스키와 쇼스타코비치, 차이코프스키의 명곡을 '부산 챔버 필하모닉'의 연주, 유영욱, 드미트리 로카렌코프의 협연으로 선사한다. '한국의 베토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유영욱은 10세 때 자신의 작품 발표회를 가질 정도로 작곡에도 놀라운 재능을 보이며 어릴 적부터 국내언론의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예원학교 재학 중 도미, 줄리어드 예비학교에 입학한 유영욱은 스페인 산탄데르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만장일치로 대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 후 독일 본 국제 베토벤 피아노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베토벤이 피아노를 친다면 유영욱처럼 연주했을 것이다"라는 심사위원의 평가 '베토벤의 환생'이란 현지언론의 리뷰는 세계가 주목할 만한 새로운 피아니스트로서의 유영욱을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유영욱은 베토벤 콩쿠르 우승

이후 해외 투어에 집중, 뉴욕 국제 키보드 페스티벌, 독일 베토벤 페스티벌 등 해외 우수 페스티벌에서의 초청 리사이틀을 포함, 미국, 유럽, 아시아는 물론 이집트, 레바논 등 세계 각국으로 진출, 300여 회에 달하는 해외리사이틀 투어를 통해 관객들과 현지 언론들의 찬사를 받았다. 유영욱은 현재 연세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다.

1997년 모스크바 국제 트럼펫 콩쿠르 3위에 입상한 러시아 출신의 트럼펫 연주자 드미트리 로카렌코프는 그네신스 음악대학 졸업 후, 모스크바 주립콘서트바토리에서 볼쇼이 극장 수석, 말리주립오케스트라 수석, 모스크바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으로 활동한 바 있는 드미트리 로카렌코프는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트럼펫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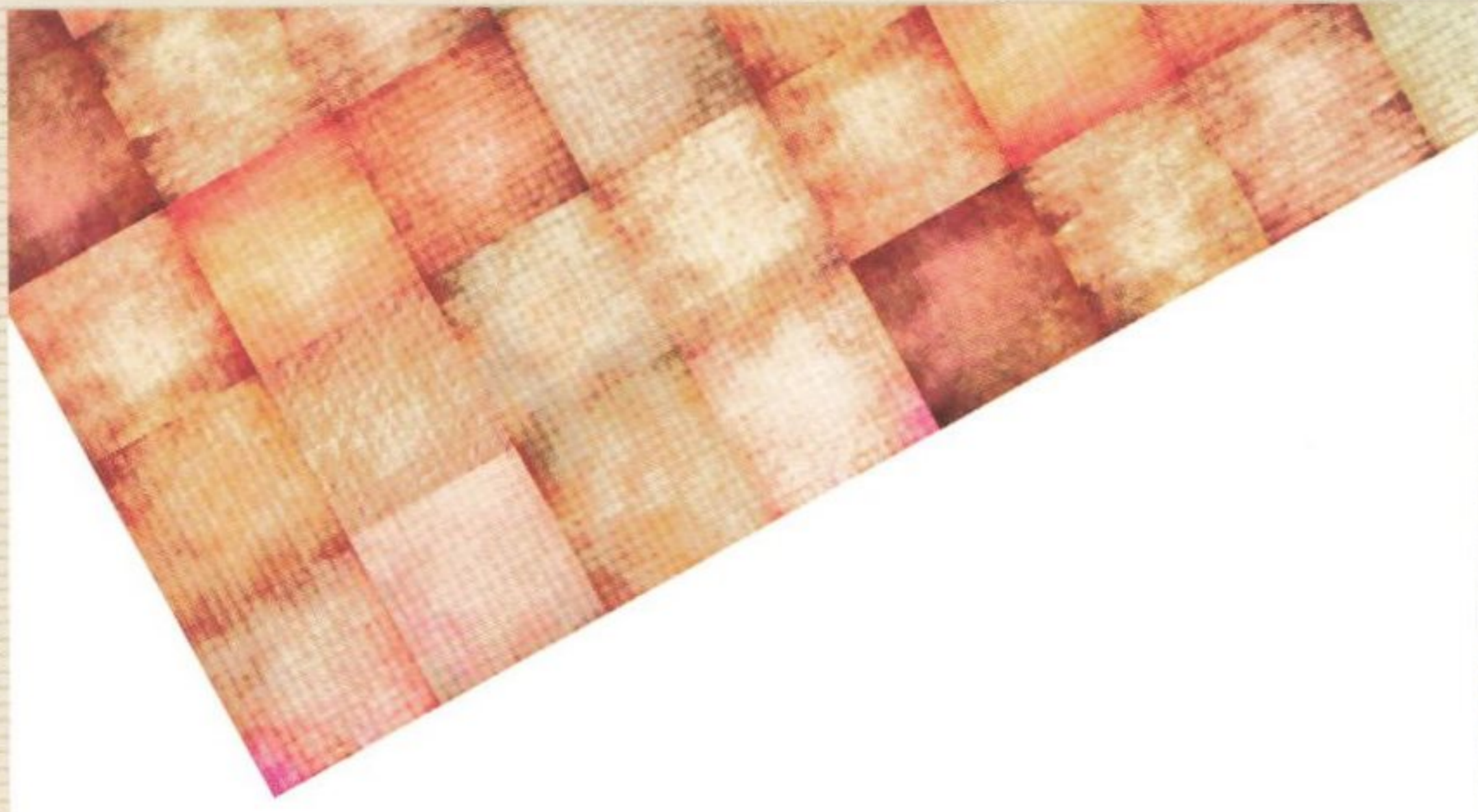
일 시 | 8월 28일-31일 목-금요일 오후 7:30,
토-일요일 오후 3:00

장 소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 R석 20,000원, S석 1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7



소규모 영화제들을 활성화 하자

영화감독 김희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화제는 부산국제영화제일 것이다. 그리고 그 영화제는 부산에서 열린다. 부산 시민들은 이 점을 자랑스러워 하지만 타지에서의 부러움과는 달리 부산시민들은 부산국제영화제로 인한 문화적 파생 효과를 그리 많이 누리게 되었다고 하긴 어려워 보인다.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에 일어나는 다양한 이벤트를 다른 지역 영화애호가들 보다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 부산시민들이 일상 중에 누리는 부산국제영화제의 혜택은 그리 많지 않다. 물론 영화의 전당을 통해 상시적으로 예술 영화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긴 했지만 이 역시 시도 해운대라고 하는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보편적 기회로 여기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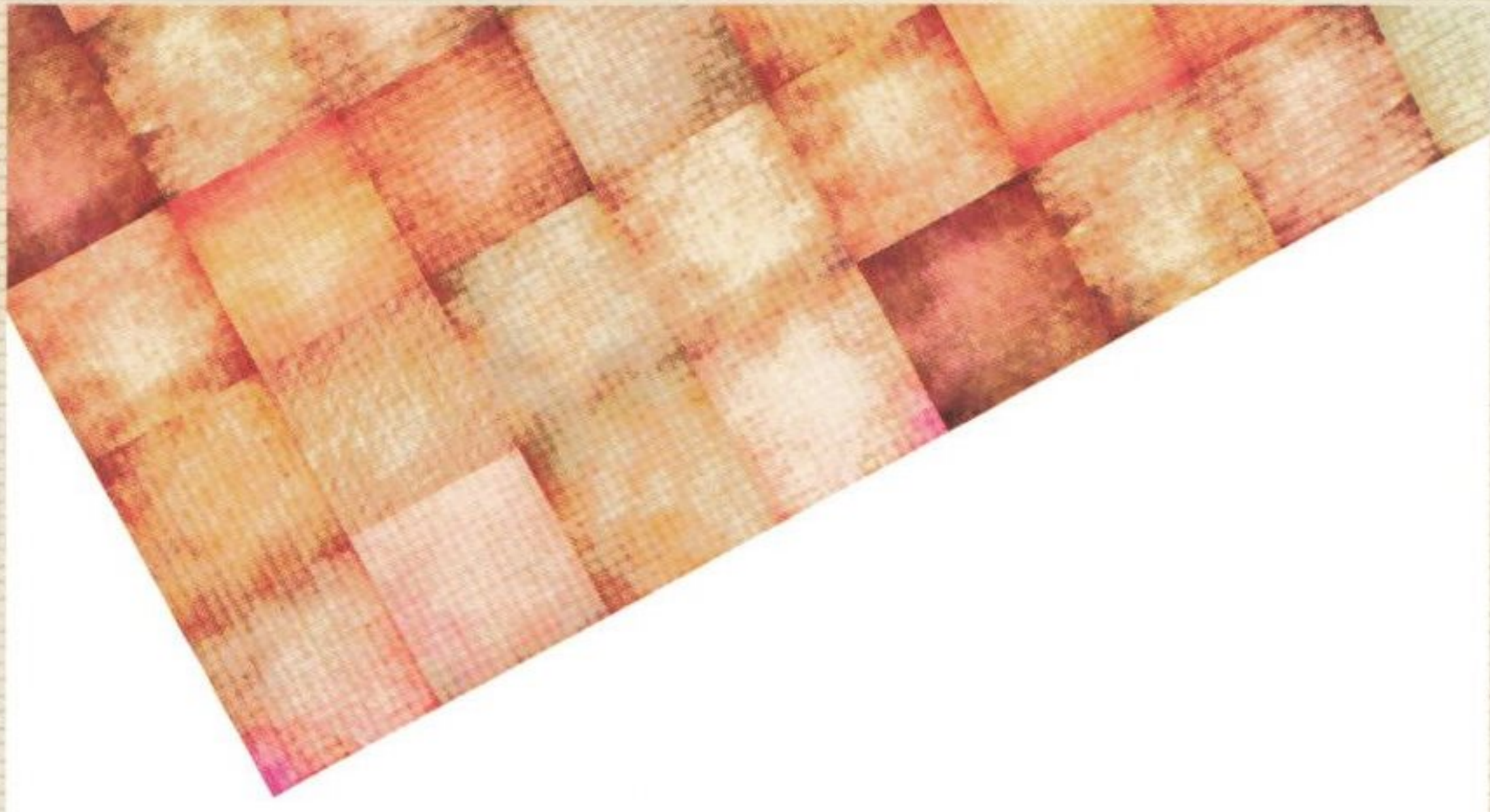


부산에는 부산시민들이 일상 중에 즐거운 시간을 가족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영화제가 부족하다. 사진은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지역 영화제 중 나름 특색이 있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제들이 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무주산골영화제, 정동진영화제 등이 그렇다. 모두 자연과 함께 할 수 있고,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영화제로 영화 외의 문화적 콘텐츠도 잘 갖춰진 영화제들이다. 단지 영화를 관람하거나 스타 배우를 만나기 위한 것이 아닌 즐기기 위한 영화제이고, 나눔과 공유가 함께하는 문화 이벤트이다. 이들 영화제처럼 부산에서도 거대한 이벤트로서의 영화제가 아닌 작은 소규모의 영화제들이 필요하다. 부산시민들이 일상 중에 즐거운 시간을 가족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영화제가 부족한 것이다.

부산에는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와 평화영화제가 이런 영화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하지만 두 영화제 모두 예산의 문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에 역부족이다. 부산의 자연과 환경을 살린 접근도 제대로 시도해내지 못하고 있다. 가족들이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여건도 그리 좋지 않다. 영화제는 시민들이 함께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것이어야 한다는 이상적인 가치도 아직 실현하기에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다행히 부산국제영화제를 제외하고 이런 소규모의 영화제들이 준비되어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큰 영화제와 작은 영화제의 상호 소통과 협조가 자연스러워지면 부산시민들이 누릴 문화적 혜택은 크게 늘어날 것이다.

부산국제영화제가 관객들을 위한 인문학적 프로그램들을 영화제 기간 중에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영화제 기간에 한정된 프로그램은 많은 시민들의 다양한 방식에서의 접근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좀 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소규모 영화제 뿐만 아니라 미니 영화제 또는 미니 영화 상영회 등을 활성화하고 지원해야 한다. 영화는 다양한 관점과 관심에서 관객들의 동호 모임이 구성된다. 이들이 동네 골목에서, 카페에서, 작은 도서관에서, 다양한 소규모 문화공간에서 미니 영화 감상회를 하고, 감독과 배우, 평론가들과 만나고, 토론회를 만들고, 문화 프로그램을 창의적으로 개발하여 기획자와 참여자들이 함께 꾸며나가는 방식으로 소규모 영화제 또는 미니 영화제를 개최하도록 돕는 것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영화제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다양한 장소, 다양한 일정으로 개최되고 지속된다면 부산시민들은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이루어온 영화도시 부산의 가치와 의미를 일상 속에 간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영화라는 예술매체가 가지는 다양한 인문학적 가치를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영화를 통해 일상이 즐겁고 행복한 부산을 소규모 영화제를 활성화하여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13회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음악평론가 박진홍

지난 7월 3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하 청교)의 특별연주회로 청교 단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7명의 젊은 연주자들의 협연 무대가 있었다. 이날 지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이자 청교의 수석 지휘자인 이동신의 지휘로 이루어졌다. 평소 함께 호흡을 맞추던 동료들과의 협연 무대였기 때문에 더욱 조화로운 연주가 될 수 있었던 이날 연주에서는 앞으로 부산 음악계를 이끌어갈 젊은 연주자들의 풋풋함과 실력을 함께 맞볼 수 있었다.

첫 무대에서는 부산대 4학년에 재학 중인 조성현의 연주로 모차르트의 호른 협주곡 4번 1악장을 감상할 수 있었다. 조성현은 호른 특유의 맑고 부드러운 음색으



로 모차르트의 아름다운 선율을 잘 살려 내었다. 또한 소리 하나하나를 섬세하고 충실하게 다루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어진 무대는 경성대 2학년 조우태의 무대로 브루흐의 스코틀랜드 환상곡 4악장이 연주되었다. 자신감 있고 여유로운 모습이 음악 속에 그대로 묻어났으며 정확한 음정과 리듬이 바탕이 되어 기교적인 부분과 선율적인 부분의 특징이 잘 표현되었다.

경성대 3학년 허근영은 하이든의 오보에 협주곡 다장조 1악장을 연주했는데, 다소 긴장한 듯 하였지만 본 연주에서는 소리의 흔들림 없이 차분한 연주를 보여 주었다. 오보에의 목가적인 음색을 잘 표현하였으며 안정감과 더불어 다이내믹이 잘 표현된 연주였다. 네 번째로는 부산예고 2학년에 재학 중인 정주희가 피에르네의 하프 협주곡 작품 39번의 1악장을 연주하였다. 연주 전의 긴장한 모습과는 달리 연주가 시작되자 곧 자신감 있는 연주를 보여 주었는데, 음 하나하나에 충실하며 강약과 길고 짧음의 대비를 효과적으로 잘 표현하여 훌륭한 연주를 들려 주었다.

이어서 동아대 2학년 박미리의 연주로 다비드의 트롬본 소협주곡 내림마장조의 1악장이 연주되었다. 쉬운 악기가 없겠지만 특히 독주에서 참 어려운 악기가 트롬본이다. 연주자는 자신감 있고 과감한 연주를 보여 주었는데 필자는 많은 발전이 있을 연주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섯 번째 연주는 부산예고 3학년 박소라의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 1번 3악장이었다. 부드러운 활의 움직임과 민첩하고 정확한 포지션 이동이 인상적이었으며, 이로 인해 명확함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연주였다.

마지막 무대는 인제대 3학년 이주형의 플루트 연주로 라이네케의 협주곡 라장조 1악장을 감상했다. 당찬 자신감과 풍부한 호흡으로 좋은 음색과 역동적인 연주를 선보였다. 기교적인 연주에서도 전반적으로 여유가 있으며 감정이 풍부한 연주를 보여주어 마지막 주자의 역할을 훌륭히 해 냈다. 고전과 낭만 시대에 걸친 7곡의 협연에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협연자들과의 조우도 대단히 좋았으며 흠잡을 곳 없는 훌륭한 연주를 보여 주었다. 톡톡 튀는 개성 있는 젊은 연주자들을 음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리더십으로 이끌고 있는 이동신 지휘자의 역량 역시 돋보이는 무대였다.

이날 연주는 비록 학생들의 협연 무대로 구성되었지만 대단히 훌륭한 연주회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인들 중심으로 들성들성 자리를 채운 객석의 무대가 아쉬움으로 남는다. 연주자는 객석을 가득 채운 관객들을 볼 때 긴장감을 가지고 더 열정적인 연주를 보여 줄 수 있다. 어느 곳이든 응원의 목적이란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대학을 졸업하고 연륜이 쌓여야 또는 유학을 다녀와야 좋은 연주를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 좋은 스승과 뿌리 내리고 있는 음악 문화로 인해 지역에서도 학생들이건 기성 연주자건 좋은 연주를 보여주는 무대들이 늘어나고 있다. 관객들은 앞으로 우리 부산의 음악 문화를 이끌어 갈 젊은 연주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젊은 연주자들 역시 스스로 어리고 부족하다는 생각보다는 스스로의 연주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무대 위에서 보여 줄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다듬어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
가이드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4
웰빙콘서트시리즈 “11시에 만나요!”
오페라 하이라이트 III - 코지 판 투테

일 시 | 8월 1일 금요일 오전 11: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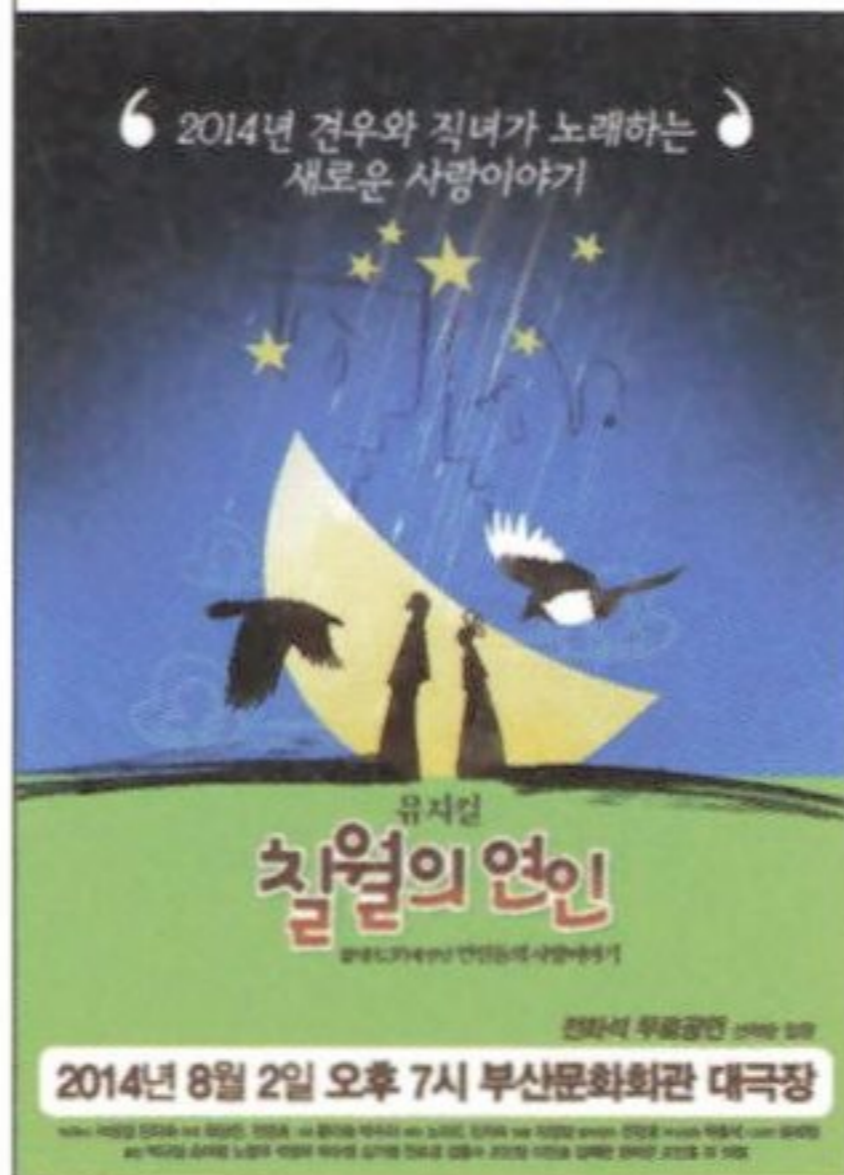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전하는 한낮의 음악선물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4 웰빙콘서트 시리즈 “11시에 만나요!” 오페라 하이라이트 세번째 무대 ‘코지 판 투테’. 이동신의 지휘, 해설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는 오페라 전문연출가 유철우의 특화된 연출로 모차르트 오페라 ‘코지 판 투테’를 들려준다.

- 지휘, 해설/이동신 • 연출/유철우
- 소프라노/김현애, 신민원, 김혜영
- 테너/김기태 • 베이스/박상진, 양재원



극단 노마드 창작뮤지컬 '7월의 연인'

일 시 | 8월 2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이성섭 010-8854-6919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 등 그 근원도 불명확한 행사에 열광하는 젊은이들에게 한국식 사랑의 날과 그 의미, 가치를 일깨우기 위해 극단 노마드가 기획한 창작 뮤지컬 '7월의 연인'. 너무나 사랑하였으나 일을 게을리 하고 연애에 몰두하다 옥황상제에 의해 은하수 양 끝으로 각각 추방되어 1년에 한 번씩만 만날 수 있는 견우와 직녀 설화를 바탕으로 가벼운 사랑이 판치는 현 세태에 대해 전통적인 사랑의 지고지순을 일깨워준다.

- 작/이성섭, 진지숙(극단 노마드 대표)
- 연출/이성섭
- 작곡/전경호, 최상인
- 출연/박규남, 손아영, 노형우, 박정우, 허수명, 김가령, 천유경 등 21명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후쿠오카시립
후쿠오카 세이료고등학교 관현악부
釜山·福岡자매도시 청소년교류 공연

일 시 | 8월 4일 월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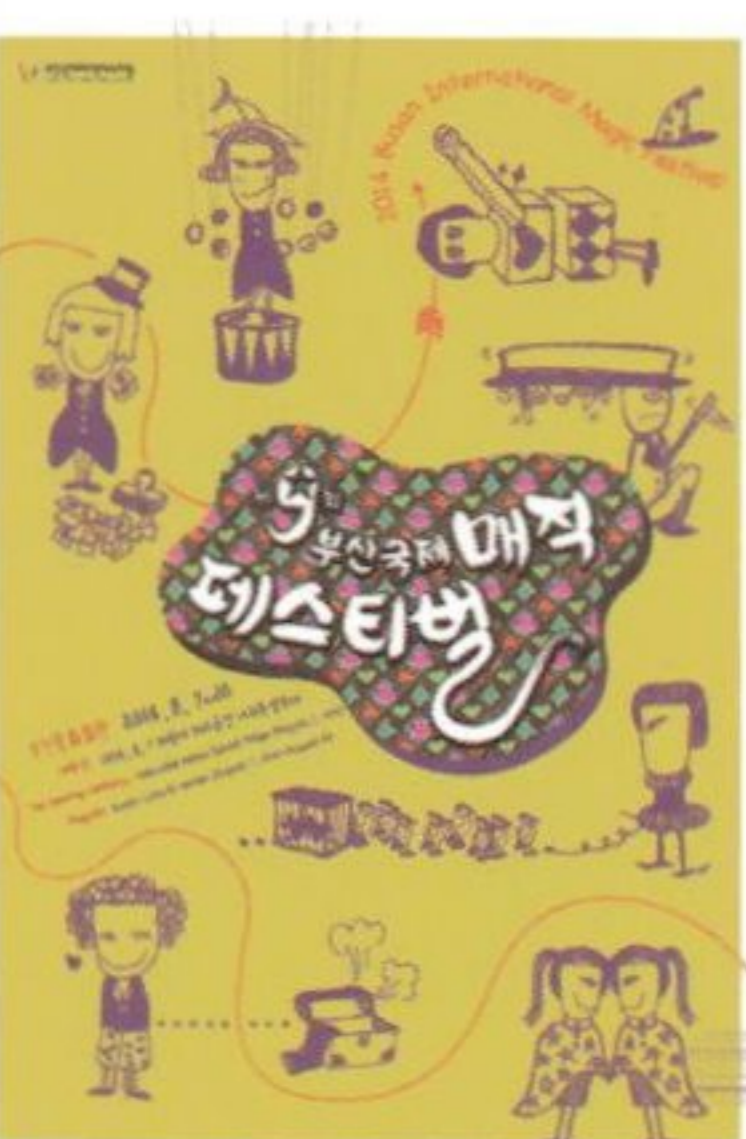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과 후쿠오카의 랜드마크 '아크로스후쿠오카'가 선보이는 자매도시 청소년교류 공연. 특히 이번 공연은 아크로스후쿠오카의 20주년을 기념해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과 후쿠오카시립 후쿠오카 세이료고등학교 관현악부의 만남으로, 양국가와 양도시간의 우호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문화교류의 장으로 기대가 높다.

- |프로그램|**
무소르그스키/전람회의 그림 중 발취
라흐마니노프/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가단조
작품 43 24개의 변주곡
브람스/교향곡 제1번 다단조 작품 68 1악장, 4악장
• 지휘/이동신, 마쓰다 가즈히로
• 피아노/이주은(창원대학교 교수)

2014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일 시 | 8월 7일-10일 목-일요일
대극장, 중극장, 소극장, 중전시설
(개막식은 해운대 해수욕장 야외 특설무대)
입장료 | 국제미술대회(본선&결선) R석 2만원
스페셜쇼, 월드클로스업쇼, 더핸즈 기획공연
R석 2만 5천원, S석 2만원
나이트갈라쇼 VIP석 4만원, R석 3만원
문 의 |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조직위원회
626-7002 www.hibimf.org



16개국 100여 명의 세계 최고 수준의 마술사들이 펼치는 2014년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마술사 최현우의 사회로 진행되는 세계최고, 최대 규모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마이클 아머, 데이 타임, 옴니버스 스페셜 쇼 등 3일간 신기한 마술의 세계로 안내하는 특별한 스페셜 쇼, 국내 최고의 마술사팀 '더핸즈'의 특별무대, 세계 정상급 마술사들을 배출하는 아시아 최고의 국제 미술대회 '부산국제미술대회', 세계적인 수준의 매지션들이 최고의 공연을 선보이는 나이트매직 갈라쇼, 최초의 북한 마술도구전 '평양요술단특별전' 등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진다.

- |주요일정|**
• **스페셜 쇼**
8월 8일(금) 15:00 중극장 마이클 아머 스페셜 쇼
미국출신의 마술계의 거장으로써 이미 여러 가지 영상과 공연으로써 세계인들에게 실력과 기술로써 정평이 나 있는 마술사 마이클 아머의 특별무대.
8월 9일(토) 15:00 중극장 데이타임 스페셜 쇼
레벤트, 양희준, 송다민, 최철승, 김찬엽, 박설하 등 6명의 마술사가 펼치는 갈라쇼.
8월 10일(일) 15:00 옴니버스 스페셜 쇼
초특급 해외 게스트들과 개성 넘치는 국내 마술사들이 펼치는 옴니버스 쇼.
• **더 핸즈 기획공연**
8월 8일(금), 8월 10일(일) 오후 5:00 중극장
국내 최고의 매지션 홍성훈, 깔끔하고 세련된 매지션 임흥진, 아시아의 떠오르는 매지션 정동근이 펼치는 더 핸즈 기획공연.
• **국제미술대회**
8월 8일(금)-8월 10일(일) 오후 1:00 대극장
세계로 나가기 위한 최고의 등용문으로 각국을 대표하는 실력 있는 젊은 마술사들이 함께 한다.
• **나이트 매직 갈라쇼**
8월 8일(금)-8월 10일(일) 오후 7:30 대극장
세계 최고 수준의 독일 마술사 '토파즈', 미국의 마술 거장 '마이클 아머', 우크라이나의 발가락 액트 주인공 '블라드 크리보노고프' 등 초특급 해외 게스트들과 마술사 최현우, 듀오매직(유현민, 박은경), 박설하, 양희준, 최철승 등의 유쾌한 마술세계.

부산시립합창단의 특별연주회
**심수봉과 함께하는
써머판타지 콘서트**

일 시 | 8월 12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 607-3141~2

- 시원한 여름의 낭만을 선사하는 부산시립합창단의 여름 음악선물 '심수봉과 함께하는 써머판타지 콘서트' 2014년 무대. 올해는 국민적 사랑을 받고 새롭게 재조명되는 국내외 가요와 팝음악들을 부산시립합창단의 색깔에 맞게 편곡한 다양한 레퍼토리와 국민가수 심수봉씨의 특별 출연으로 진정한 감동과 위로의 시간을 선사한다.
|프로그램|
한국 가요합창...그 매력적 아름다움에 대하여~
여러분(Arr.문지은), 한바탕 웃음으로(Arr.최석태), 서른 즈음에(Arr. 이은진)
POP...Legendary Theme/Green, green grass a home, Top of the world(Arr. 최석태)
한국 가요합창...영혼을 울리다/찌레꽃(Arr. 김태호), 네 꿈을 펼쳐라(Arr. 박주희), 아 옛날이여(Arr. 최석태) 등 수곡
• 지휘/오세종(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 특별출연/심수봉
• 객원연주/홍광현(기타), 김정태(기타), 김진훈(드럼)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일 시 | 8월 13일 수요일 오후 4:0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8

부산지역 청소년 음악회의 효시로 꾸준히 사랑받아 온 지휘자 금난새와 함께 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2014년 무대.

올해는 금난새가 이끄는 유라시안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청소년들에게 쉽고 재미있는 해설과 함께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클래식 명곡들을 들려준다. 이번 무대를 위해 바이올린 옥선재, 색소폰 송동건, 클라리넷 백양지가 협연자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프로그램

베토벤/교향곡 제5번 다단조 작품 67 '운명' 1악장
 차이코프스키/바이올린협주곡 라장조 작품 35 3악장
 하이든/교향곡 제94번 '놀람' 2악장
 피아졸라/리베르 탱고
 엔니오모리코네/영화 '미션' 주제곡 가브리엘 오보에
 멘델스존/교향곡 제4번 가장조 '이탈리아' 3악장
 베버/클라리넷 콘체르티노 내림마장조 작품 26 등

- 지휘, 해설/금난새
- 연주/유라시안필하모닉오케스트라
- 협연/옥선재(바이올린), 송동건(색소폰), 백양지(클라리넷)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우리시대의 영원한 테너 엄정행과 오지탐험가 도용복이 함께 하는 청소년해설음악회

일 시 | 8월 14일 목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선착순입장)
 문 의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61~2

어렵게만 느끼는 클래식음악에 대한 친근감을 심어주기 위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여름방학 음악선물 '우리 시대의 영원한 테너 엄정행과 오지탐험가 도용복이 함께 하는 청소년해설음악회'. 중,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 나오는 음악을 중심으로 선곡한 이번 무대는 청소년을 위한 맞춤 해설, 춤, 색소폰앙상블 연주 등의 다양한 무대로 관객들을 만난다. 테너 엄정행과 테너 엄정행음악연구소 소속 아마추

어합창단인 연우합창단, 정홍기가 이끄는 부산색소폰앙상블이 특별출연한다.

프로그램

정애련/동개동개 동개, 여우야 여우야, 윗놀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윤용하/보리밭
 카푸하/O sole mio
 베토벤/신의 영광
 최성환/아리랑 환상곡
 할아버지의 11개월(Grandpapa's Eleven Month)
 김희조/신고산타령, 경북궁타령 등 수곡

- 지휘/전상철(수석지휘자)
- 해설/도용복
- 반주/이영옥
- 지도/노금선(안무), 김양재(합창)
- 특별출연/테너 엄정행, 연우합창단(지휘/엄정행), 부산색소폰앙상블(대표 정홍기)



부산시립무용단

2014 한여름 밤의 춤 작품전

일 시 | 8월 14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5천원
 문 의 | 부산시립무용단 607-3131~2

부산의 여름을 빛내는 열정적인 창작 춤 무대로 오랜 전통을 이어온 부산시립무용단 한여름밤의 춤 작품전. 올해는 윤은하의 '중독', 장래훈의 '화살이 빛나간 백조II', 정진희의 '틀III' 등의 우수한 세 작품을 선별하여, 자신만의 춤 언어와 몸짓을 통하여 직접 빚어낸 참신한 작품세계를 다시 한번 선보인다.

작품

중독(안무, 출연/윤은하)
 화살이 빛나간 백조II(안무/장래훈, 출연/오숙례, 김진영, 이현정, 김경미, 강모세, 박상용, 황동하, 장래훈)
 틀III(안무/정진희, 출연/김주령, 안주희, 김동숙, 이현주, 김수잔, 양해인, 정진희)

- 예술감독/홍경희



부산의·치대 관현악단 제42회 정기연주회

일 시 | 8월 15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의·치대 관현악단 010-3100-2483

1973년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실내악 합주단으로 출발한 부산의·치대 관현악단의 제42회 정기연주회.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50명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부산의·치대 관현악단은 그동안 연 1회 정기연주회와 환우들을 위한 연주회 등을 열었다.

프로그램

드볼작/슬라브무곡 작품46 제8번
 하이든/첼로협주곡 제1번 다장조
 드볼작/교향곡 제9번 작품 95 '신세계로부터'

- 지도교수/정성운(부산대학교 의·치대 관현악단 11기, 부산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
- 지휘/김상철
- 협연/이철민
- 악장/홍승민



브니엘 무용발표회

일 시 | 8월 17일 일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박주현 010-3575-2989

브니엘예고 재학생들의 창작열정과 땀이 배어있는 브니엘 무용발표회.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등 전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다.

프로그램

한국무용 '궁'
 현대무용 '얼음꽃(Repertory)'
 한국무용 '구름, 해를 품다'
 발레 'Who cares(후 케얼즈)'
 한국무용 '검은새'
 현대무용 'Dream factory(드림 팩토리)'
 발레 'La Esmeralda(라 에스메랄다)'
 한국무용 '삼고무'

- 한국무용 감독 및 지도/현임숙
- 현대무용 안무 및 지도/박주현
- 발레 재구성 및 지도/김다희

프로그램
가이드

아코르 청소년 오케스트라 제12회 정기연주회

일 시 | 8월 19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아코르 청소년 오케스트라
010-5767-2571, 010-8594-8966



2003년 창단 이래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소통하고 공감하며 나눔과 배려를 익히고 있는 아코르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제12회 정기연주회.

아코르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일본 기타큐슈, 중국 북경, 상해 등 해외 공연과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펼쳐왔다.

[프로그램]

- 모차르트/바이올린 협주곡 제4번
- 모차르트/교향곡 제36번 '린쯔'
- 랄로/스페인 교향곡 라단조
- 윌리엄스/영국민속노래 모음곡
- 지휘/정흥기
- 협연/박신영(사직여중3년, 바이올린), 임효진(문현여중2년, 바이올린)
- 지도/한행래, 박삿별, 김동숙, 정병태, 송성인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 내한공연

일 시 | 8월 19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문의 | (주)J.S 모던기획 010-5591-2280

1999년 한국인 임재식 단장이 스페인에서 창단한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의 내한연주회. 임재식 단장을 제외한 단원 모두가 스페인 사람인 밀레니엄합창단은 한국에는 스페인 노래를, 스페인에는 한국 노래를 전파하는 외국인 합창단으로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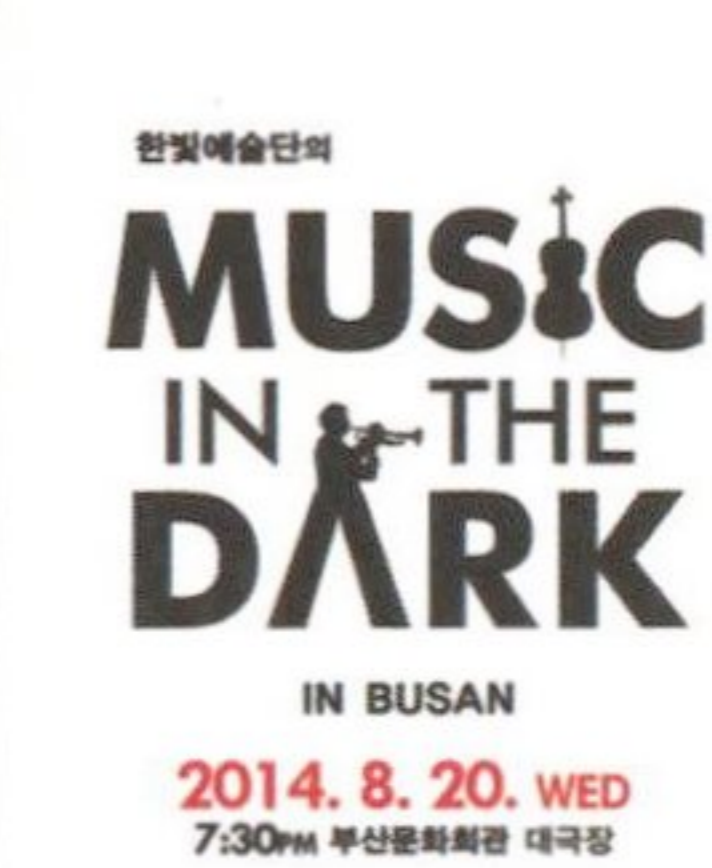
단원 모두 60년 역사를 자랑하는 스페인 국영 라디오 TV방송 합창단인 RTVE에서 선발되었으며 1999년 스페인 국립극장 Auditorio acional에서 스페인 노래와 보리밭, 밀양아리랑 등 한국 노래를 연주하면서 대중에게 첫 선을 보였다.

- 지휘/임재식
- 피아노/Alexandre Alcántara
- 타악기/Alfredo Anaya



한빛예술단의 Music in the Dark in Busan

일 시 | 8월 20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무료(지정석, 전화예매 필수)
문의 | 한빛예술단(서울) 010-9782-1191
베데스다합창단(부산) 010-8923-3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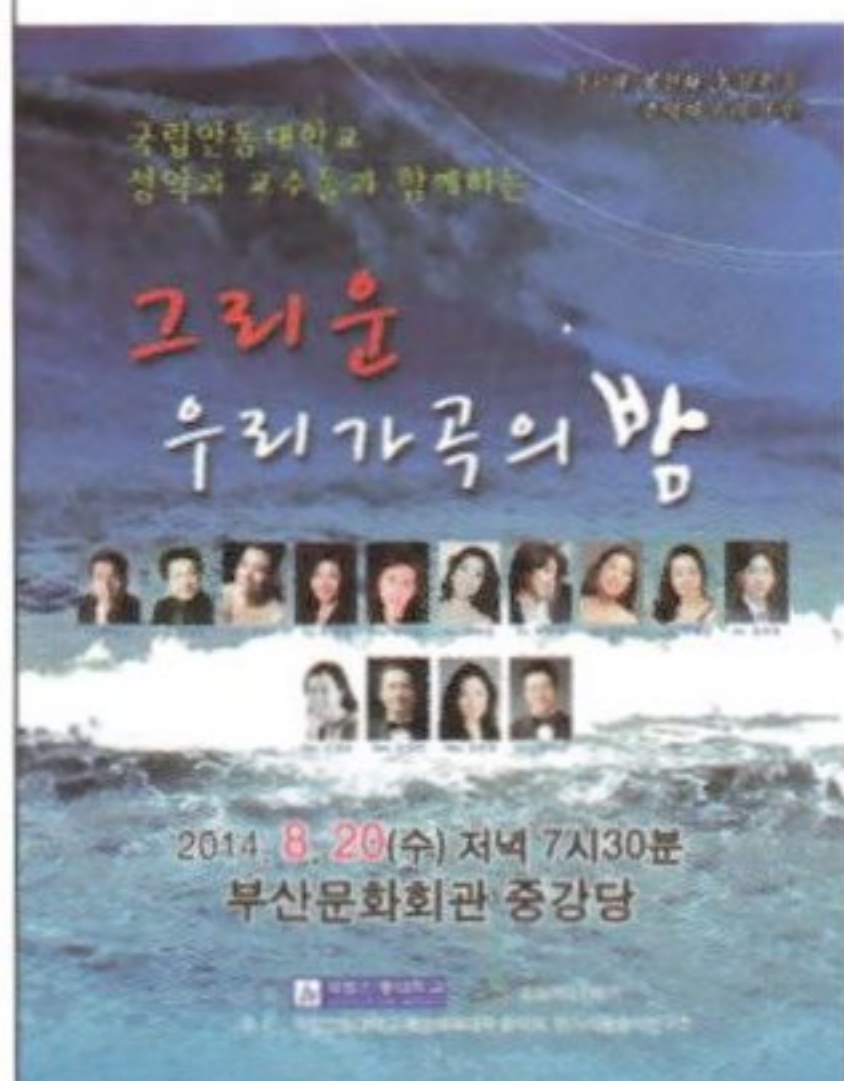


뛰어난 음악성을 가진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한빛예술단의 부산연주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던 일곱 번의 연주회를 통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온 한빛예술단은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장애를 극복, 어둠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청력과 집중력, 절대음감을 활용한 연주력으로 완성도 높은 공연을 선보여 왔다.

- 특별출연/부산베데스다합창단, 네오피하모닉오케스트라

국립안동대학교 성악과 교수들과 함께 하는 그리운 우리 가곡의 밤

일 시 | 8월 20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오페라21세기 010-4878-3079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감미로운 우리 가곡들로 꾸미는 국립안동대학교 성악과 교수들과 함께 하는 '그리운 우리 가곡의 밤'.

홍난파, 김성태, 김동진, 김규환, 신귀복, 윤이상, 김원호, 박판길, 이효섭, 최영섭, 김연준, 이수인, 조두남 등 우리 음악사에 큰 획을 그었던 작곡가들의 명곡들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 홍난파/옛동산에 올라
- 김동진/내마음
- 김성태/동심초
- 김규환/님이 오시는지
- 윤이상/고풍의상 등 수곡
- 출연/이광순, 손정희, 김현주, 이정아, 박찬경, 마혜선, 박재연, 이정신, 변경민, 김준동
- 피아노/김정희, 정광민, 장윤영, 정지교

제1160회 MBC목요음악회 무지카 비바의 해설이 있는 영화음악

일 시 | 8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의 | 무지카 비바 010-9782-1191

무지카 비바가 들려주는 제1160회 MBC목요음악회 '무지카 비바의 해설이 있는 영화음악'. 무지카 비바는 그동안 챔버오케스트라, 현악앙상블, 피아노트리오 등 여러 형태로 서울, 울산, 경남 등 여러 지역에서도 정기연주회외의 다양한 연주를 펼쳐왔다. 방향을 맞춘 청소년과 가족들을 위해 최고의 해설가이자 음악평론가 장일범의 해설로 영화에 나오는 클래식 음악을 들려준다.

장일범은 KBS클래식 FM '장일범의 가정음악' 진행자, 경희대 포스트모던 음악학과 겸임교수, 객석 편집자문위원, 총무아트홀 이사, 대구오페라재단 이사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일 시 | 8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A석 2만원, B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3

한여름 밤의 무더위를 흥겨운 국악선율로 씻어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올해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김철호 지휘자의 지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해금주자 윤해승의 해금협연, 신현주·김영심의 가야금병창, 폭발적인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수 서문탁이 국악관현악단과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프로그램]

- 정동희/국악관현악 '꿈의 바다'
- 안현정/해금협주곡 '해금 탕고를 위한 Dance of the Moonlight'(부산초연)
- 가야금병창을 위한 국악관현악 '고고천변(편곡/박범훈)' '꽃타령' '풍년놀이(편곡/백규진)'
- 가수 서문탁과 함께 하는 국악관현악(편곡/백규진)/사랑, 결코 시들지 않는, 사슬, 사미인곡 등
- 지휘/김철호(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 협연/윤해승(해금), 신현주·김영심(가야금병창), 서문탁(가수), 최오성(모듬북), 부산예술단, 윤혁성(드럼)
- 객원/유경훈(베이스 기타)

동아의대 DMC 제23회 정기연주회

일 시 | 8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동아의대 관현악단(DMC) 010-4878-3079

1990년 동아대학교 의대생들로 결성된 순수 아마추어 동아의대 관현악단(DMC)의 정기연주회. 동아의대 관현악단(DMC)은 음악으로 바쁜 학업의 어려움을 달래주며 오케스트라로 성장해 왔다. 이번 무대는 특별히 그동안의 전통적인 클래식 교향곡과 더불어 현대적인 경음악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우리 DMC만의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모차르트/오페라 미술피리 서곡
 모차르트/교향곡 제40번
 모차르트/교향곡 제25번
 영화음악/경음악 등 수곡



WINA Concert - 내 노래

일 시 | 8월 22일 금요일 오후 8:0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문화기획단 무대공감 010-4010-8406

최근 2집 앨범을 발매한 가수 위나의 앨범 발매기념 콘서트.

'MBC 위대한 탄생', 'Mnet 보이즈 오브 코리아' 등을 통하여 그 실력을 인정받은 위나와 새로운 실력파 밴드들이 들려주는 첫 번째 콘서트.

재즈, 팝, 블루스, 소울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섭렵하며 자신만의 색깔을 구축하고 있는 위나의 음악 인생이 집대성된 무대이다.

프로그램

꿈을 꾸다, Feeling good, It's Only a papermoon, 독, 모르겠니, Georgia on my mind, 부산, 이곳에서, 내 노래, 이젠 끝이라는 말, Mercy, Happy me



인제의대 관현악단 제33회 정기연주회

일 시 | 8월 23일 토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인제의대 관현악단 010-8730-2829



인제대학교 의과대학과 간호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인제의대 관현악단의 제33회 정기연주회. 힘든 수업 중에도 틈틈이 음악활동을 하면서 인술을 터득하고 있는 인제의대 관현악단 단원들이 우리 귀에 익은 명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글린카/루스란과 루드밀라 서곡
 생상/바이올린협주곡 제3번 나단조 작품61
 드볼작/교향곡 제9번 마단조 작품 95 '신세계로부터'
 • 지휘/정철희
 • 단장/김형서
 • 협연/민재정(바이올린)

김승현 귀국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8월 25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김승현 010-4064-0877

부산예술고등학교, 세종대학교, 보스톤 콘서바토리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 귀국한 김승현의 피아노 독주회.

김승현은 유학 중 Boston Chamber Competition, Music Mason Gross Chamber Competition, Boston Chamber 듀오 부문에서 수상한 바 있다.

One Summer Night with Claude Bolling

일 시 | 8월 28일 목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천원
 문 의 | PASSAZIO 010-2915-1324

청중과의 교감하는 토크와 이벤트가 있는 신개념 재즈콘서트 'Clazy Ensemble PASSAZIO'와 함께 하는 한여름밤 콘서트로 세계적인 프랑스 크로스 오버 음악가 클로드 볼링의 명곡들을 들려준다.

• 연주/변예슬(플루티스트), 최영민(피아니스트), 윤민우(콘트라베이스), 이성은(드럼), 유지훈(클라리넷)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

일 시 | 8월 28일-31일 목-금요일 오후 7:30, 토-일요일 오후 3:00 중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607-6057)



부산시민들의 클래식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4년 부산문화회관에서 첫선을 보이는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

부산을 대표하는 음악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지휘자 금난새가 음악감독을 맡아 4일간 4가지 빛깔의 음악으로 여름내 지친 부산시민

들의 감성을 적셔준다.

일정 및 프로그램

8.28(목) 그리그/현악4중주 제1번 사단조 작품 27
 볼프/이탈리안 세레나데 사장조
 멘델스존/현악 8중주 내림마장조 작품20
 • 연주/Amphion Quartet, Euro-Asian Ensemble
 8.29(금) 슈만/피아노 5중주 내림마장조 작품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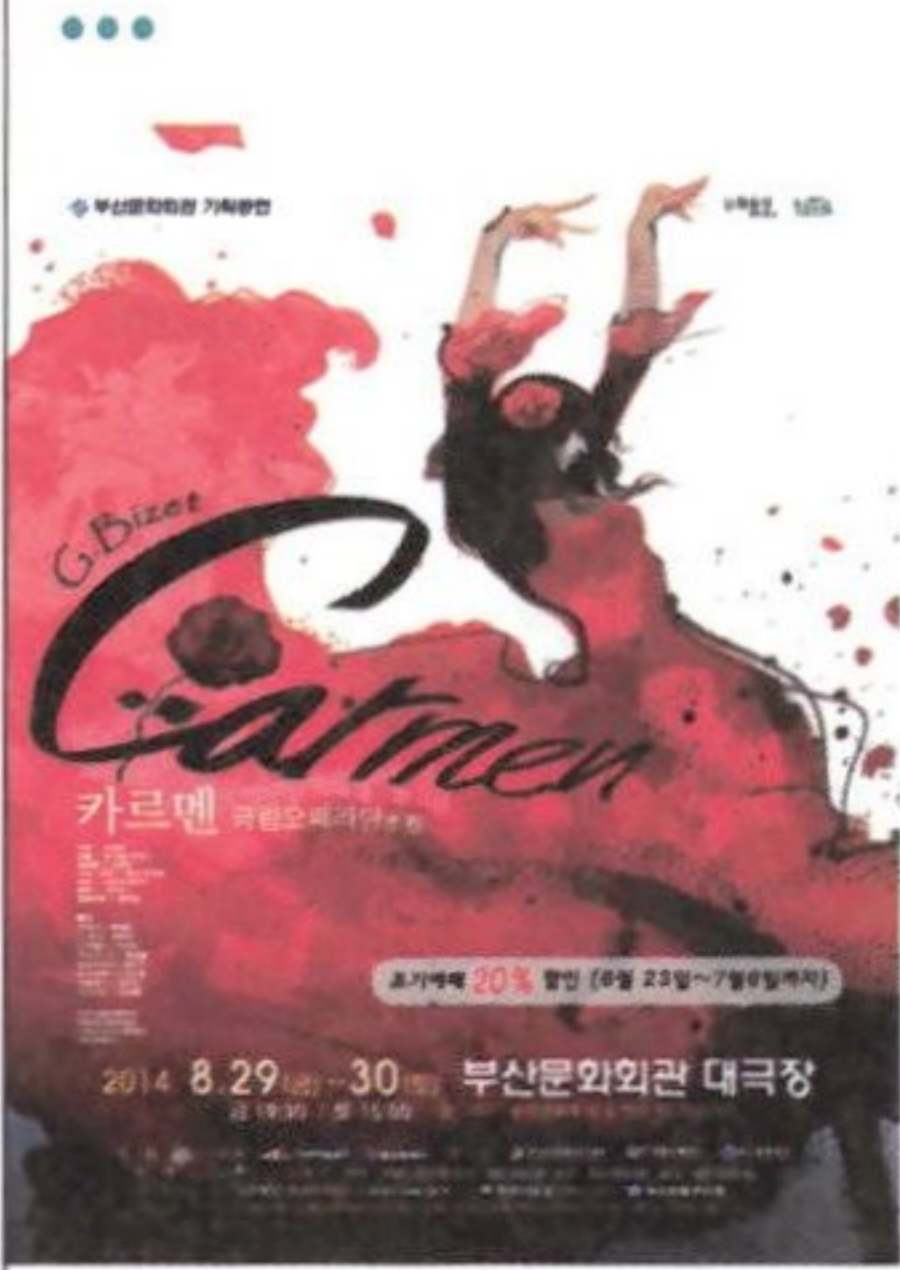
베버/클라리넷 협주곡 내림마장조 작품26
 브리튼/심플심포니 작품4
 • 연주/Evgeny Izotov, Amphion Quartet, 백양지, 부산신포니에타
 8.30(토) 드볼작/현악4중주 '아메리카'
 비발디/여름 엘가/서주와 알레그로
 • 연주/Amphion Quartet, Katherine Hyun, Camerata BS
 8.31(일) 러시아 음악의 날
 아렌스키/차이코프스키 주제에 의한 테마 작품 35
 쇼스타코비치/피아노와 트럼펫, 현악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작품 35
 차이코프스키/현악오케스트라를 위한 세레나데 다장조 작품48
 • 연주/부산챔버필하모닉, 유영욱, 드미트리 로카렌코프
 • 음악감독 및 지휘/금난새



프로그램
가이드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오페라 <카르멘> G. Bizet

일 시 | 8월 29일 금요일 오후 7:30, 30일 토요일 오후 3:00 **대극장**
입장료 |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B석 4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7



지난 2012년 국립오페라단이 창단 50주년을 기념하여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오페라'로 선정된 국립오페라단의 야심작 오페라 '카르멘' 부산공연.

자유를 갈망하는 치명적 매력의 집시 카르멘과 무뚝뚝한 하사관 돈호세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카르멘은 스페인, 쿠바, 프랑스 3국의 이미지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정열적인 음악으로 사랑받고 있다. 이번 무대는 2012년 지난 공연에서 '이 시대 가장 매력적인 카르멘'으로 팜파탈의 진수를 선보인 백재은이 카르멘으로,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지휘한 오페라 '카르멘'에서 돈호세 역으로 일본 도쿄신국립극장에 데뷔하여 극찬을 받은 테너 정의근이 연기한다.

영화속의 클래식

일 시 | 8월 29일 금요일 오후 7:0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칸타솔레 010-2915-1324

순수 클래식에 대중성을 접목시켜 클래식의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칸타솔레'가 관객들과 더욱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호흡하기 위해 '영화속의 클래식'이라는 타이틀로, 1부에서는 순수 클래식, 2부에서는 영화나 드라마 속에 삽입된 클래식 명곡을 들려준다.

•출연/소프라노 고승희, 김연아, 박은정, 하은아(피아노)

참 플룻 제5회 정기연주회

일 시 | 8월 31일 일요일 오후 3:0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참 플룻 010-4016-7477

글린카 음악원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귀국한 플루티스트 김혜정과 명혜빈, 박운진, 장경인, 심수정 등 그의 제자 12명이 함께 하는 참 플룻 정기연주회.

•연주/김혜정(리더), 정소희, 김기연, 변세정, 김현애, 이윤지, 김민서, 강빈미, 이은채
•특별출연/참트리오, 센텀리코더앙상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 초청콘서트

일 시 | 9월 2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 1600-1803



뉴욕 영 콘서트 아티스트 국제 콩쿠르에서 14세의 나이로 전체 1위를 차지하여 화제가 된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 초청콘서트. 뉴욕필하모닉에서 한국인 최초 종신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주영은 5세에 바이올린을 시작하여 일찍이 미국으로 유학하여 줄리어

드 음대의 거장 故 도로시 달레이 교수에게서 사사하고 정경화를 뛰어넘을 차세대 거장으로 주목받았다. 이번 무대는 김병수가 지휘하는 부산메트로폴리탄 팝스오케스트라와 일본의 소프라노 다나카 사토코, 재미교포 첼리스트 김욱영이 함께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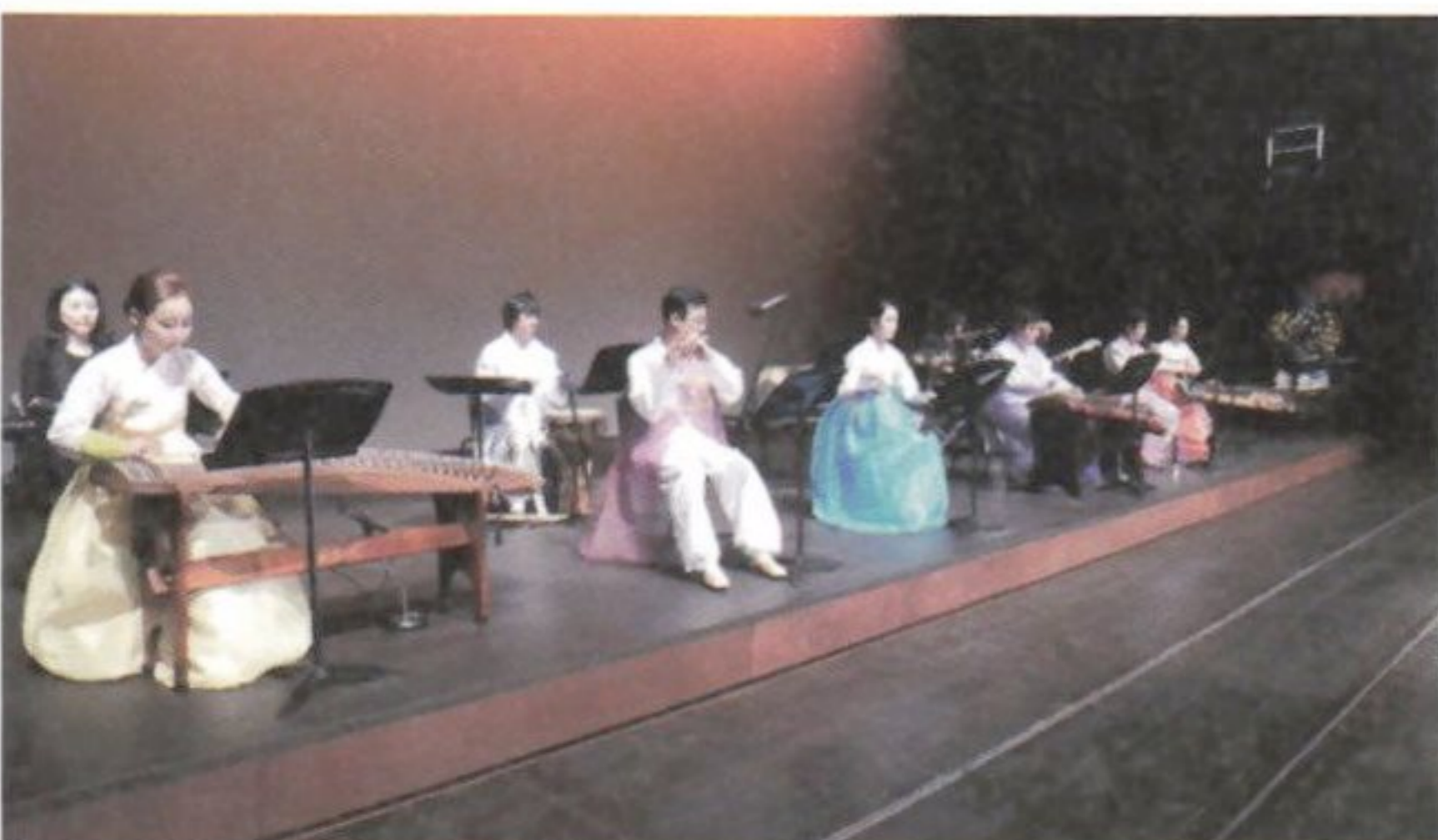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예프게니 오네긴 중 '폴로네이즈' 사라사테/지고이네르바이젠
브루흐/바이올린협주곡 제1번 등 수곡
•연주/메트로폴리탄 팝스 오케스트라(지휘/김병수)
•특별출연/소프라노 다나카 사토코, 첼리스트 김욱영

토요상설무대

일 시 | 토요일 오후 4:00 **소극장**
입장료 | 선착순 무료
(공연 30분 전 입장, 미취학 아동 입장 불가)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6

8월 2일
미토리 '풍류가 있는 소리'

•••
[프로그램]
경기풍류, 거문고독주, 판소리, 신푸리, 쑥대머리
모듬북 협주곡 '타(打)'
•연주/진형준(대표), 최오성(장구), 이중희(대금), 김명희(거문고), 최영훈(아쟁), 김세윤, 김재은(소리), 윤혁성(드럼), 김태현, 황진삼, 박성규(타악), 차민영(피아노), 김소현(해금)



8월 16일
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 '백설공주'

•••
백설공주 동화를 음악과 영상물이 어우러진 음악극 형태로 각색, 어린이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다.

[프로그램]
•1부-백설공주-J.E.M 합창단
난장이들의 노래, 거울아 거울아, 사랑의 하모니, 노래를 불러요
•2부-가족과 함께하는 음악회-Men's&Girl's Harmony
거위의 꿈, 추억의 CF 메들리, 동요 메들리 등
•출연/백설공주(김은주), 왕자님(최태근), 왕비(이동예), 왕(성민기), 사냥꾼(이주은), 난장이(권아영, 이지현, 김민, 박경선, 정혜원)
•연출/이진만
•총감독/박종준



8월 23일
이노연 무용단



[프로그램]
제1장 살풀이춤(춤/이노연)
제2장 태평무(춤/이미희)
제3장 승무(춤/이노연)
제4장 소고춤(춤/박은하)
제5장 민살풀이춤(춤/신명숙)
제6장 진도북놀이(춤/이노연)

8월 30일
부산시립합창단 여름에 떠나는 오페라 여행

•••
[프로그램]
L'Elisir D'Amore(사랑의 묘약)
이 멋진 묘약에 감사하오, 남 몰래 흘리는 눈물 Rigoletto(리골레토) 중 그리운 그 이름, 여자의 마음, 아름다운 아가씨여
La Traviata(라 트라비아타) 중 아, 그이었던가, 파리를 떠나서
La Boheme(라보엠) 중 내 이름은 미미, 사랑스런 아가씨 등 수곡
•출연/이정란, 엄남이, 정은영, 김윤희, 최춘식, 김진영, 문동환, 최성규
•피아노/이승윤, 이경미

음악

국립부산국악원 토요일명무대 행복한 국악나무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 3:0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균일 8천원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040

국악 대중화를 위해 매주 토요일에 마련해온 국립부산국악원의 대표 상설공연 '토요일명무대' 8월 공연. 2일 흐르는 듯 멈추고, 멈춘 듯 흐른다(민속춤) 태평성대, 입춤, 승무, 산조춤, 한량무, 설장구춤 9일 가락에 시름을 씻고 흥을 담아(민속악) 푸살, 산조, 동부민요, 시나위와 살풀이춤, 남도 토속민요, 삼도풍물가락 16일 궁궐의 멋과 여유를 만나다(궁중 문화) 낙양춘, 춘앵전과 무산향, 수룡음, 향발무, 취태평 지곡 '삼현도드리·염불도드리·타령·군악' 등 23일 창작으로 미래의 전통을 만든다(창작음악과 춤) 해금독주 '건명곡'(김영재 곡), 창작정가 '국화 옆에서'(황병기 곡), 창작판소리 '썩대머리'(오지총 곡), 거문고중주 '고구려의 여운'(정대석 곡) 등 30일 국악관련악과 놀아보자(국악관련악) 관현악 '하나되어'(강준일 곡), 거문고협주곡 '출강'(김용실 곡, 김대성 편곡), 아쟁산조협주곡 등

BS금용그룹 행복한 음악캠프 수료 축하연주회

일 시 | 8월 2일 토요일 오후 4: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재)BS금용그룹희망나눔재단 620-3049

BS금용그룹이 국내외 음악인들과 함께 지역의 클래식 음악 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한 행복한 음악캠프 수료 축하연주회.

행복한 음악캠프는 예술총감독 오충근 고신대학교 교수, 양고은 경희대학교 교수(바이올린), 최승룡 전 KBS교향악단 수석(비올라), 이윤정 경희대학교 교수(오보에) 등 17개 분야 33명의 교수진들이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고등학생, 대학생 등 100여 명의 음악도들과 함께 합숙하며 개인별로 맞춤형 레슨을 가진다.

• 지휘/오충근 • 연주/BS뮤직캠프오케스트라
• 협연/김영미(플루트), 박라나(하프)



2014 두레라움 토요일야외 콘서트

일 시 | 8월 2일(토), 16일(토), 30일(토) 오후 5:00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재)영화의전당 780-6000

시원한 야외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선율의 향연 2014 두레라움 토요일야외 콘서트 8월 무대. 지휘자 김성진이 이끄는 두레라움윈드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음악평론가 정두환의 해설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2일 '뜨거운 여름, 음악시리즈 라틴댄스', 16일과 30일에는 '명곡 앙코르 시리즈' 1, 2 무대가 펼쳐진다.

• 지휘/김성진 • 해설/정두환
• 연주/두레라움윈드오케스트라

영화의전당 개관 3주년 기념 2014 두레라움 실내악 축제

일 시 | 8월 3일(일)~27일(수)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국내초청팀 균일 2만원, 해외초청팀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문의 | (재)영화의전당 780-6000
www.dureraum.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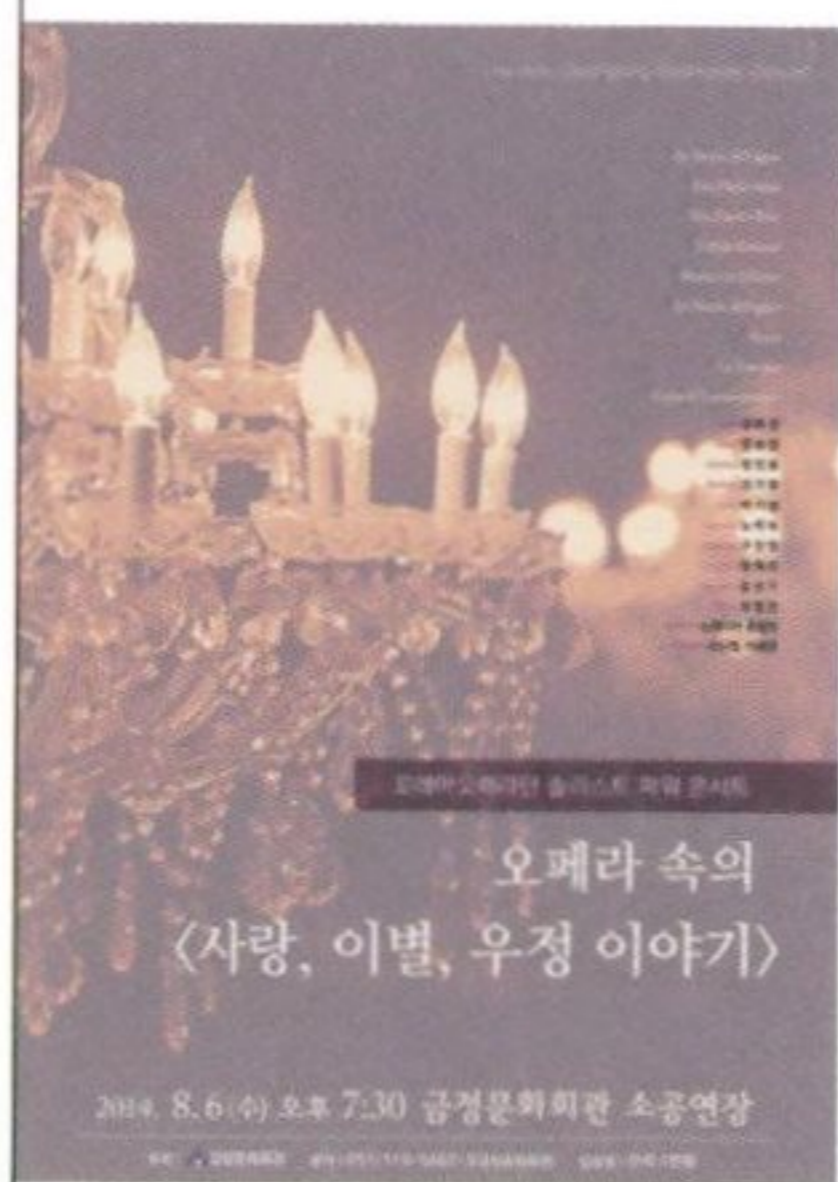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

6일 꼬레아오페라단 솔리스트 파워콘서트 '오페라 속의 사랑, 이별, 우정 이야기'



소프라노 노미숙, 구민영, 정혜리, 윤선기, 테너 양승엽, 김화정, 바리톤 김기환, 장진웅, 베이스 박기범 등 꼬레아오페라단 솔리스트들이 펼치는 오페라 아리아의 밤.

• 피아노/최영민
• 특별출연/노래나라중창단, 이신영, 이예원

13일 박승진 클라리넷 독주회

경희대학교 기악과와 미국 노스텍사스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Ensemble of The Perfectio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클라리넷리스트 박승진 독주회.

[프로그램]

레거/소나타 작품 49 제2번
맥글런(편곡)/파가니니 초절기교 연습곡 제24번
G. 조이아/클라리넷과 플루트,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 피아노/정아름 • 플루트/황미리



매년 여름, 뜨거운 태양만큼이나 열정적인 연주무대로 관객과 만나온 영화의전당 두레라움 여름 실내악축제 2014년 무대.

개관 3주년을 맞아 거센 콰르텟(독일), 잘츠부르크 솔리스트 콰르텟(오스트리아) 등 해외초청팀과 클래식 앙상블(서울), 앙상블 콘 쿠오레(대전), I.P.B(International Players of Busan, 부산), 아르스 앙상블(부산)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내초청팀, 김재영과 친구들, 콰르텟 크네히트, 뷔에르 앙상블 등 실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젊은 연주자들이 찾는 이번 무대에서는 '영화'를 테마로 한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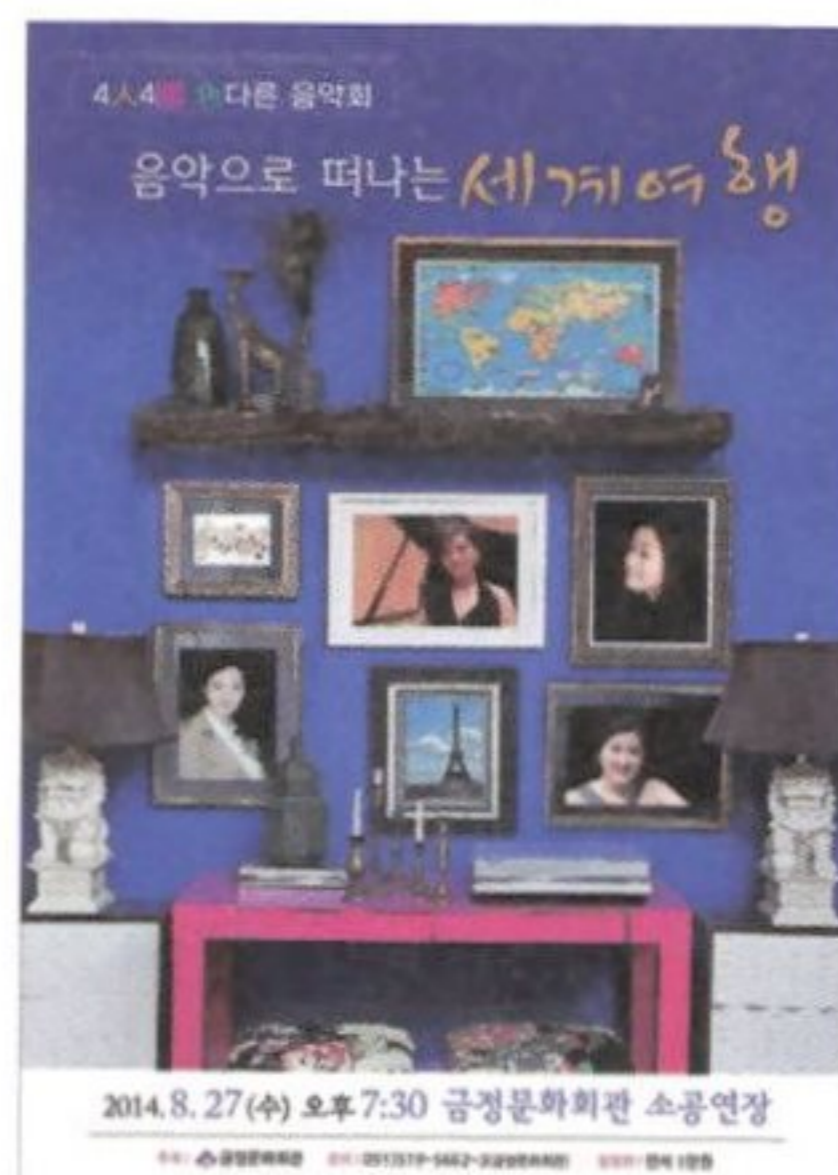
[일정]

3일(일) 오후 5시 김재영과 친구들
4일(월) 오후 8시 콰르텟 크네히트
5일(화) 오후 8시 클래식 앙상블
8일(금) 오후 8시 I.P.B with 일리아 코노바로프
18일(월) 오후 8시 앙상블 콘 쿠오레
20일(수) 오후 8시 잘츠부르크 솔리스트 콰르텟
22일(금) 오후 8시 거센 콰르텟 with 로만 쿠파슈미트
24일(일) 오후 5시 뷔에르 앙상블
27일(수) 오후 8시 아르스 콰르텟과 피아노&기타

20일 Bags'Groove Joyful Concert

지난 2011년 재즈보컬리스트 백흥선을 중심으로 부산 출신 재즈 연주자들로 결성된 재즈그룹 백스루브(Bags'Groove)의 무대.

27일 4사4국,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연세대학교와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석사 과정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김현정,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플루티스트 김혜정, 동아대학교와 독일 뉘른베르크 국립음대를 졸업한 피아니스트 이승미, 부산대학교와 한양대학교 대학원, 미국 뉴욕주립대 대학원을 졸업한 성악가 이승은 등 음악가 4인이 마련하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독일, 프랑스, 러시아, 미국 등 각 나라 대표 작곡가들의 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바그너/오페라 '탄호이저' 중 '노래의 전당'
생상스/죽음의 무도 작품 40
드뷔시/The Little Negro
라흐마니노프/프렐류드 작품 32 제2번 등 수곡
• 해설, 사회/김혜정
• 게스트/조아라(플루트)

프로그램
가이드

국립부산국악원 2014 창작연희 상설공연
떨판, 놀판, 살판

일 시 | 8월 7일(목), 21일(목)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초대(선착순 1인 2매 예약)
문 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040



한여름 밤의 유쾌한 놀이마당 국립부산국악원 창작연희 상설공연 '떨판, 놀판, 살판'.

7일 연희집단 The 광대 광대재담극 '자라' 탈춤, 풍물, 남사당놀이, 무속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젊은 예인집단인 '연희집단 The 광대'

대의 광대재담극 '자라'는 잠을 줄여가며 바쁘게 살아가는 서울 총각의 이야기를 재담극으로 창작한 작품으로, 재치로 관객의 흥을 돋우는 한국 재담의 특성을 잘 살린 작품이다.

21일 한국공연예술원 동화음악극 '레이디 원앙' 우리나라 공연 예술의 학문적 연구와 공연 기법의 체계화를 위해 노력하는 전문예술단체인 한국공연예술원이 선보이는 '레이디 원앙'은 원앙부인 설화를 바탕으로 인형극과 마당극을 결합한 동화음악극이다.

Space UM '차가 있는 음악회'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후 8:00
스페이스움
입장료 | 균일 1만원(음료 포함)
문 의 | 스페이스움 557-3369

7일 테너 허동권 & 소프라노 김지영 '마음의 울림을 노래하다'



동아대학교 음악학과와 이태리 캄브라소 국립음악원, 페루지아 시립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서울시오페라단 주역단원, BS부산은행 조은극장 예술감독으로 있는 테너 허동권과 부산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엄정행 전국성악콩쿠르 전체대

상을 수상한 바 있는 소프라노 김지영이 함께하는 무대.

14일 재즈보컬 백흥선 리사이틀 'Bags' Groove' 지난 2011년 재즈보컬리스트 백흥선을 중심으로 부산지역 출신의 재즈연주가들로 결성된 Bags' Groove의 무대.

출연/백흥선(보컬), 심규성(트럼본), 권훈(트럼펫), 김수지나(피아노), 서진석(드럼)

21일 피아니스트 정문정의 '한여름밤의 아름다운 선율'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미국 루즈벨트대학교 석사, 드폴대학교 최고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루즈벨트대학교 콘체르토 콩쿠르 우승, 전미교수협회 콩쿠르 우승 등 다수 콩쿠르에서 우수한 피아니스트 정문정 독주회.

프로그램
쇼팽/마주르카 작품 24 제1번
라벨/슬픈 새
스크라빈/프렐류드 작품 9 제1번
베토벤/소나타 작품 111 제 32번 등

28일 WGN양상블 '영화 속 클래식 음악'

'세계복음네트워크(Worldwide Goodnews Network)'라는 뜻을 지닌 크리스찬 연주단체인 WGN 양상블의 무대.

WGN양상블은 결식아동돕기 민간자선단체인 'TDC' 소속 연주단체로 자선음악회, 음악교육 등 재능기부를 통해 음악을 통한 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연주/금성빈, 정주연(바이올린), 손주연(비올라), 이지수(첼로), 고영주(피아노), 박주희(작곡)
영상디자인/백봉필

성두경 바이올린 독주회

일 시 | 8월 8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한다우리예술기획 070-8805-6333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과 독일 뷔르츠부르크 국립음대 연주자과정, 트로싱엔 국립음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Trio Epos 단원, 세한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성두경 독주회.

성두경은 정통 클래식 연주 외에도 영화음악, 가야금과의 2중주, 블루스 기타리스트 채수령밴드와의 CD 출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
바흐/소나타 제1번 사단조 BWV 1001
모차르트/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26번 내림나장조 KV.378
베토벤/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1본 라장조 작품 12
피아노/박경화

부산 아르고 윈드오케스트라 제8회 정기연주회
Voices of Heroes

일 시 | 8월 9일 토요일 오후 6:00
입장료 | 무료
문 의 | 이상용 010-4576-4844

클래식에서부터 경음악까지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연주로 관객에게 다가가고 있는 부산 아르고 윈드오케스트라의 8번째 정기연주회.

'아르고'는 그리스 신화 속 영웅 이아손이 최고의 용사 50명과 함께 황금 양털을 찾으러 갈 때 타고간 배의 이름으로, 관악의 르네상스를 이끌겠다는 단원들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프로그램
존 윌리엄스/존 윌리엄스의 올림픽 피아졸라/망각
히사이시 조/천공의 성 라푸타
영상과 함께하는 영화음악 등 수록
지휘/이상용



동래문화회관 제28회 숲속의 열린음악회
테너, 그 영혼의 목소리

일 시 | 8월 12일 화요일 오후 8: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예매시 1만원)
문 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1

동래문화회관이 매월 다채로운 장르의 음악으로 관객과 만나는 숲속의 열린음악회 8월 무대.

테너 송승민, 양승엽, 조윤환, 장진규, 김경 등 다섯 명의 남성 성악가들이 출연, 풍부한 기량과 시원한 성향으로 한여름밤의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 가곡에서부터 칸초네, 오페라 아리아까지 다양한 장르의 곡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프로그램
그리운 금강산, 보리밭, 내 맘의 강물, 산, 박연폭포, 돌아오라 소렌토로, 그라나다, 열정 등 수록



Program Guide >>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김유은&인소향 듀오 리사이틀

일 시 | 8월 12일 화요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고전음악감상실인 무지크바움이 2013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살롱음악회 8월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서울대학교 동문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유은, 피아니스트 인소향의 듀오무대가 펼쳐진다.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작품 12
슈베르트/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론도 작품 70
브람스/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작품 103
라벨/치칸느



Melpomene -구희경, 전사랑, 강시은, 안현아

일 시 | 8월 16일 토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구희경 010-8638-2808

피아니스트 구희경, 전사랑, 강시은, 안현아가 함께하는 4인 음악회.
구희경은 동의대학교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 전사랑은 고신대학교 3학년에, 안현아는 울산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며, 강시은은 울산대학교를 졸업하고 다양한 무대에 서오고 있다.

'멜포메네'는 그리스신화에 등장하는 아홉 뮤즈 중의 하나로 비극과 리라 연주를 주관하는 여신이다.

|프로그램|
베토벤/소나타 제26번 내림마장조 작품 81a
브람스/인터메조 작품 118
슈베르트/소나타 가장조 D.663
생상스/죽음의 무도 작품 40 등

Melpomene



2014. 8. 16. (토) 07:00 pm
금정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강효주 경기소리 'Fascination'

일 시 | 8월 13일 수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공연예술컨설팅그룹 비온뒤
02-703-65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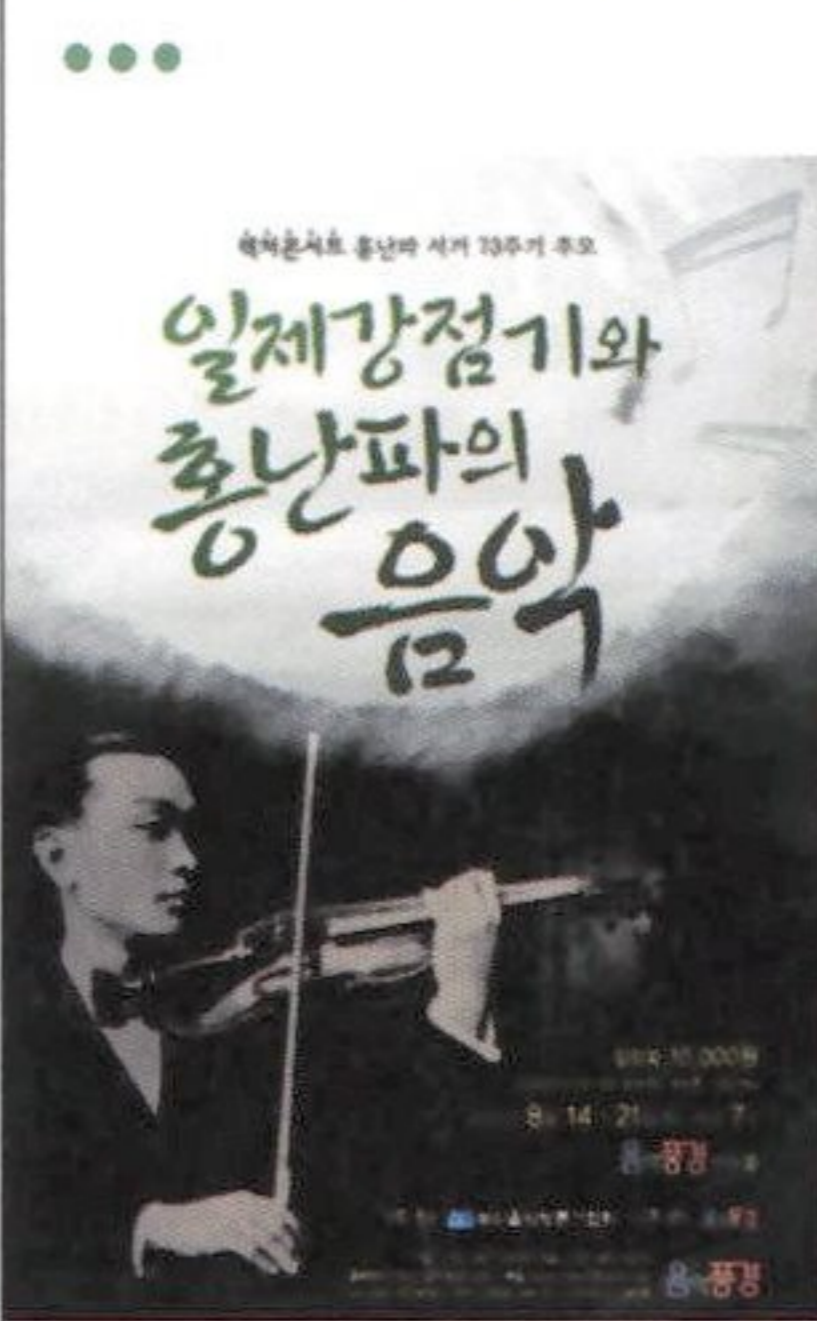


‘든든하게 받쳐주는 묵직한 아랫소리가 경기민요의 또다른 매력을 청중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소리꾼 강효주의 경기소리 무대.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성악 수석,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로 활동중인 강효주는 그동안 제17회 전국민요경창대회 대상, KBS 국악대상, MBC 전주대사습놀이 민요부문 장원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경기 12좌창 중 '적벽가'와 거문고, '긴 아리랑'과 단소, 경(京)토리-한강수타령, 사발가, 노들강변, 잣은방아타령, 아리랑 연곡. 경기입창 '산타령' 등 수곡

음악풍경 렉처콘서트 홍난파 서거 73주기 추모 일제 강점기와 홍난파의 음악

일 시 | 8월 14일(목), 21일(목) 오후 7:00
음악풍경 연주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음악풍경 987-5005



‘음악으로 행복한 세상을!’을 꿈꾸는 문화네트워크 음악풍경이 마련하는 렉처콘서트.
홍난파 서거 73주기를 추모해 마련하는 이번 무대는 ‘일제 강점기와 홍난파의 음악’이라는 주제로, 일제 강점기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서양음악 1세대 음악을 살펴보고 이 시기 대표적인 작곡가인 홍난파의 개인적 삶은 물론 그의 노래와 음악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홍난파 음악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음악평론가 김창욱이 강사로, 바리톤 조성빈, 피아니스트 이승미가 초청연주자로 무대에 선다.

부산예술가곡회 정기연주회

일 시 | 8월 16일 토요일 오후 6:0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자율
문의 | 글로벌아트홀 505-5995

소프라노 조신미, 김연경, 박순정, 이경숙, 태너 채사무엘, 조창현, 문상준, 양수배 등이 창작가곡 활성화를 통해 아름다운 음악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창단한 부산예술가곡회 정기연주회.
부산예술가곡회는 지난 5월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매월 셋째 주 토요일 글로벌아트홀에서 정기연주회를 통해 다양한 창작 레퍼토리로 부산시민들과 만나고 있다.
• 사회/조신미
• 피아노/김정숙



2014 부산기타페스티벌

일 시 | 8월 17일 일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초·중고생 5천원
문의 | 서승완 010-5198-0074

매년 여름 바다의 도시 부산에서 펼쳐지는 클래식 기타의 향연 2014 부산기타페스티벌.
매년 전국의 유명 기타리스트들과 연주단체를 초청해 마련하는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 규모의 기타 페스티벌로, 화려한 기타음악의 세계를 만날 수 있다.
올해는 부산페스티벌기타양상블(지휘/김경태)과 폴리포니기타듀오(서승완, 김경태), 현락듀오(김병현, 최훈락), 기타리스트 김종걸이 출연한다.
|프로그램|
12 Fantasias for Two Guitars(J. M. Zenamon), Fatasia(F. Sor), Palermo & San Telmo(M. D. Pujol) 등



프로그램
가이드

제12회 동아피아노포르테 정기연주회

일 시 | 8월 18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5천원
문의 | 동아피아노포르테
010-3868-7691, 010-9392-9742

동아대학교 피아노 전공 동문들로 결성된 동아피아노포르테의 12번째 정기연주회. 동아피아노포르테는 지난 2000년 동아대 오케스트라와의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동아대학교 60주년 기념음악회, 목요일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서 서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과 온 가족이 함께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우리 귀에 친숙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피아졸라/사계 중 '봄'

드보르작/슬라브댄스

윌리엄 볼컴/에덴의 동산 등 수곡

- 연주/이미라, 이정아, 박소미, 전숙영, 김영숙, 장윤정, 김민희, 김민지
- 찬조출연/아마빌레시어즈중창단

금정네오피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여름방학 청소년 음악회 음악이 게임보다 재미있어요!

일 시 | 8월 20일-21일 수-목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 5663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해 금정네오피하모닉오케스트라가 마련하는 청소년음악회. 지난 2009년 7월 최고의 기량을 갖춘 단원들로 창단한 후 도전의식과 실험정신으로 새로운 공연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네오피하모닉오케스트라는 지난해 금정문화회관 상주단체로 지정되어 보다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들과 만나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청소년들이 클래식을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도록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곡을 상세한 해설과 함께 들려준다.



정두환의 음악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모차르트 음악여행

일 시 | 8월 21일 목요일 오후 8: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정두환 011-574-0423



CBS교향악단 상임지휘자, 부산볼런티어윈드앙상블 상임지휘자, 정두환의 음악강좌 '좋은음악&좋은만남'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평론가 정두환과 함께 떠나는 모차르트 음악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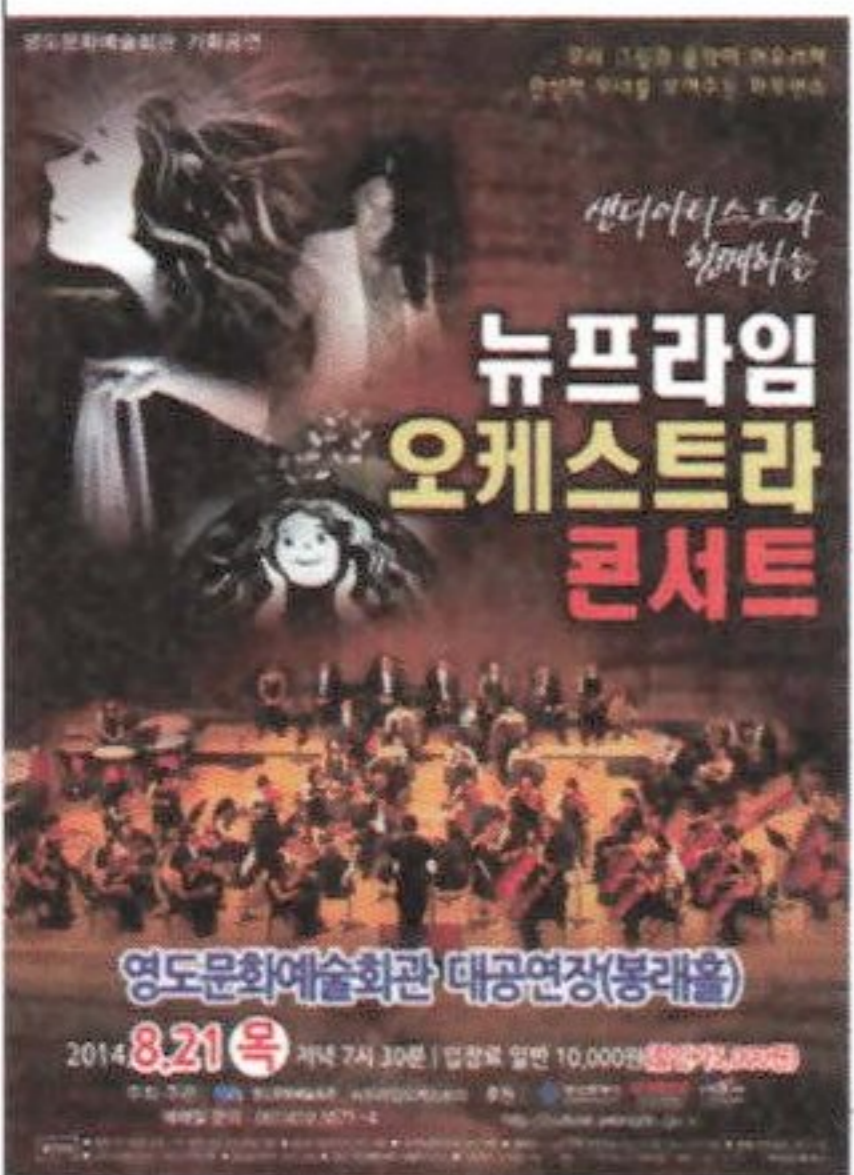
정두환은 을숙도교향악단 초대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 글로리콰이어, gm2필하모니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를 역임했으며, 다수 방송에서 클래식 및 문화프로그램 진행자로도 활동한 바 있다.

아름다운 음악의 원리를 연주와 해설과 함께 풀어가는 이번 무대에서는 모차르트 음악을 통해 행복한 음악여행을 떠난다.

- 지휘, 해설/정두환
- 연주/정두환의 음악친구들 오케스트라
- 피아노/김소형 • 호른/최준호
- 클라리넷/강철주

샌디아티스트와 함께하는 뉴프라이미오케스트라 콘서트

일 시 | 8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지난 2007년 결성된 후 다양한 무대에 서온 뉴프라이미오케스트라가 모래그림과 음악이 어우러져 환상적 무대를 보여주는 샌디아티스트와 함께하는 뉴프라이미오케스트라 콘서트.

이야기가 있는 클래식곡인 그리그 '페르퀀트'와 차이코프스키 '백조의 호수'를 들려줄 이번 무대에서는 흥익대학교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하고 어린이아트페스티벌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샌디아티스트 윤혜진의 신기한 모래그림 영상이 연주와 함께 펼쳐진다.

[프로그램]

그리그/페르퀀트 모음곡
차이코프스키/백조의 호수

글로벌 신인음악회

일 시 | 8월 23일 토요일 오전 11:0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자율(글로벌콩쿠르 장학재단 기금 마련)
문의 | 글로벌아트홀 505-5995

국제 수준의 어쿠스틱 음향 연주홀인 글로벌아트홀이 차세대 젊은 음악인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야심차게 기획한 글로벌 신인음악회. 글로벌 신인음악회는 신인 음악인들이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연주실력을 향상시키고 관객들에게 이름을 알리면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김나영 & 이명한 바이올린 듀오

일 시 | 8월 23일 토요일 오후 5: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실력있는 연주자들의 실연을 눈앞에서 감상할 수 있어 많은 사랑을 받아온 고전음악감상실인 무지크바움의 살롱음악회 8월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대학교 동문인 바이올리니스트 김나영, 이명한의 듀오무대가 펼쳐진다. 김나영은 부산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경북도립교향악단 단원으로, 이명한은 부산대학교 오케스트라 악장을 역임하고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 중이다. 부산대학교 동문으로, 칸타빌레 앙상블 피아니스트로 활동 중인 최영민이 함께 한다.



제3회 길명훈 플루트 리사이틀

일 시 | 8월 25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길명훈 010-9250-3348



헝가리 부다페스트 리스트 Ferenc Zenemuveszeti Egyetem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플루트 앙상블, 플루트콰르텟 '클랑' 단원으로 활동 중인 클라리네티스트 길명훈 독주회.

길명훈은 그동안 일본, 헝가리대사관 초청 트리오 연주, 가람화요초청음악회, 금정수요음악회, 김해교향악단, 헝가리 리스트음악원 심포니오케스트라와의 협연무대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플라티/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작품 3 제6번 모차르트/플루트4중주 라장조 K. 285

콰사르/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Saltus Hungaricus

조르주 휴/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환타지

- 피아노/이승운 • 바이올린/신정원
- 비올라/박주연 • 첼로/신정성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음악평론가 이현석의 클래식 러브레터

일 시 | 8월 26일 화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커피 제공)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 5663



예술작품 속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재치있는 입담으로 소개하는 음악평론가 이현석과 떠나는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대중들이 바라보는 클래식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좀 더 친숙한 방법으로 관객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마련된 '클래식 러브레터'는 다양한 구성과 흥미로운 콘텐츠로 관객들과 만나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사랑'이라는 테마로, 슈만과 클라라, 브람스의 삼각관계와 슈만의 가곡 등 세기의 음악사 속에 숨겨진 사랑 이야기와 그와 연관된 클래식 음악들을 들려준다.

- 해설/이현석
- 소프라노/김윤지 • 바리톤/최준원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2014 디퍼런트 디토 앙상블 그리하여, 밤

일 시 | 8월 27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 5663

지난 2006년,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을 중심으로 결성된 후 세련된 스타일과 감성으로 관객들과 만나온 앙상블 디토의 컨템포리 뮤직 시리즈. 모차르트의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무지크'를 시작으로 뒤티외의 현악 4중주 '그리하여, 밤', 쇤베르크의 '정화된 밤' 등 '밤'을 주제로 한 클래식 연주와 아름다운 영상이 한여름 밤 꿈의 무대로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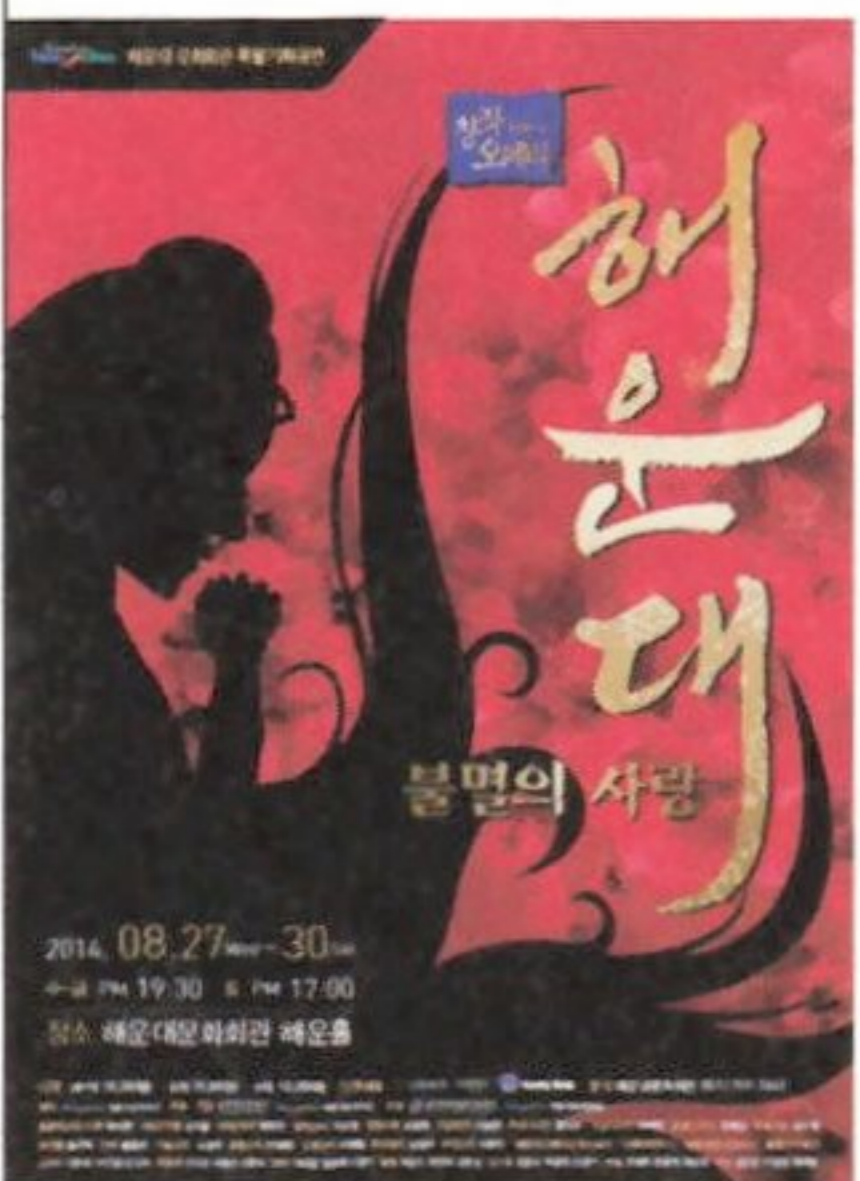
• 연주/앙상블 디토-스테판 피 재키브(바이올린), 마이클 니콜라스(첼로), 다니엘 정(바이올린), 파커 콰르텟-다니엘 정(바이올린), 김기현(첼로), 제시카 보드너(비올라), 잉 수에(바이올린), 신윤경(비올라)



창작오페라 '해운대-불멸의 사랑'

일 시 | 8월 27일-29일 수-금요일 오후 7:30,
30일 토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VIP 3만원, R석 2만원, A석(2층) 1만원
문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전국 최초로 기초자치단체인 해운대구가 기획에서부터 제작까지 맡아 화제가 되었던 창작오페라 '해운대-불멸의 사랑'.

장산자락에 위치한 장산국 설화를 바탕으로, 장산국 마지막 여왕 고아진의 불멸의 사랑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해운대-불

멸의 사랑'은 소프라노 김유섬, 바리톤 박대용, 테너 김지호 등 국내 최정상급 오페라 가수들이 출연,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한다.

- 총 음악감독/백진현(동서대학교 교수)
- 대본, 연출/김지용
- 작곡/백현주
- 합창단/오페라 컴퍼니(지휘/조윤환)

제81회 그랜드자연 야외음악회

일 시 | 8월 28일 목요일 오후 7:00
그랜드자연요양병원 파리에온 잔디광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그랜드자연요양병원 612-0088

'문화가 있는 요양병원'인 그랜드자연요양병원이 마련하는 그랜드자연 야외음악회.

이번 무대에서는 실력과 재즈밴드인 크로스노트의 감동적인 재즈공연과 더불어 그랜드자연요양병원 직원 난타팀인 '그랜타'와 입원 환우들이 함께하는 난타공연이 펼쳐진다.

복장단에 맞추어 가락을 치고 신명 나게 즐기는 난타공연은 그랜드자연요양병원의 다양한 음악치료 프로그램 중 하나로, 악기연주를 통해 치매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동래문화회관 목요국악 힐링콘서트 높고 크게, 날라리

일 시 | 8월 28일 목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1

젊은 국악연주자들로 구성된 국악밴드 아비오가 펼치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신명 나는 무대 동래문화회관 목요국악콘서트.

2007년 결성된 국악밴드 아비오(我飛娛)는 '음악을 자유로이 즐기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기존 국악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음악을 스스로 찾아보고자 하는 젊은 국악인들의 퓨전국악그룹이다.

[프로그램]

날아라 풍덩이, 서랍 속 장난감 나라, 이슬 바람, 시집가는 날, 프론티어, 바람계곡, 산체스의 아이들, 풍장



프로그램
가이드

**신재희 여섯 번째 대금독주회
산조(散調)**

일 시 | 8월 29일 금요일 오후 7:0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초대
문 의 | 신재희 010-3388-0814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하고 현재 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 정단원,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중요제례악 이수자, 제41호 가사 전수자, 대금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금주자 신재희 독주회.

신재희는 제25회 온나라 국악경연대회 대금부문 은상, 제6회 전국 대한민국 여성 전통예술경연대회 일반부 대상, 제40회 전국 난계국악경연대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서용석류 대금산조 전 바탕을 들려준다.

- 장구/정준호(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단원)
- 사회/현경채(음악평론가)

글로벌 행복음악회

일 시 | 8월 31일 일요일 오후 3:0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자율(글로벌콩쿠르 장학재단 기금마련)
문 의 | 글로벌아트홀 505-5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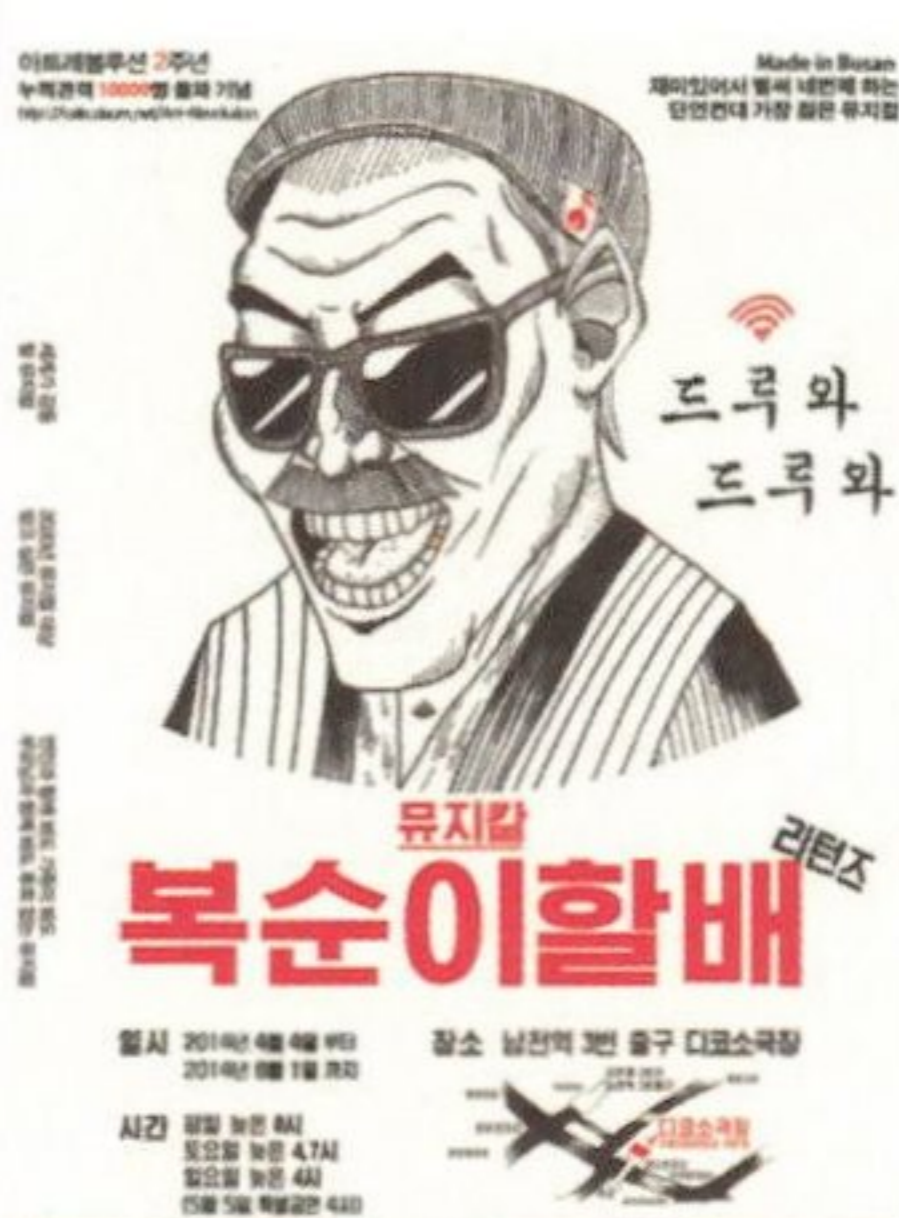
국제 수준의 어쿠스틱 음향 연주홀인 글로벌아트홀이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마련하는 상설무대 글로벌 행복음악회. 글로벌아트홀은 그동안 지역민과 부산시민들의 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을 무대에 올려왔다.



연극

창작뮤지컬 복순이할배 리턴즈

일 시 | 4월 4일(금)~8월 24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4:00
(월요일 공연 없음) 디코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아트 레볼루션 010-7749-8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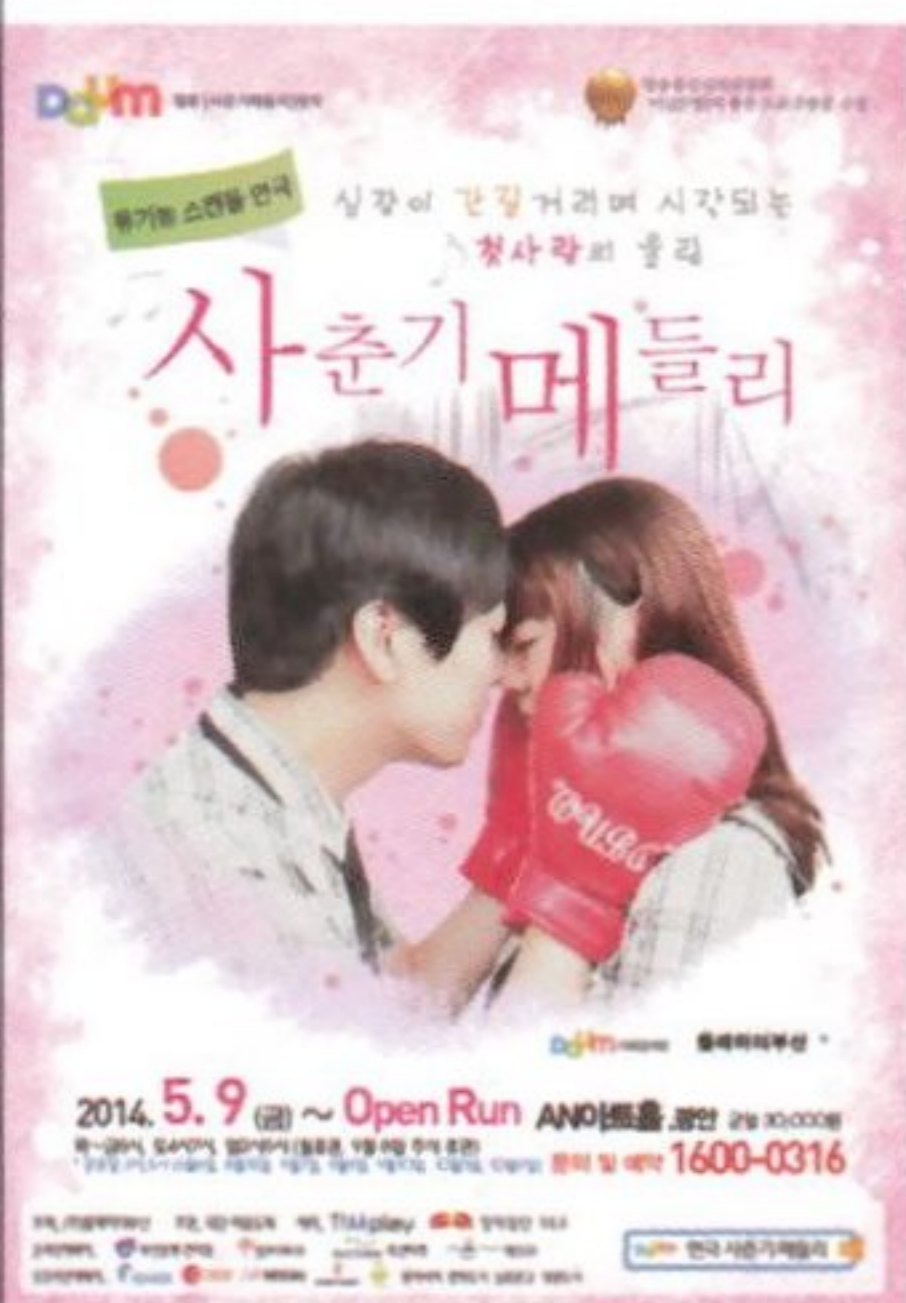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따뜻한 감동으로 그려낸 창작뮤지컬 '복순이할배 리턴즈'. 친구처럼 지내는 옛사랑 지혜의 마음을 돌리려 애쓰지만, 사랑을 모른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사회복지과 학생 태수는 학과 실습차 꼬 짜 독거노인 복순이 할배집에 가게 되고, 할배로부터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그를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배우게 된다.

- 연출/박정우
- 출연/박준성, 박정우, 손이영, 김경원, 채민수, 김범수

연극 사춘기 메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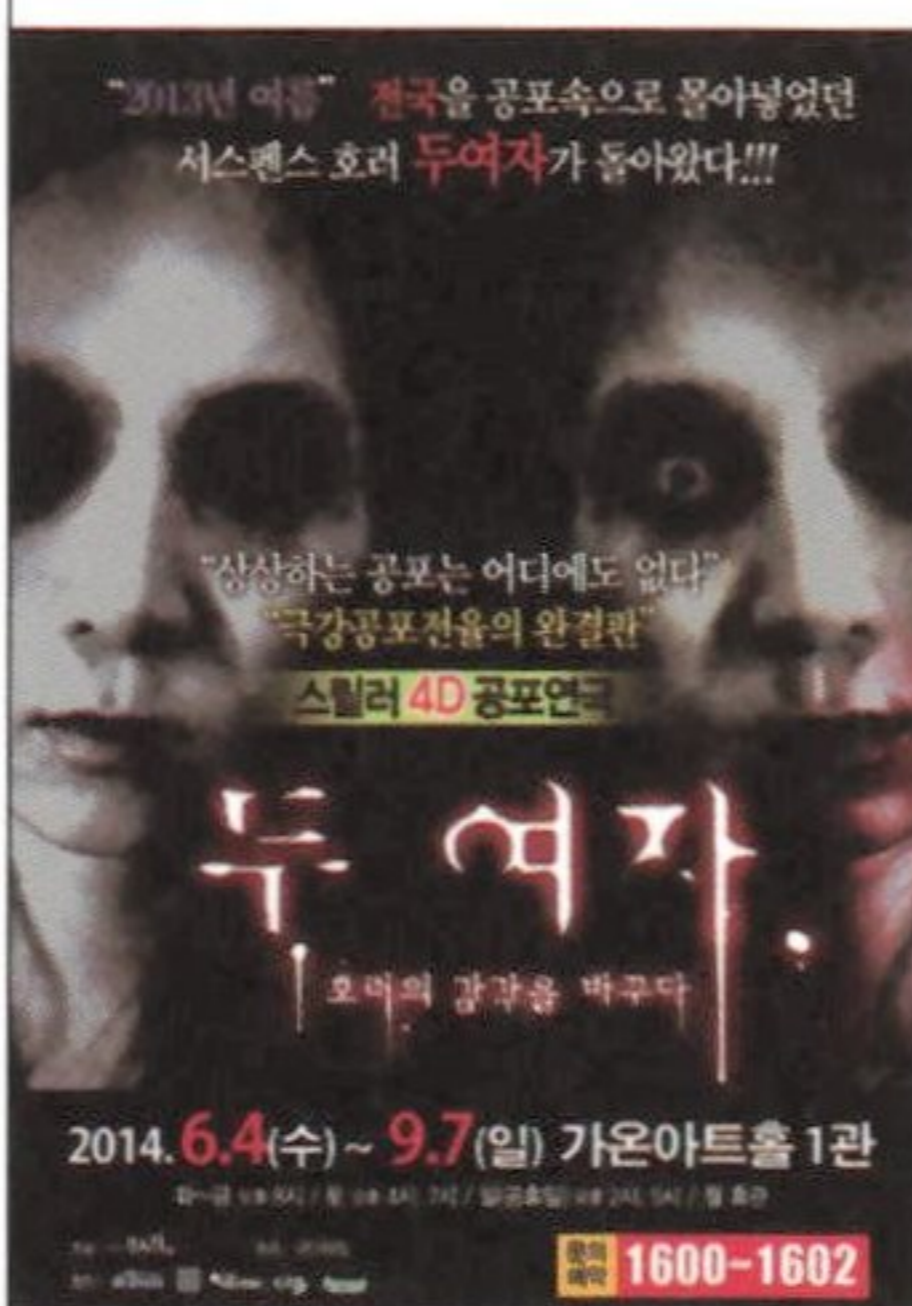
일 시 | 5월 9일(금)~Open run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 없음)
AN아트홀.광안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 ㈜플레이더 부산 1600-0316



인터넷에 연재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곽인준 작가의 동명의 웹툰을 무대에 올린 연극 '사춘기 메들리'. 아버지의 직장 때문에 낯설고 한적한 시골마을에 전학 온 주인공 정우를 통해 순수했던 첫사랑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사춘기 메들리'는 지난해 7월 드라마로도 제작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드라마 최초로 수상하기도 했다.

공포호러연극 2014 두여자

일 시 | 6월 4일(수)~9월 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 없음)
초록우산 가온아트홀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60%, 주말 50% 할인)
문 의 | SM기획 1600-1602



서늘한 반전이 있는 탄탄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시각, 청각 뿐 아니라 후각, 촉각, 미각 등 인간의 오감을 통해 지금까지 기존의 호러극에서 느껴보지 못한 색다른 공포를 선사하는 호러연극 '두여자' 10년 전, 정신분열증을 심하게 앓았던 언니 주성희, 그녀는 방화사건으로 정신병원에 갇히게 된다. 그 사건으로 부모님들은 모두 돌아가셨지만 그녀의 쌍둥이 동생 주명희만이 극적으로 살아남아 지금은 평범한 가정을 꾸미며 살아가고있다. 그 후로부터 10년 후, 10년 전 그 일을 떠올리며 불안해하는 주명희 앞에 언니 주성희가 나타나는데...

**콘서트뮤지컬
언제는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나요**

일 시 | 6월 4일(수)~9월 7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6:00(월요일 공연 없음)
에저또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60%, 주말 50% 할인)
문 의 | SM기획 1600-1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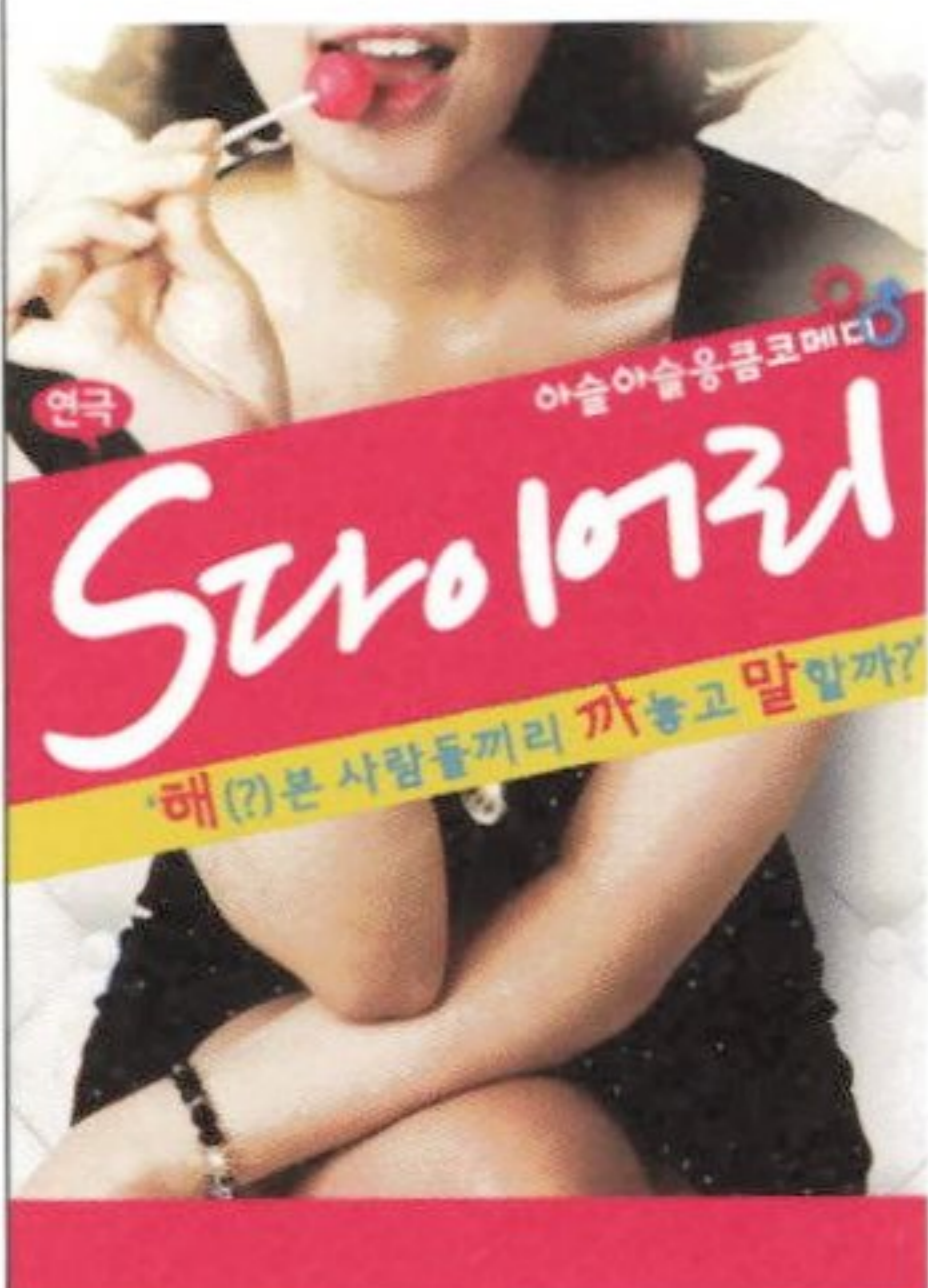


10년 동안 한사람을 그리워해온 남자 태양과 10년 동안 한사람을 마음에만 품어온 여자 두나, 그리고 친구의 첫사랑을 이어주기 위해 노력해온 두나의 소꿉친구 만식과 제니 등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해주는 두 쌍의 연인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콘서트 뮤지컬.

- 작, 작사, 작곡, 연출/김민

콘서트뮤지컬 **S다이어리**

일 시 | 7월 3일(목)-8월 31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4:00, 7:00
(월요일 공연 없음) 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588-2757



2030 연애사를 대담하고 솔직하게 다룬 대학로 화제의 연극 'S다이어리' 부산공연. 서른살을 코앞에 둔 잡지사 기자 나진희의 찬란했던 연애와 시련의 상처를 과감하게 그려낸 'S다이어리'는 연애와 섹스,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은

대사에 직설적인 표현으로 거부감이 들 수 있는 장면도 유쾌하게 풀어내면서 남녀 관객 모두의 공감을 얻고 있다.

• 연출/임길호

공포연극 **당신이 주인공**

일 시 | 7월 3일(목)-9월 14일(일) 평일 오후 5:00,
8:00, 토요일 오후 4:00, 6:00, 8:00,
일·공휴일 오후 5:00, 8:00
(8/15일 오후 4:00, 6:00, 8:00, 9/8일,
월요일 공연 없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588-2757



개그맨 김대범의 연출,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공포연극 '당신이 주인공'. 관객이 주인공이 되는 관객참여극 '당신이 주인공'은 '웃으면서 무서운 공연'이라는 컨셉으로 억지웃음이 아닌 고급웃음, 세련된 개그, 진실된 연기로 관객을

사로잡는다.

- 연출/김대범
- 출연/김중근, 송동욱, 김범선, 박성호, 김한국, 김영재

연극 **술래잡기**

일 시 | 7월 3일(목)-9월 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 없음)
가온아트홀 3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60%, 주말 50% 할인)
문 의 | SM기획 1600-1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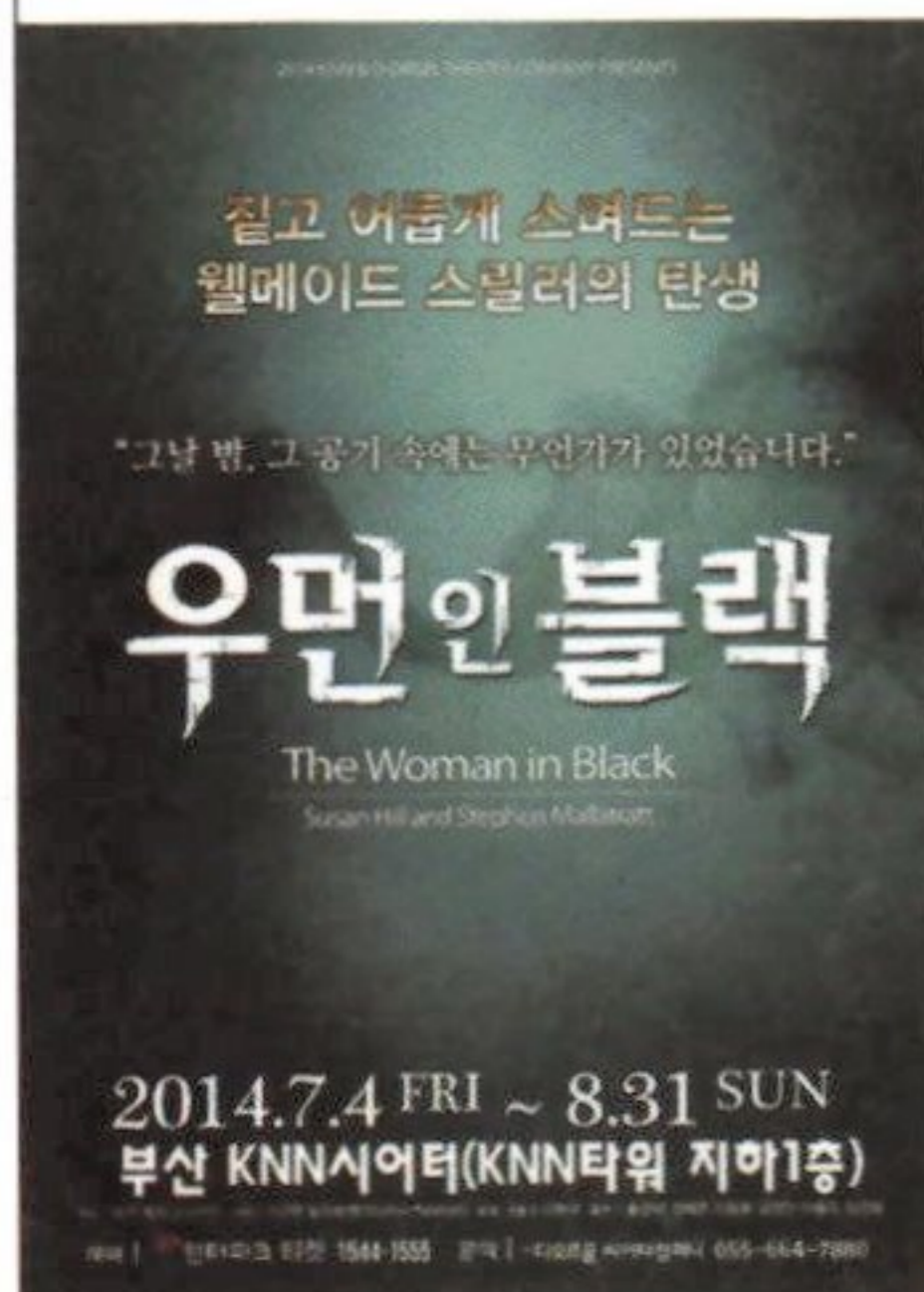


다중인격이라는 낯선 소재를 통해 인간 존재의 불완전성을 이야기하는 연극 '술래잡기'. 아내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13년 동안 복역한 강대수, 아버지의 학대로 방어적인 삶을 살고 있는 송지아, 보육원 생활로 애정결핍을 겪고 있는 오수련 등 가정의 상실을 통해 사회로부터 고립된 삶을 살고 있는 세 남녀가 칠혹 같은 밀실에 영문도 모른 채 갇혀 과거를 추적하는 스릴러극인 '술래잡기'는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무대와 괴기스러운 영상의 활용을 통해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내면서 세 인물의 심리 상태를 더욱 사실감 있게 형상화한다.

가정의 상실을 통해 사회로부터 고립된 삶을 살고 있는 세 남녀가 칠혹 같은 밀실에 영문도 모른 채 갇혀 과거를 추적하는 스릴러극인 '술래잡기'는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무대와 괴기스러운 영상의 활용을 통해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내면서 세 인물의 심리 상태를 더욱 사실감 있게 형상화한다.

연극 **우먼 인 블랙**

일 시 | 7월 4일(금)-8월 3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
(8/15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 없음)
KNN시어터
입장료 | 균일 3만 5천원
문 의 | (주)디오르골씨어터컴퍼니 664-7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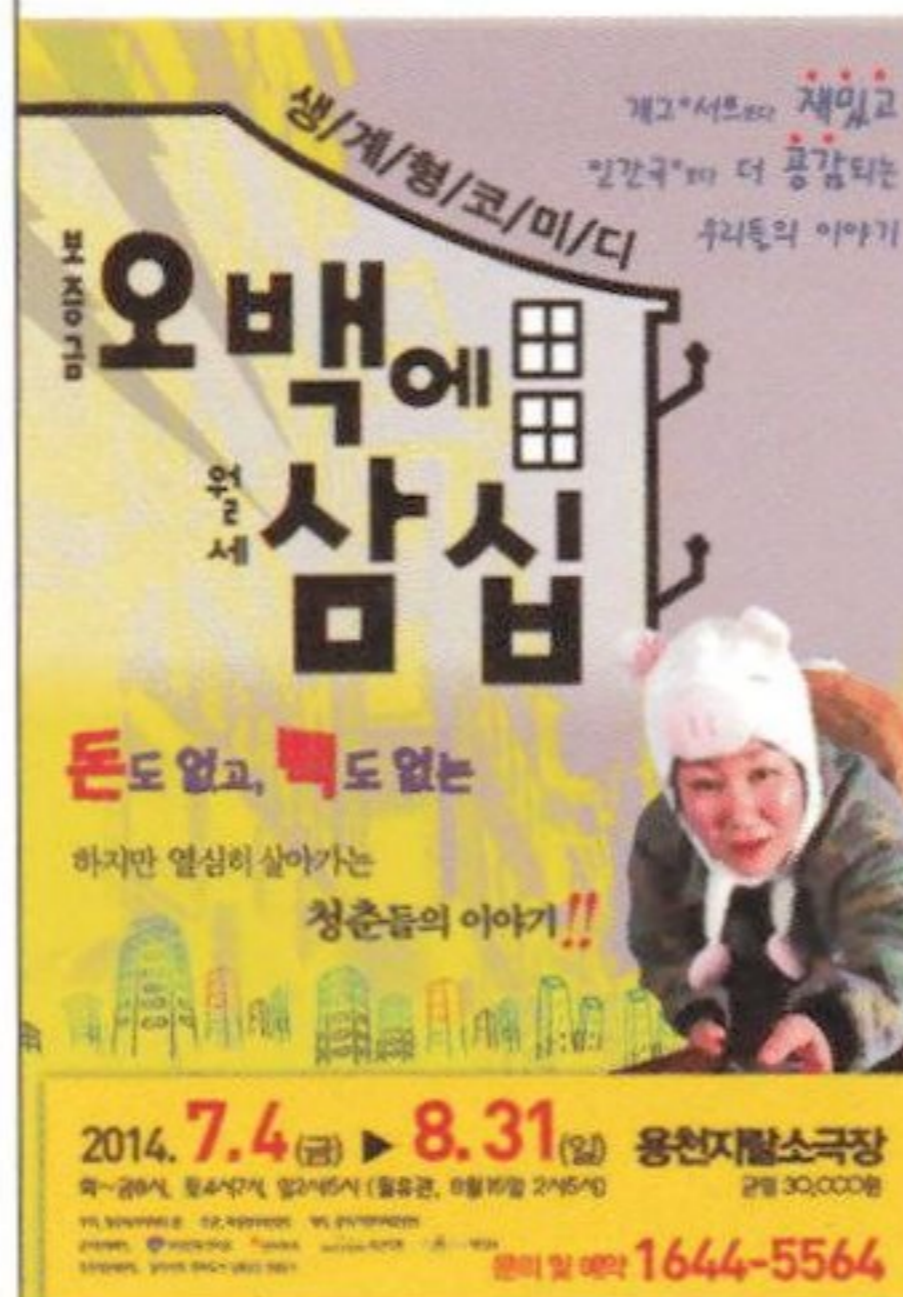
영국 가디언지가 선정한 세계 5대 공포 소설 중 하나인 수전 힐의 동명소설을 각색한 연극 '우먼 인 블랙'. 1987년 초연된 후 지금까지 800만 관객 돌파, 26년째 공연 중인 웨스트엔드 최장기 흥행작으로 그동안 12개 언어로 41개국에서 공연된 '우먼 인 블랙'은 지난 2012년에는 영화 '해리 포터'의 주인공 다니엘 래드클리프가 주인공 역을 맡아 영화로 제작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극중극 형식을 통해 잔인하도록 슬픈 이야기와 숨막히는 긴장감을 전하는 '우먼 인 블랙'은 어떠한 특수 효과도 없이 오로지 빛과 소리,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서만 극적 긴장감을 이끄는 작품으로도 유명하다.

극중극 형식을 통해 잔인하도록 슬픈 이야기와 숨막히는 긴장감을 전하는 '우먼 인 블랙'은 어떠한 특수 효과도 없이 오로지 빛과 소리,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서만 극적 긴장감을 이끄는 작품으로도 유명하다.

생계형 코미디극 **오백에 삼십**

일 시 | 7월 4일(금)-8월 3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 없음)
용천지랄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화랑엔터테인먼트 1644-55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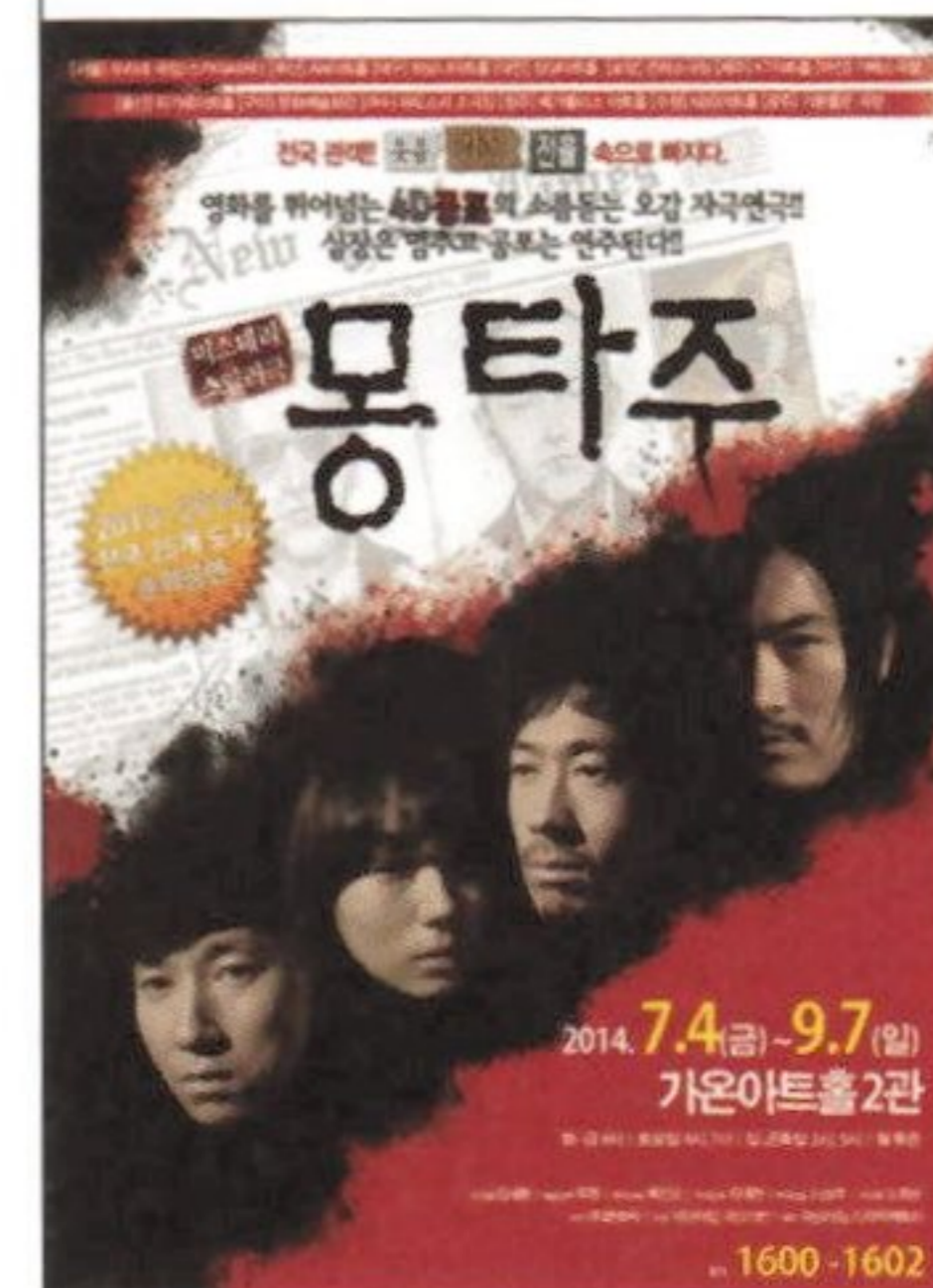
보증금 오백만 원에 월세 삼십만 원 '7평 원룸'에서 생활터전을 꾸려가는 젊은 청춘들의 꿈과 삶을 그린 연극 '오백에 삼십'. 돈 없고 뺨 없어도 열심히 유쾌하게 살아가는 젊은 청춘들이 모여사는 '독자원룸'을 배경으로, 어느날 원룸에 의문의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벌어지는 헤프닝을 코믹하게 풀어낸 '오백에 삼십'은 남녀노소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주제에 뛰어난 연기력으로 무장한 개성 강한 캐릭터가 더해져 관객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준다.

의문의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벌어지는 헤프닝을 코믹하게 풀어낸 '오백에 삼십'은 남녀노소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주제에 뛰어난 연기력으로 무장한 개성 강한 캐릭터가 더해져 관객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준다.

• 작, 연출/박진영

연극 **몽타주**

일 시 | 7월 4일(금)-9월 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 없음)
가온아트홀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60%, 주말 50% 할인)
문 의 | SM기획 1600-1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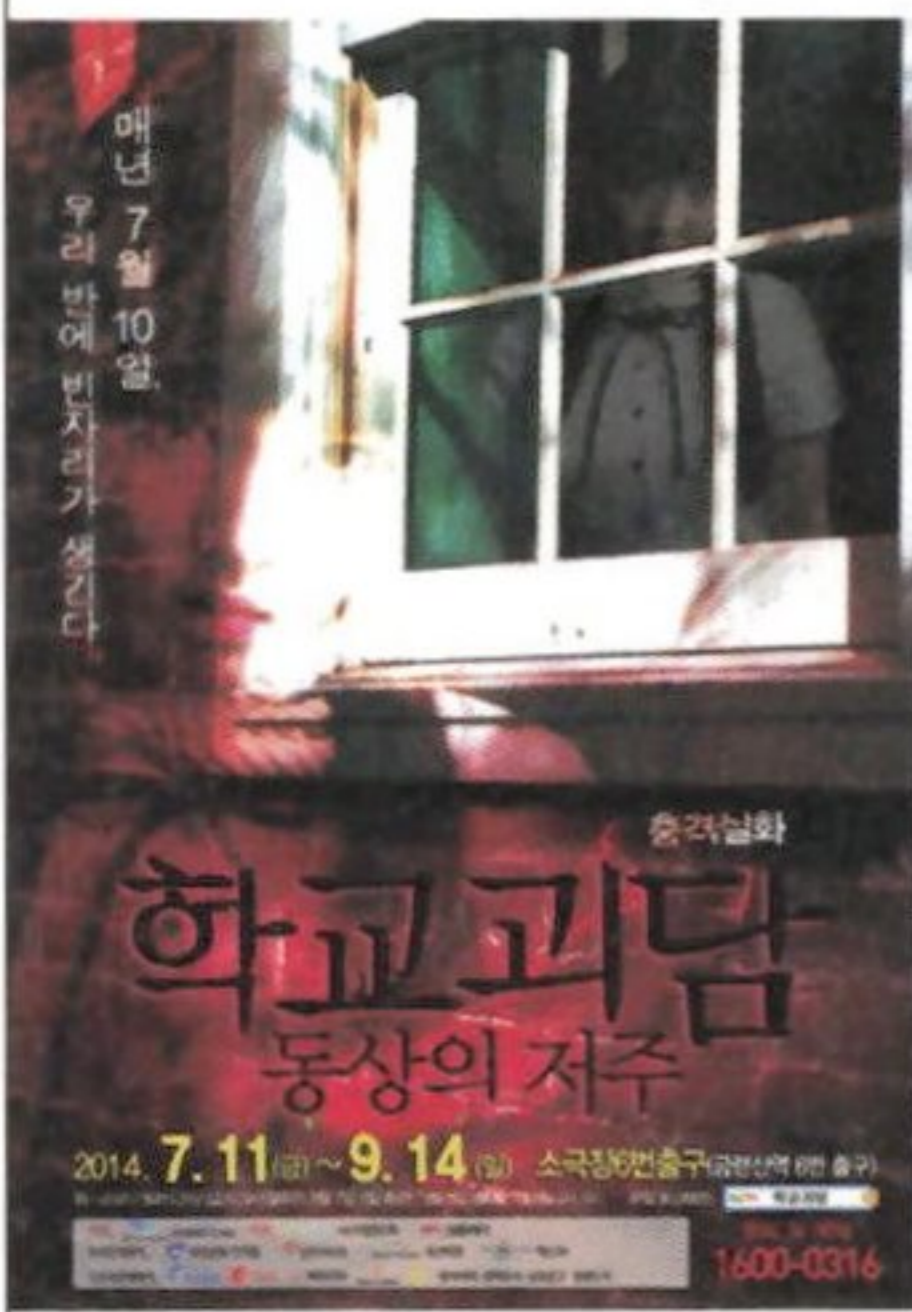
지난 2008년 한국 최초의 추리소설인 이해조의 '쌍옥적(1908년)' 탄생과 한국추리 문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완성한 전격 추리연극 '몽타주'. 퍼즐처럼 교묘하게 얽혀있는 미스터리한 사건을 중심으로 마치 추리소설을 읽는 듯한 사실적이면서도 박진감 넘치게 펼쳐지는 연극 '몽타주'는 아버지를 죽인 연쇄살인범을 쫓기 위해 천재적인 몽타주 화가로 성장한 서정민과 연쇄살인범 유희준, 연쇄살인범으로부터 서정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강력반 형사 조상철과 서정민의 친오빠 서정훈의 치밀한 추리게임을 그린 작품이다.

실적이면서도 박진감 넘치게 펼쳐지는 연극 '몽타주'는 아버지를 죽인 연쇄살인범을 쫓기 위해 천재적인 몽타주 화가로 성장한 서정민과 연쇄살인범 유희준, 연쇄살인범으로부터 서정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강력반 형사 조상철과 서정민의 친오빠 서정훈의 치밀한 추리게임을 그린 작품이다.

프로그램
가이드

실화연극 **학교괴담-동상의 저주**

일 시 | 7월 11일(금)-9월 14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
(9/7-8일, 월요일 공연 없음) 소극장 6번출구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의 | 플레이어 부산 1600-0316



교내에서 발생한 반복적인 자살 사건을 학교 이미지에 피해가 간다는 이유로 은폐한 명문 여고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공포극 '학교괴담-동상의 저주'. 서울의 한 명문여고를 배경으로 매년 같은날 학생들의 자살이 일어나지만 학교에서 수사는 커녕 사건을 은폐하려고만 하고, 동상의 저주라 불리는 의문 속에 20번째 희생자가 나타날 날이 서서히 다가오는데... 익숙한 존재이기만 했던 학교의 스산한 모습이 관객들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강렬한 음향효과가 극적 긴장감을 한층 높여준다.

공포심리스릴러극 **흉터**

일 시 | 7월 16일(수)-8월 24일(일) 평일 오후 7:30, 9:30, 토·공휴일 오후 5:00, 7:00, 9:0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 없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스타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588-27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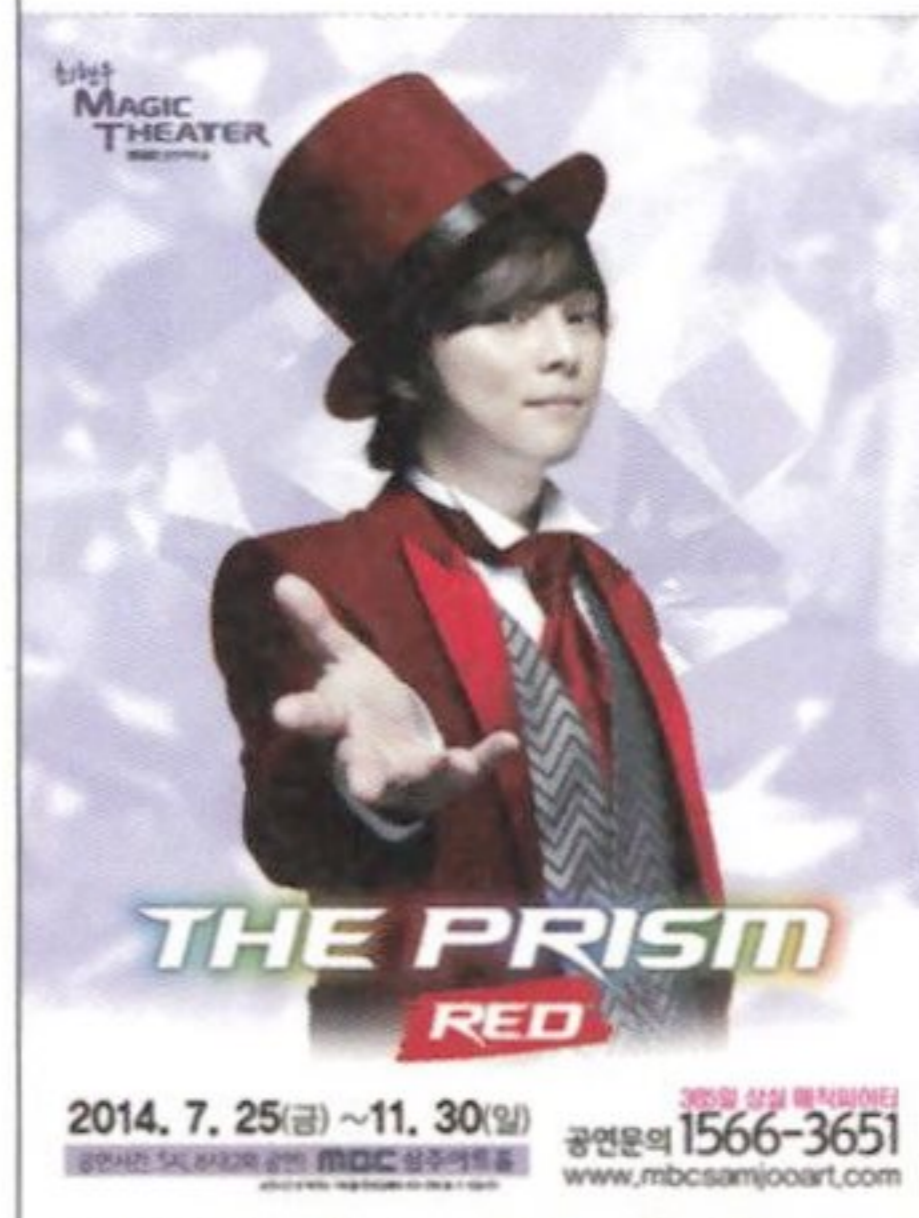


과거의 끔찍했던 사고의 기억을 지워버린 남자와 과거의 끔찍했던 사고로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남자, 같은 사건 그러나 다른 상처를 지닌 두 남자의 팽팽한 심리전을 통해 순도 100% 리얼 공포를 선사하는 공포심리스릴러 연극 '흉터'.

대학시절부터 사랑과 우정을 이어온 동훈, 재용, 지은은 복잡미묘한 관계 속에서 등산을 가던 중 갑자기 지은이 돌연사하게 된다. 8년 후 두 친구는 지은이 죽은 그 산을 다시 찾게 되고 과거의 사건을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진다.
•작, 연출/석봉준
•출연/박미리, 배진범, 석봉준, 백슬아, 이종환, 김영진

최현우매직씨어터 MBC삼주아트홀 상설공연
더 프리즘:레드

일 시 | 7월 25일(금)-11월 30일(일) 오후 5:00, 8:00
MBC삼주아트홀
입장료 | 일반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학생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의 | 최현우매직씨어터 MBC삼주아트홀 1566-36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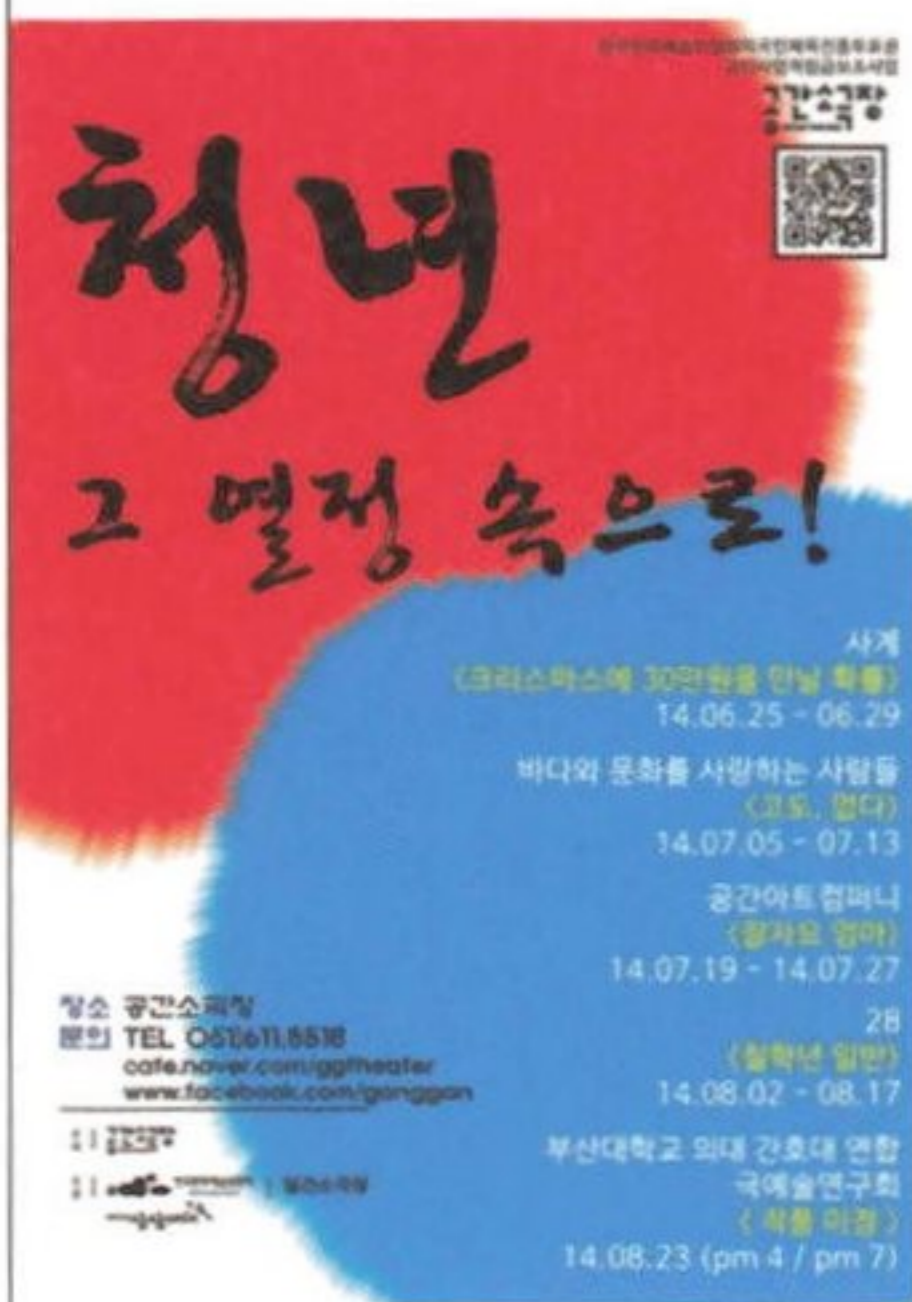


국내 유일의 상설 매직씨어터로 문을 연 최현우매직씨어터 MBC삼주아트홀 상설공연 '더 프리즘:레드'. 국내 최고의 마술사 최현우가 직접 만들고 출연하는 매직쇼 '더 프리즘:레드'는 화려한 무대 연출과 놀라운 마술로 관객들과 만난다.

'더 프리즘:레드'는 하나의 빛이 다양한 색깔로 표현되는 프리즘처럼 하나의 사물을 다양한 각도로 보아 시각적 상상력을 창조해내는 공연예술로, 대형 일루전 마술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멘탈매직이 함께 선보이는 관객참여형 공연이다.

2014 청년 그 열정 속으로
극단 28 **칠학년 일반**

일 시 | 8월 2일(토)-17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 공간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공간소극장 611-6518



공간소극장이 부산의 젊은 연극인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한 특별한 무대 '청년 그 열정 속으로' 2014년 무대 마지막 작품 '칠학년 일반'. 까랑까랑한 목소리에 맞추어 각자의 소리를 내는 합창, 줄업을 앞둔 그녀들의 목소리가 교실을 한가득 채운다.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한 만학도 그녀들의 인생 이야기가 유쾌하게 펼쳐지는 '칠학년 일반'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극이다.

- 작, 연출/김지영
- 출연/고미선, 김진주, 전자연, 김수홍

연극 **그해 치네치타의 여름**

일 시 | 8월 5일(화)-30일(토)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4:00(월요일 공연 없음)
하늘바람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극단 아센 504-2544

이탈리아에서 가장 인기있는 여류작가인 나탈리아 긴즈버그의 작품을 원작으로, 3인 3색의 사랑방정식이 빚어내는 격정과 전율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그해 치네치타의 여름'. 사랑의 본질을 오도하는 현대인의 자기 기만적 사랑법을 들추어낸 '그해 치네치타의 여름'은 자유로운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소유욕과 존재욕을 부각시켜 이 시대의 사랑관에 역설적 질문을 던진다.
•작/나탈리아 긴즈버그
•연출/호민
•출연/구민주, 박희진, 호민



박정자의 낭독연극시리즈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일 시 | 8월 12일 화요일 오전 11:00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재)영화의전당 780-60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낭독과 영상, 피아니스트의 라이브 선율로 깊이 있는 낭독무대를 선사할 박정자의 낭독연극시리즈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프랑수아즈 사강의 소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와 이를 원작으로 한 아나톨 리트박의 흑백영화 '굿바이 어게인', 그리고 브람스의 곡을 통해 소설과 영화, 클래식이 하나의 드라마로 연결되는 특별한 무대를 선보일 이번 무대에서는 배우 박정자가 내레이션 통해 사강의 소설 속 '사랑과 인생'을 소재로, 고독에 몸부림친 소설가 사강과 외로운 삶을 보낸 브람스를 이야기한다.



연극 곤자고

일 시 | 8월 13일(수)-31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30
일·공휴일 오후 5:00 **한결아트홀**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한결아트홀 1588-9155



햄릿의 극중극 '곤자고'의 시역'을 소재로 한 연극 '곤자고'. 선왕의 죽음에 의구심을 품던 햄릿은 선왕의 유령을 목격하면서 연극을 통해 그 사실을 공개하려 하고 한동안 유랑극단을 섭외한다. 햄릿으로부터 왕과 왕비의 관계, 선왕의 죽음을 담고 있는 대본 '곤자고의 죽음'을 받은 극단 단원들은 목숨을 건 공연을 준비하는데... 연극 '곤자고'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 오늘날, 부딪혀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맞서 싸울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자신의 신념과 마음가짐을 이야기한다.

- 예술감독/양지웅 • 연출/안인석
- 출연/성주원, 이한, 윤이창, 이진한, 김경민, 권상우, 국민용, 정아영, 홍수민

극단 사계 제75회 정기공연 **낭만 수사실**

일 시 | 8월 27일(수)-9월 14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4:00
(월요일, 9/7-8일 공연 없음) **공간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공간소극장 611-8518

재일교포 작가 김봉웅의 '아타미 살인사건'을 원작으로, 작품 배경을 광안리 바닷가로 각색하고 추억의 가요를 접목시켜 부산 관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변안극 '낭만 수사실'. 실제와 상관없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목적과 이데올로기를 위해 사건을 포장하며 그 본질을 가리기 위해 급급하는 우리 현실을 유쾌하게 그려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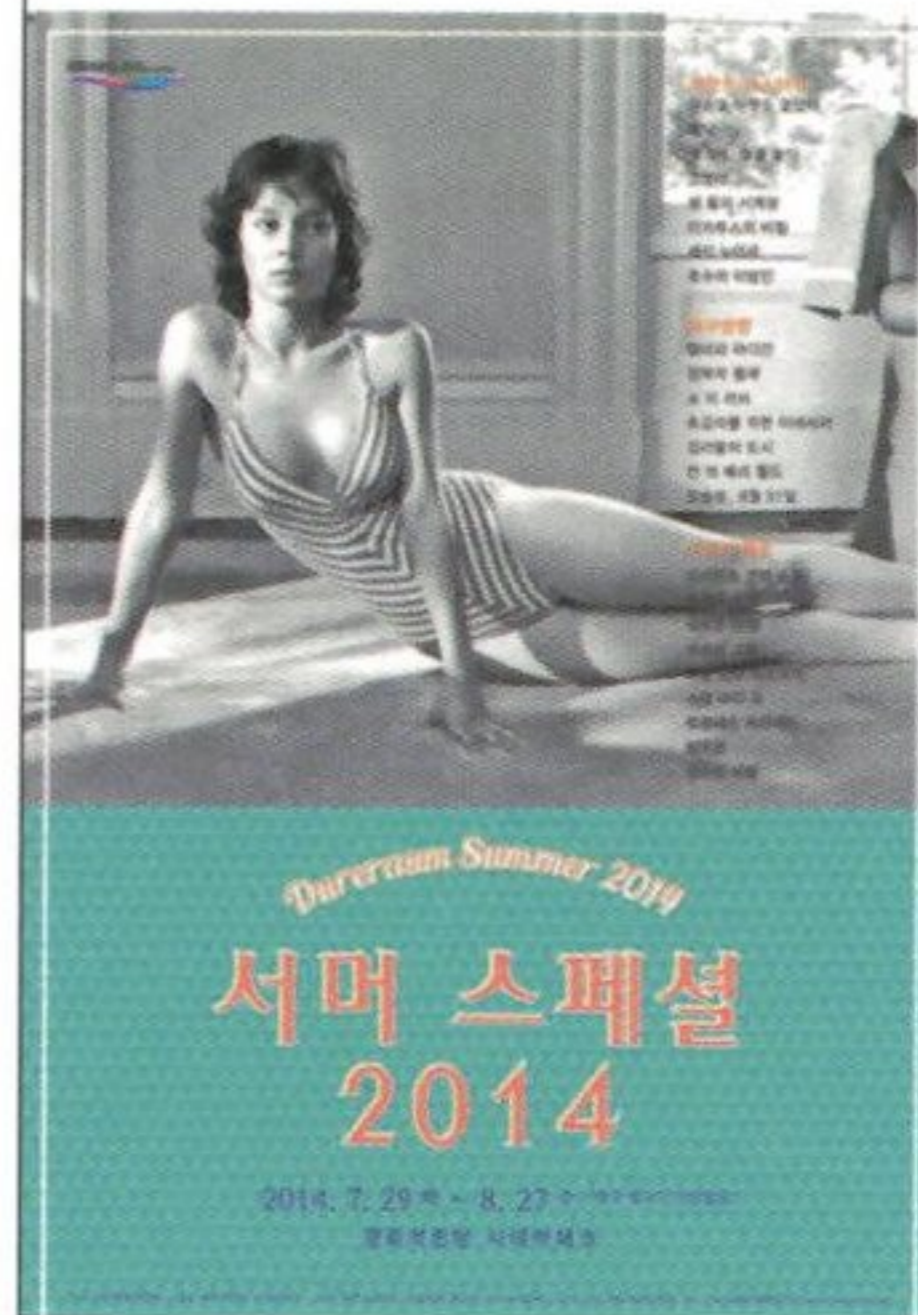
- 원작/김봉웅
- 연출/김만중
- 예술감독/허영길
- 출연/강혜경, 이영봉, 김정환



영화

서머 스페셜 2014 **Dureraum Summer 2014**

일 시 | 7월 29일(화)-8월 27일(수)(월요일 상영 없음)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입장료 | 일반 6천원, 경로, 청소년 4천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00, 6080
www.dureraum.org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영화로 떠나는 특별한 휴가 두레라움 서머 2014. 뽀빠이 깊이 긴장하게 만드는 추리소설의 여왕 애거서 크리스티, 심리 추리소설의 대가 조르주 심농의 소설을 스크린으로 옮긴, 눈으로 보는 추리소설들을 만나는 프렌치 미스터리,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의 영화들을 만나는 북구(北歐)방향, 1980년대 할리우드 멜로영화의 진수를 선사하는 마음의 행로까지, 세 가지 주제로 묶인 다양한 영화들이 상영된다.

2014 영화의전당 야외상영회

일 시 | 8월 13일(수), 20일(수) 오후 8:00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00



국내 최대 야외스크린에서 펼쳐지는 명작영화의 감동 2014 영화의전당 야외상영회. 8월에는 소리는 침묵이 되고 빛은 어둠이 되던 시절,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한 소녀의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인도영화 '블랙'과 2011년 칸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한 다르덴형제 감독의 '자전거 탄 소년'을 상영한다.

13일 블랙(감독/산제이 릴라 반살리, 상영시간 124분, 인도, 전체 관람가)
20일 자전거 탄 소년(감독/장-피에르 다르덴,뤽 다르덴, 상영시간 87분, 벨기에/프랑스, 12세 관람가)

콘서트

제19회 부산바다축제 **2014 열린바다 열린음악회**

일 시 | 8월 6일 수요일 오후 7:30
해운대해수욕장 특설무대
입장료 | 무료
문 의 | 국제신문 문화사업국 500-5222

제19회 부산바다축제의 하이라이트 무대로, 한 여름밤 무더위를 날려줄 고품격 해변콘서트 '열린바다 열린음악회'. 이번 음악회에서는 가수 김태우, 서문탁, 뮤지컬 배우 윤희석, 소프라노 김정미가 출연, 휴가철 부산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

- 진행/윤희석
- 연주/라이브 세션팀



Space UM 특별기획 와인과 함께하는 하우스 콘서트 **싱어송라이터 이효정, Jazz의 맛**

일 시 | 8월 8일 금요일 저녁 8:00
스페이스움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와인과 음료, 다과 포함)
문 의 | 스페이스움 557-3369



이르지 않은 나이에 유학길에 올라 자신만의 음악적 세계를 구축해 온 싱어송라이터 이효정이 지난 6월 발매한 데뷔 앨범의 쇼케이스 무대이자 재즈와 와인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싱어송라이터 이효정, Jazz의 맛'. 그녀만의 음악적 색깔이 묻어나는 자작곡 8곡과 4곡의 재즈 스탠다드가 담긴 이번 앨범은 뉴욕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뮤지션들이 참여해 완성도 높은 연주를 선보였다.

프로그램
프로필, Work Song, 유토피아에서 온 남자, 소금꽃 나무, Come Rain or Come Shine, 파업, O Pato, 상처난 손가락, 소주, Lost Mind, Angel Eyes, 보헤미안처럼

프로그램
가이드

행사

이영란의 밀가루 체험놀이 **가루야 가루야**

일 시 | 7월 5일(토)~8월 31일(일)
영화의전당 비프힐(월요일 휴관)
입장료 | 어린이 2만 3천원, 어른 1만 7천원
(2개월 이상 입장)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134

하얀 밀가루 속에서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느끼는 오감만족 체험놀이 '가루야 가루야'.

2014 제14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연극, 소통하고 치유하라

일 시 | 7월 26일(토)~8월 10일(일)
밀양연극촌
입장료 |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원
(단, 상벽극장 공연은 지정석 3만원, 자유석 2만원, 솟대마당 공연은 무료)
문 의 | (사)밀양연극촌 055-355-2308
www.stt1986.com/STT_NEW/new

다양한 전통연희양식 및 원형 그대로의 모습과 동시대 극양식으로 재창조된 공연을 함께 만나볼 수 있는



2014 제14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올해로 14회를 맞는 이번 무대에서는 개막 초청공연 '벽 속의 요정'을 비롯해 가족극, 세익스피어주간, 초청공연, 기획공연, 대학극전, 솟대마당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총 42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세익스피어 탄생 450주년을 맞아 마련된 '세익스피어주간'에서는 세익스피어와 삼국유사를 접목한 오태석의 '템페스트', 세익스피어 작품 37편을 압축한 '세익스피어의 모든 것', 연출가 박근형, 양정웅의 각각 다른 '로미오와 줄리엣' 등 4편의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이밖에 동화작가 안데르센을 국내 최초로 연극무대로 선보이는 연희단거리패 '안데르센', 2014 이베로아메리카노 페스티벌 공식초청작 '피의 결혼', 대구 수성아트피아 제작 오페라 '토스카' 등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무지크바움 **클래식과 재즈의 만남**

일 시 | 8월 9일 토요일 오후 5: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 1부 프로그램
 - 마스카니,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2009년 취리히 오페라 하우스 실황
 - 다닐로 레아, '리리쿠' 등 대표음악 소개
 - 스테파노 디 바티스타, 2013년 프랑스 쿠탕스 공연 실황
- 2부 프로그램
 - 게리버튼 & 칙코리아, 1997 몽트뢰 공연 및 게리버튼의 음악소개
 - 데이빗 가렛, 2010 락심포니(오픈에어) 공연
 - 기획 및 진행/손명균, 박형석



2014 마스터피스 여름음악캠프

일 시 | 8월 18일(월)~21일(목) Kiswire센터
문 의 | 마스터피스 622-6047
cafe.naver.com/masterpicemusiccamp

국내 최고의 교수진 공개레슨과 강사들의 1:1 개인레슨, 오페라클래스, 발성&호흡법, 작곡가별 피아노 연주 스타일 분석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펼쳐지는 마스터피스 여름음악캠프.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 교수로 있는 소프라노 김영미를 비롯해 연세대학교 교수인 피아니스트 한영란, 바이올리니스트 조영미, 창신대학교 교수인 바리톤 최강지 등이 교수진으로 참가한다.
• 접수기간/7월 1일(화)~8월 10일(일)

제2회 동호 김종근 시인
독도사랑문학상 및
제4차 독도사랑 詩낭송대회,
우수작품 시상식

일 시 | 8월 26일 화요일 오후 6:3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 의 | 회장 안태봉 017-552-0626

제2회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웃음이 희망이다

일 시 | 8월 29일(금)~9월 1일(일)
영화의전당 외 부산 전역
문 의 |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ww.bicf.co.kr



2013년 아시아 최초로 개최되어 화제가 되었던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2014년 무대로 스위스, 프랑스, 영국, 호주 등 7개국 11팀이 참가, 웃음 퍼레이드를 펼친다.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해 '부산바다 상(국내 최우수 공연)'을 수상하고 멜버른 코미디페스티벌에서 성황리에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웅알스와 코미디 프로그램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개그콘서트'팀, 극작가로 변신한 심진화와 훈남 개그맨 김원호, 이광섭이 다년간 심혈을 기울인 소박하고 씩씩한 연극 '대박포차' 등 국내팀과 부모와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6D(3D보다 2배로 끝내주는)', 입에 테이프를 붙인 채 도구와 몸짓으로 소통하는 'Tape Face', 익살스러운 음악에 드라마틱한 팬터마임을 보여줄 '몽트뢰 코미디@부산' 등 해외팀들이 부산을 찾는다.

전시

2014년도 제2회 신수유물소개전

일 시 | 5월 27일(화)~8월 24일(일)
부산박물관 기증전시실
문 의 | 부산박물관 610-7111
청동기시대 돌칼(磨製石劍), 삼국시대 두귀달린항아리(兩耳附壺), 고려시대 청자화형대접(靑磁花形大椀), 조선시대 백자청화초화문병(白磁靑華草花文瓶) 등 故 김현철 선생의 기증유물 30여 점 중 15점이 공개된다.

역사의 대동맥 **영남대로 嶺南大路**

일 시 | 6월 16일(월)~8월 10일(일)
부산박물관 기획전시실
문 의 | 부산박물관 610-7111
조선시대 동래에서 한양에 이르는 옛길인 영남대로(嶺南大路)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해보는 특별기획전으로, '대동여지지도'를 비롯해 보부상 유물인 '인계, 상무인(중요민속문화재 제30-3호)', '이익양필 산수도(부산시 지정유형문화재 제79호)', 김홍도 '행려풍속도병', 김준근 '기산풍속도첩' 등 200여 점 전시.

Ken Done 캔 던 개인전

일 시 | 7월 4일(금)-8월 17일(일)
조현화랑 부산, 갤러리 다운타운
문의 | 조현화랑 부산 747-8853
갤러리 다운타운 746-8353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공식 엠블럼 디자인을 비롯해 예술, 디자인, 관광분야에 있어 국가훈장을 받으며 호주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린 호주의 대표적인 현대작가 캔 던 작품전. 호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풍부한 색감으로 표현한 그의 작품은 호주 특유의 이미지를 가장 잘 반영하면서 그를 호주의 국민작가로 불리게 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그의 최근작을 중심으로 회화 16여 점과 판화 14점이 조현화랑 부산과 갤러리 다운타운에서 각각 소개된다.



갤러리나무 초대기획전

이상적 현실

-강민석, 김경남, 김봉수, 박순남

일 시 | 7월 22일(화)-8월 8일(금)
갤러리나무
문의 | 갤러리나무 242-5123

여름방학 특별전

'마우리 시우 지 소유자'展

일 시 | 7월 24일(목)-8월 18일(월)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의 |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아이들을 위한 만화책과 다양한 만화 캐릭터로 브라질에서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브라질의 만

화거장 '마우리 시우 지 소유자' 특별전. 마우리 시우 지 소유자의 다양한 아트상품과 원화, 조각작품을 선보인다.

Eco movement 단체전 지구를 생각하다

일 시 | 7월 14일(월)-8월 2일(토)
스페이스 움
문의 | 스페이스 움 557-3369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담은 환경 작품전. 녹아내리는 북극 빙하와 그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북극곰의 모습을 소이 왁스 캔들로 표현한 강순구, 생활 속 버려진 재료를 이용해 우리들의 모습을 나타낸 김정주, 그리고 김보경, 박일환, 김보라의 작품이 전시된다.



강순구 작

하비에 그라나도스 전

일 시 | 7월 15일(화)-8월 29일(금)
갤러리 아인
문의 | 갤러리 아인 747-2612

다채로운 칼라와 낙천주의적 유머 감각을 통한 여성의 일상과 심리를 작품 속에 담아온 스페인 작가 하비에 그라나도스 작품전.

넘치는 생명력과 사랑스러우며 유쾌한 표정으로 지루한 우리들의 일상에 웃음과 활기를 불어 넣어주는 이번 전시에서는 특히 '개구리왕자' '잠자는 숲속의 공주' 등 동화 속 영원한 사랑을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인다.

사진작가 조습 개인전 일식

일 시 | 7월 16일(수)-8월 14일(목)
예술지구_P
문의 | 예술지구_P 070-4322-3798~9

야만적 현실을 특유의 유머와 아유가 뒤섞인 화면으로 표현해온 사진작가 조습의 개인전.



이이남展

Goodnight Analog, Goodmorning Digital

일 시 | 7월 25일(금)-8월 28일(목)
소울아트스페이스
문의 | 소울아트스페이스 731-5878

전국지역문화잡지연대 기획사진전 촌스럽네-겉

일 시 | 8월 1일(금)-8월 12일(화)
부산진구청 백양홀 갤러리
문의 | 함께가는 예술인 807-0490~1

함께가는 예술인(부산), 전라도닷컴(광주), 월간 토마토(대전), 골목잡지 사이다(수원), 월간 옐로우(인천) 등 각 지역에서 발간되는 문화예술 잡지사들로 구성된 '전국지역문화잡지연대' 주최로 진행되는 전국순회 사진전.



'南道の墨香'展

일 시 | 8월 1일(금)-8월 30일(토)
타워갤러리
문의 | 타워갤러리 464-3939

남종화의 거장 소치 허련, 미산 허형, 남농 허건, 임전 허문, 의재 허백련, 아산 조방원 등 운림산방 4대와 의재, 그리고 그 맥을 이어오고 있는 문하생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남도의 묵향'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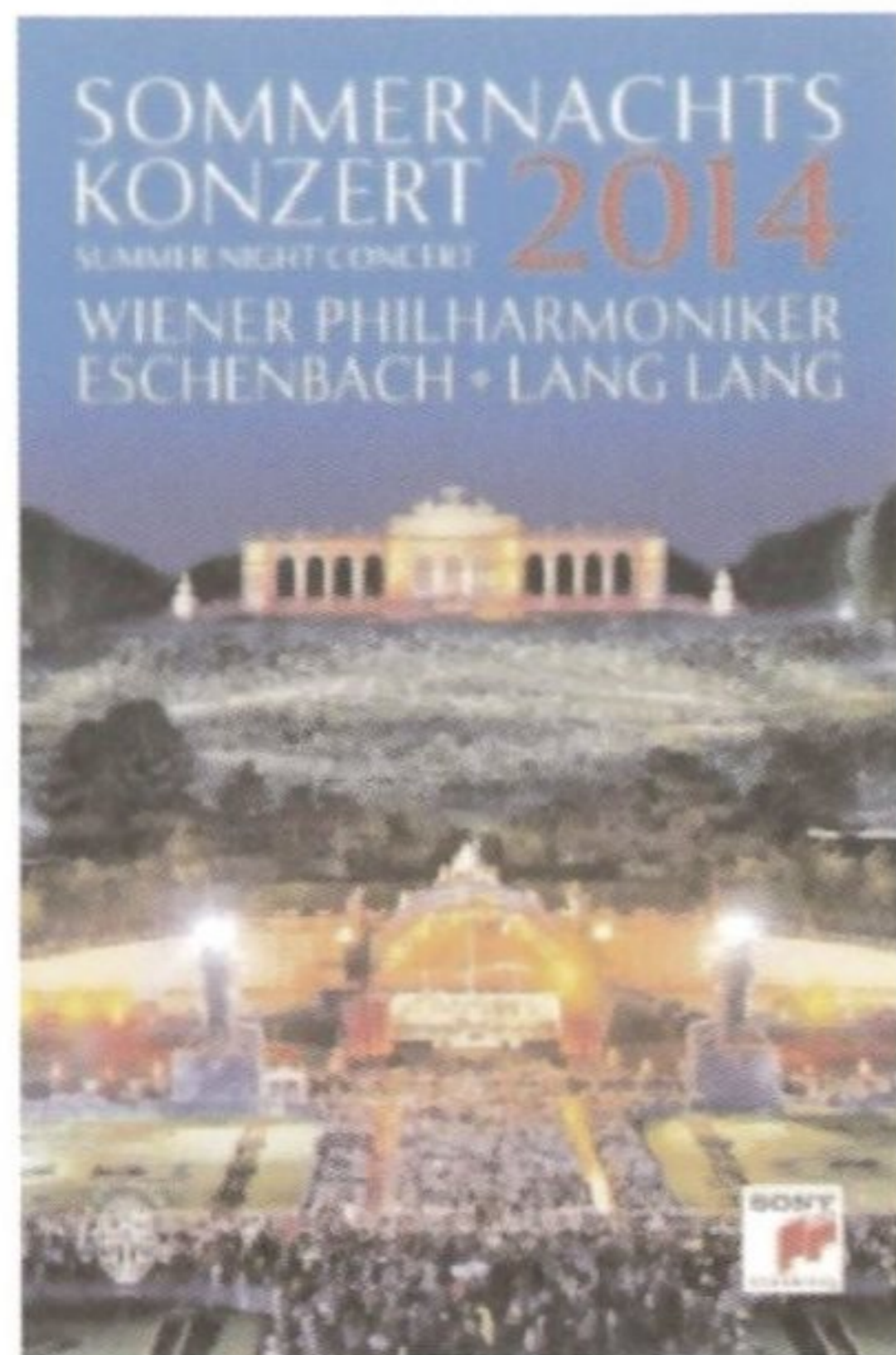


맥화랑

10-100, 행복한 그림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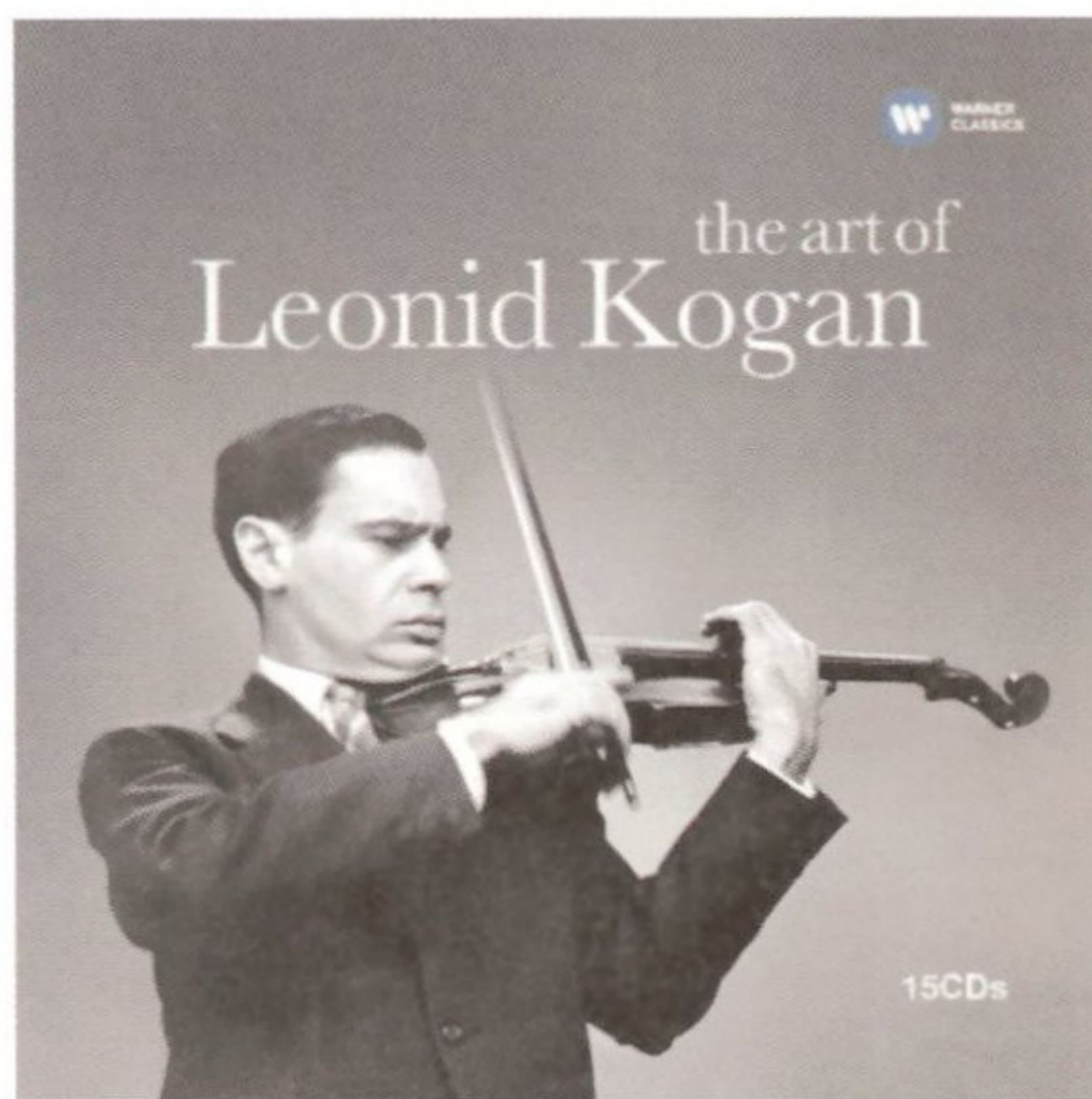
일 시 | 8월 7일(목)-8월 24일(일)
맥화랑
문의 | 맥화랑 722-2201

New Album... GM뮤직 제공



세계 최대 규모의 클래식 야외 콘서트 빈필하모닉 신브룬 썸머콘서트

빈필하모닉의 신브룬 썸머콘서트는 2008년 이후 매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으로 로코코 양식의 최대 걸작이라 불리는 오스트리아 신브룬 궁전 (Schönbrunn Palace) 공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클래식 야외 콘서트이다. 올해는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5월 말인 2014년 5월 29일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지휘, 빈필하모닉 연주, 피아니스트 랑랑의 협연으로 펼쳐졌다. 4만여 명이 지켜본 가운데 열린 이번 음악회에서는 독일 작곡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슈트라우스의 작품과 그가 좋아했던 두 작곡가 베를리오즈와 리스트의 곡이 연주되었다.



레오니드 코간 - The Art of Leonid Kogan (15 CDs)

다비드 오이스트라흐와 함께 20세기 러시아-소련 바이올린 악파를 대표했던 위대한 거장, 레오니드 코간(Leonid Kogan)이 전성기였던 1955년~63년에 걸쳐 EMI에 남겼던 모든 녹음을 한 데 모은 기념비적인 음반이다. 서늘한 느낌이 들 정도로 맑고 투명한 음색과 강렬한 집중력, 흠 없는 인토네이션과 보잉 테크닉으로 무장한 코간의 바이올린 연주는 19세기 후반 이후 러시아-아우어 악파가 이룩한 궁극의 경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코간은 1951년 이자이(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이후 서방 세계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1950~60년대 서유럽 무대에 설 때마다 런던과 파리에서 만든 EMI 녹음들은 바이올린 연주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빛나는 유산으로 손꼽히고 있다. 오랫동안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으며 LP 수집가들의 표적이 되었던 랄로 '스페인 교향곡'과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을 비롯해서 베토벤, 모차르트(3번, 5번), 멘델스존, 파가니니(1번), 바흐 협주곡이 수록되었으며 부인 엘리자베타 길렐스와 함께 연주한 바흐 두 대의 바이올린 협주곡 및 소나타와 소품 등 EMI 시절 녹음을 총망라했다. 랄로, 모차르트 3번, 브람스, 차이코프스키, 베토벤 협주곡은 모노 녹음과 스테레오 재녹음이 모두 수록되었으며, 특히 베토벤 협주곡 모노 녹음은 EMI 최초의 발매음반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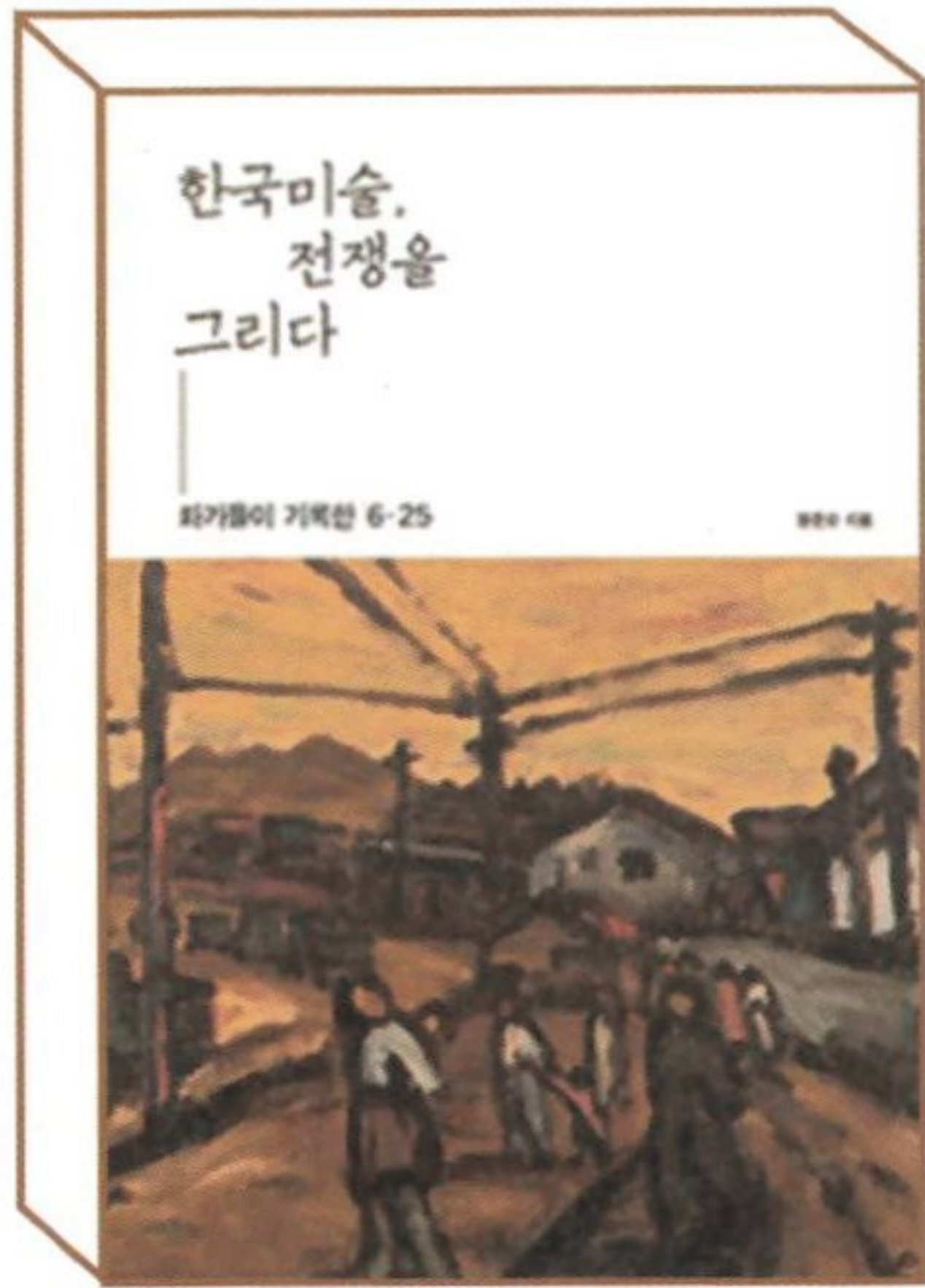
앙리 오네거의 베토벤 첼로 소나타 1, 4, 5번 (LP 복각 시리즈, Analogue Collector)

2013년 처음으로 세상에 소개된 스위스의 명첼리스트 앙리 오네거의 베토벤 첼로 소나타 1, 4, 5번 녹음 LP가 부활했다. 2013년에 처음으로 이베이 경매 사이트에 소개된 이후, 매년 국제시세가 치솟고 있는 희귀 음원(국제시세 850달러)으로 녹음 당시, 오네거와 노엘 리의 반대로 음반화되지 못했다가, 앙리 오네거 사후에 소량만 제작된 희귀 음반이다. 당시 300장만 제작되어 현재까지 몇 장 남아있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

오네거 특유의 부드러움 보다는 다이내믹이 가득한 힘찬 연주를 들려주며 노엘 리의 명석한 피아노 반주 역시 일품이다. 다만, 첼로 소나타 4번과 5번에서 LP 제작 당시 발생한 마스터 테이프의 열화로 인한 노이즈가 1-2초 가량 존재하지만, 감상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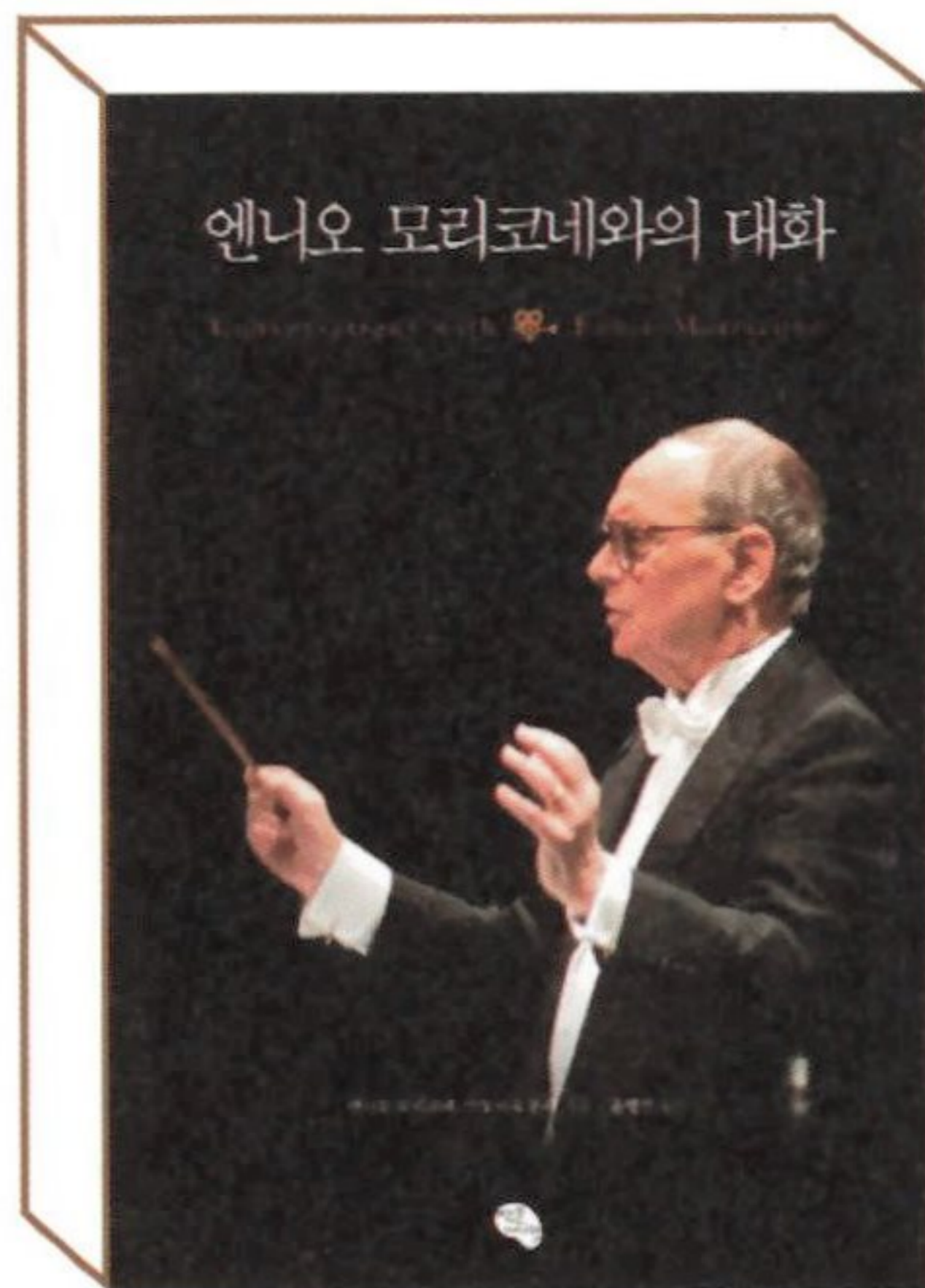
❖ 한국미술, 전쟁을 그리다



정준모 글 / 마로니에북스 / 360p / 1만 6천 원

6.25 전쟁은 한국 현대사에 큰 상처를 남겼고,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정치도 모르고 이데올로기도 모르는 채 광복의 기쁨을 안고 열심히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를 통과하는 동안 말 못할 고통을 겪었다. 어쩌면 남들보다 세상살이에 더 서툴렀을 예술가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야 했을까. 이 책은 6·25 전쟁 당시 우리 화가들의 삶과 작품을 다루고 있다. 6·25전쟁은 한국 근현대미술의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기도 하다.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출신으로 '걸어 다니는 아카이브'로 통하는 정준모 씨가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 묻혀 버린 작품들을 찾아냈다. 엄혹한 시절, 화가들은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 미처 피란을 가지 못하고 서울에 발이 묶였던 화가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김일성 초상화를 그리기도 했다. 부산으로 피란을 간 화가들은 미군들의 초상화를 그려주고, 도자기회사의 장식접시에 그림을 그리며 연명했다. 그런 와중에도 부산의 광복동 다방거리에서는 크고 작은 전시회가 끊이지 않았다. 치열한 전투현장을 화폭에 담은 소임을 맡은 종군화가단에 속한 화가들은 목숨을 잃기도 했다. 그들은 전쟁 속에서도 붓을 멈추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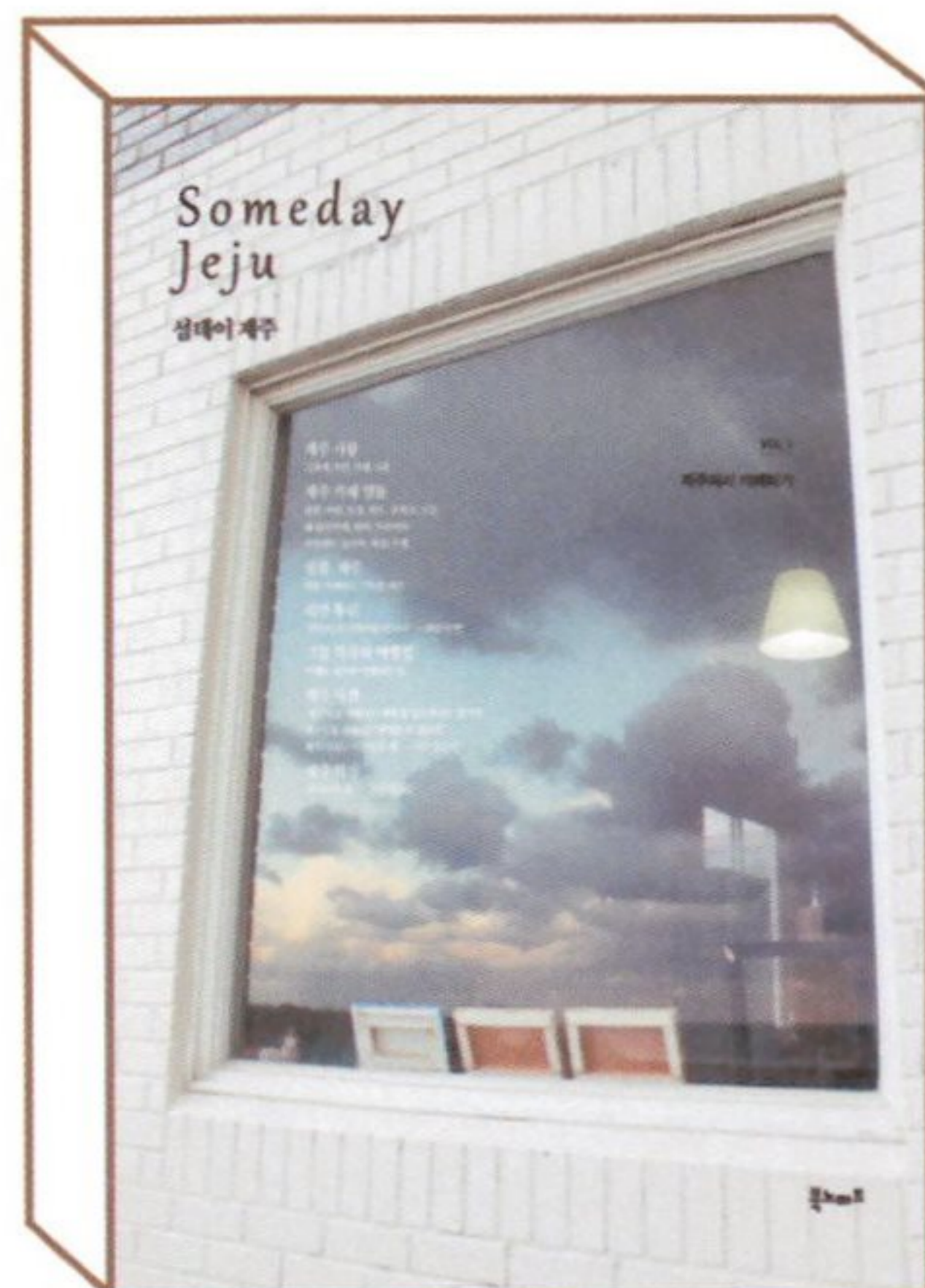
❖ 엔니오 모리코네와의 대화



엔니오 모리코네 · 안토니오 몬다 지음, 윤병언 지음 / 작은씨앗 / 264p / 1만 4천 원

영화 '황야의 무법자'를 생각하면 너른 모래사장에서 바람을 가로지르는 휘파람소리가 먼저 떠오른다. '미션'이라는 제목을 들으면 아마존 강가에 나지막이 울려 퍼지는 꿈결 같은 오보에 멜로디가 들리는 것 같다. 음악 만으로도 아련한 어린 시절을 추억하게 되는 '시네마천국'은 또 어떤가. 수많은 영화와 함께 각인된 그의 음악을 모르는 영화팬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 영화음악을 만든 엔니오 모리코네는 감독이나 배우의 이름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을지도 모른다. 영화팬들은 이렇게 말한다. "모리코네 이전의 영화와, 모리코네 이후의 영화가 있다"고. 모리코네는 영화의 보조적 수단으로 여겨졌던 '영화음악'은 영화를 완성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끌어올렸다. 그는 '보는 영화'에서 '듣는 영화'로 그 영역을 확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르지오 레오네를 비롯해 파솔리니, 베르톨루치, 토르나토레, 폴란스키, 알모도바르 등의 세계적인 영화감독들이 사랑한 작곡가 엔니오 모리코네. 그는 약 450편의 영화음악을 만들어 영화음악사의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이 책은 모리코네가 자신의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화음악 작곡가로서의 삶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생생한 인터뷰다.

❖ Someday Jeju 섬데이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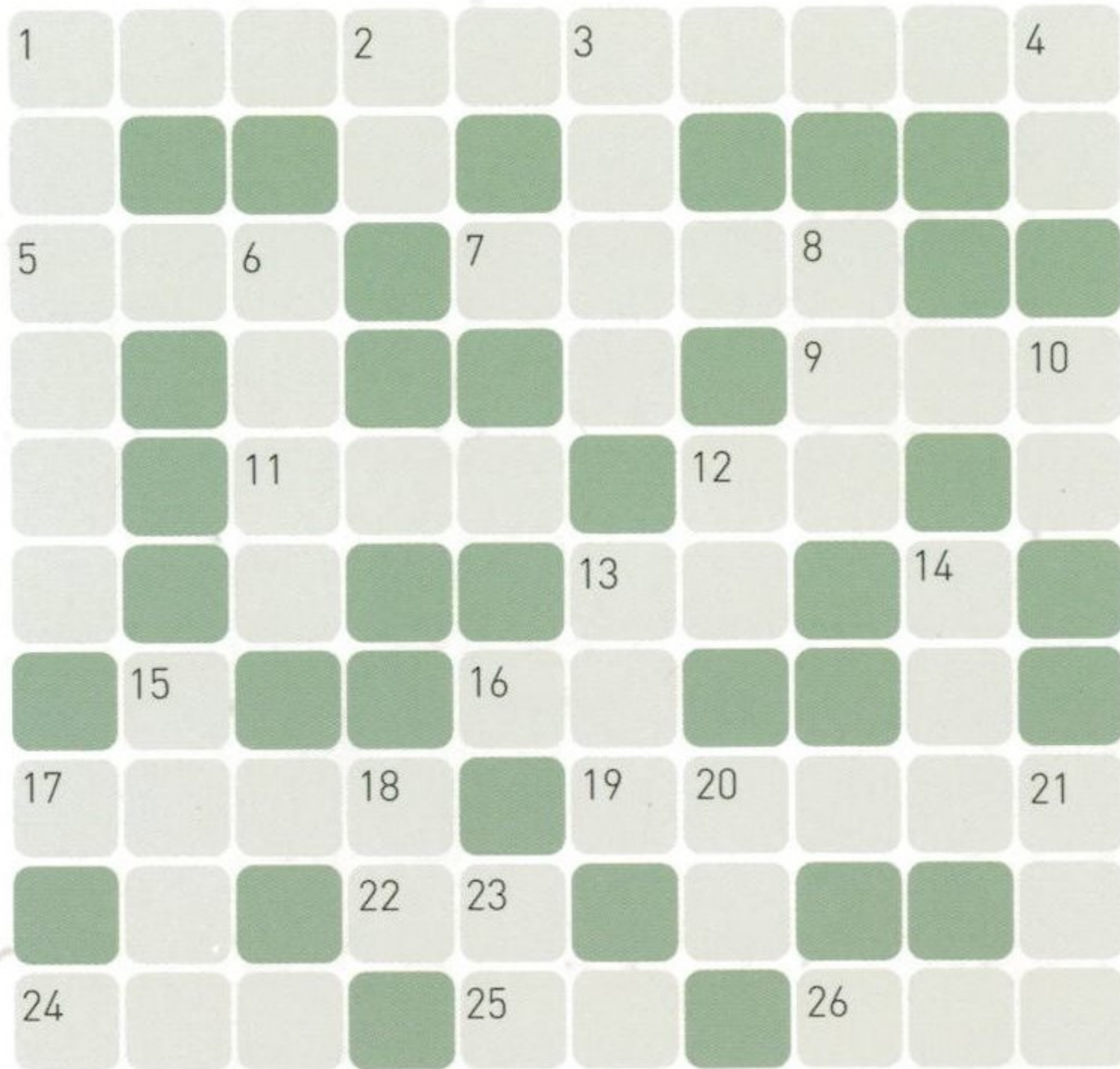


북노마드 편집부 지음 / 북노마드 / 128p / 1만 2천 원

오직 '제주도'만을 이야기하는 제주 여행 무크지가 나왔다. 다양한 주제와 시각으로 제주도를 다룰 계획이다. 1호에서는 제주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육지에서 건너와 조금은 다른 삶을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이른바 '제주 이민자'로 불리는 그들은 같은 곳을 바라보며 치열하게 일하며 제주도에서 살고 있다. 사람들은 흔히 제주도에서 카페를 하는 이들의 일을 낭만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일상 또한 한가로울 것이라며 부러워한다. 하지만 이 책은 '제주에서 카페하기'란 그들의 생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그것은 낭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가졌다는 점에서 충분히 낭만적이다. 세상이 정한, 잘 산다는 것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카페라는 공간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어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책에 있다. 이 책은 단지 제주도에 있는 괜찮은 카페를 소개하는 책이 아니라, 제주에서 카페를 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용기 있는 삶을 담아내는 책이자, 독자에게도 일상을 작파해낼 용기를 선사하는 책이 되어줄 것이다.

스페셜
이벤트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공간소극장 | 051-611-8518
조은극장 | 1588-2757
큰집 | 051-245-3320
문학동네 | 031-955-8869



가로열쇠

- ① 부산문화회관과 지희자 금난새가 이끄는 유라시아 필하모닉이 공동주관하는 실내악페스티벌. 국내외 실력파 연주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8월 28일부터 나흘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 ⑤ 이탈리아 로마 북서부에 있는 가톨릭 교황국. 1929년 라테란(Laterano) 협정을 통해 이탈리아로부터 교황청 주변지역에 대한 주권을 이양받아 안도라, 산마리노와 함께 세계 최소의 독립국이 되었다.
- ⑦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한다는 사자성어.
- ⑨ 물이 담긴 용기에 유성페인트나 유화물감을 떨어뜨리고 살짝 저은 후, 표면에 종이를 대어 찍어내는 미술 표현의 한 기법.
- ⑪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코트에서, 라켓으로 단단한 고무공을 벽에 맞아서 공이 마루에 두 번 튕기기 전에 되받아 치는 구기 경기.
- ⑬ 오리과의 물새로, 몸이 크고 온몸은 순백색이며, 눈 앞쪽에는 노란 피부가 드러나 있고 다리는 검다. 천연기념물 제201-1호로, 흔히 백조로 불린다.
- ⑮ 기원 전후부터 9세기까지 중앙아메리카 과테말라 고지에서 유키탄 반도에 걸쳐 번성한 고대 문명. 13세기 톨테크족 침입과 1532년 에스파냐 침입으로 철저히 파괴되었다.
- ⑯ 경남 함양군 대덕리에 조성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림. 약 1,100년 전인 신라 진성여왕 때 당시 함양태수를 지내던 최치원이 조성한 숲으로, 현재 천연기념물 제154호로 지정되어 있다.
- ⑰ 영국의 작가 조앤 K. 롤링(Joan K. Rowling)이 지은 판타지 소설. 1997년 처음 출간된 후 2007년 전 7권으로 완간되었으며, 지금까지 67개 언어로 번역되어 4억 5천만부 이상 판매되었다.
- ⑲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州)에 있는 도시. 작곡가 바그너가 거주했던 도시로, 그가 직접 설계하여 건립한 축제극장에서는 매년 7월과 8월 국제적인 음악제가 개최된다.
- ㉒ 가짜 또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사이비 등을 뜻하는 미술 용어. 저속한 미술품, 일상적인 예술, 대중 패션 등을 의미하는 폭넓은 용어로 쓰였으며, 오늘날에는 고급문화나 고급예술과는 별개로 대중 속에 뿌리박은 하나의 예술 장르로까지 개념이 확대되어 현대 대중문화·소비문화 시대의 흐름을 형성하는 척도를 제공하기도 한다.
- ㉔ 우리나라 최남단의 섬. 네덜란드의 하멜 일행이 표류하여 도착한 곳으로 유명하다.
- ㉖ 서울에 이어 11월부터 운영되는 00버스. EBS에서 방영 중인 애니메이션 '꼬마버스 00' 캐릭터를 활용한 버스로, 운행중인 서울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 ㉘ 포르투갈의 수도.

세로열쇠

- ① 매년 8월 부산광역시 6개 해수욕장에서 바다를 주제로 펼쳐지는 해양종합관광축제.
- ② 남자들의 우정을 다룬 영화의 총칭. 00는 동료, 형제, 친구를 뜻한다.
- ③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 구텐베르크보다 80년 앞선 현존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 1972년 파리 국립도서관에서 유네스코 주최로 개최한 '책의 역사' 전시회에서 발견되었으며, 현재 파리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 ④ 소설 '태백산맥'의 무대로 알려진 전라남도 보성군 남동부에 있는 읍. 곱하기로 특히 유명하다.
- ⑥ 러시아 태생의 화가. 추상미술의 아버지이자 청기사파의 창시자로 사실적인 형태를 버리고 순수 추상화의 탄생이라는 미술사의 혁명을 이루어냈다.
- ⑧ 산삼을 캐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
- ⑩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남북 전쟁에서 북군을 지도하여 점진적인 노예 해방을 이루었다. 게티즈버그에서 한 연설 중 유명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라는 불멸의 말을 남기기도 했다.
- ⑫ 인상주의와 현대미술의 길을 연 스페인 화가. 평생 동안 1,870점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그림을 남겼는데 그의 작품 중에는 사회를 조롱하고 귀족을 비판하며 인간 내면을 표현한 작품이 많다. 또한 렘브란트와 함께 가장 많은 자화상을 그린 화가 중 한 명으로, 현재 약 20여 점의 자화상이 남아 있다.
- ⑬ 실로폰의 일종인 타악기로, 소리는 부드럽고 풍만한 느낌이다. 독주악기로서는 실로폰보다 많이 쓰인다.
- ⑭ 중국 양쯔강(揚子江) 하구에 있는 중국 최대 도시로, 경제의 중심지이다.
- ⑮ 드랙퀸(여장 남자) 3명의 우정과 가족애를 그린 뮤지컬. 뮤지컬계의 거장 앤드루 로이드 웨버, 할리우드 스타 배트미들러가 직접 제작한 뮤지컬로, 국내에서는 올해 7월 첫 초연무대가 열려 화제가 되었다.
- ⑯ 아시아 대륙 서쪽 끝에 있는 나라. 지리학상으로 동서양의 교차로에 있어 문화가 혼재되어 있다. 수도는 이스탄불.
- ⑰ 논어 '위정편'에서 공자가 서른 살에 지립했다고 한데서 나온 말로, 서른 살을 달리 이르는 말.
- ⑱ 두 개의 'U'자 모양 관을 맞추어 만든 금관 악기. 관을 뽑거나 당기는 슬라이드 장치로 음의 높이를 변화시킨다.
- ㉒ 시속 115km라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

지난호 정답



8월 퍼즐 당첨자

공간소극장 초대권

김민지(연제구 법원북로)
박정수(수영구 구락로)
윤정인(영도구 번영길)
이은진(부산진구 서전로)
함민주(사하구 괴정로)

조은극장 초대권

김광민(사상구 덕상로)
배진수(남구 수영로)
서보원(강서구 명지오션시티로)
이성미(연제구 법원로)
정경숙(동래구 수안로)

큰집 식사권

박경숙(동래구 동래로)
박현정(사상구 엄궁북로)
윤지현(서구 해돋이로)
전점술(연제구 월드컵대로)
최미경(연제구 중앙대로)

섬데이 제주

김재민(동래구 미남로)
김재은(동래구 총렬대로)
김정설(연제구 중앙대로)
이윤희(남구 우암로)
최강현(기장군 차성로)



'명작 오페라속으로'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나는 음악평론가 장일범

4월부터 매주 토요일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토요일감놀이터 '얼씨구樂'을 시작으로 부산문화회관 아카데미 사업의 시작을 알린 부산문화회관에서는 하반기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부산 시민들과 만날 계획이다.

8월에는 영산대학교 이연기 교수가 진행하는 어린이 오페라교실, 9월에는 KBS-FM 가정음악 진행자 장일범의 '오페라 명작 속으로', 성악가 오동주의 '가곡교실'을 신설, 부산시민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어린이 오페라교실'은 오페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오페라의 역사, 오페라 감상법, 애니메이션 오페라 감상, 오페라 친구 뮤지컬 체험, 분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이 어렵고 생소한 오페라와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장일범의 '명작 오페라 속으로'는 최고의 진행, 해설로 사랑 받고 있는 음악평론가

❖ 하반기 부산문화회관 아카데미 본격 가동 어린이 오페라교실, 장일범 '명작 오페라 속으로' 오동주 '가곡교실' 신설

장일범이 부산에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하반기 10회에 걸쳐 명작 오페라 이해를 돕는 품격높은 명강의를 선사한다. 이번에 만나는 프로그램은 차이콥스키 '예브게니 오네긴', 도니제티 '사랑의 묘약', 푸치니 '마담 버터플라이(나비 부인)', 레온카발로 '팔리아치(광대들)', 마스카니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모차르트 '돈 조반니',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장미의 기사', 도니제티 '돈 파스칼레', 레하르 '즐거운 미망인', 요한 슈트라우스 '박쥐'.

성악가 오동주가 진행하는 '가곡교실'은 발성의 기초와 실습, 호흡법, 여러 가지 발성테크닉 등의 교육을 통해 아름다운 감성의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를 직접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아! 가을인가, 산들바람, 내마음 깊은 곳에, 떠나가는 배 등을 함께 배워본다.

그 외에도 부산문화회관이 2007년부터 진행해온 문화대학 2014년 강좌 '무대예술의 결정체 오페라 II' 강의가 6회 동안 진행된다. 올해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이동신 지휘자를 비롯해 부산대학교 박은주 교수, 솔오페라 이소영 단장, 음악해설가 이동환, 음악평론가 황지원, 피아노 치는 미술해설가 김겸이 6주간 다양한 오페라 이야기를 선사한다.

일정

• 어린이 오페라교실

| 접 수 | 8월 4일(월) ~ 8월 12일(화)
| 교육기간 | 8월 18일(월)~8월 22일(금) 오후 2:00(총 5회)

• 한문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토요일감놀이터 '얼씨구樂'

| 접 수 | 8월 11일(월) ~ 8월 15일(금)
| 교육기간 | 8월 23일(토)~11월 29일(토) 매주 토요일 오전 10:00 (총 15회)

• 장일범 '명작 오페라 속으로'

| 접 수 | 8월 18일(월) ~ 8월 29일(금)
| 교육기간 | 9월 15일(월) ~ 11월 24일(월) 매주 월요일 오후 5:00 (총 10회)

• 오동주 가곡교실

| 접 수 | 8월 18일(월) ~ 8월 29일(금)
| 교육기간 | 9월 16일(화) ~ 11월 18일(화) 매주 화요일 오후 2:00 (총 10회)

• 2014 문화대학- 무대예술의 결정체 오페라 II

| 접 수 | 8월 18일(월) ~ 8월 29일(금)
| 교육기간 | 9월 17일(수) ~ 10월 22일(수) 매주 수요일 오후 2:00 (총 6회)

문의 : 부산문화회관(607-6057~8),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2014. 부산문화회관 아카데미 특별 프로그램 어린이 오페라교실

8월 18일(월)~22일(금) 오후 2:00~4:00
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장



'클래식은 내친구'에 이은
부산문화회관의 오페라 길라잡이 '어린이 오페라교실'
재미있는 오페라 역사 이야기, 애니메이션 오페라 감상,
오페라 & 뮤지컬 비교 체험, 분장교실 등으로
교실에서 만나지 못하는 쉽고 재미있는 오페라와 만난다.

신청기간 : 2014년 8월 4일(월)~12일(화)
모집대상 및 인원 : 초등학생 30명
신청방법 : 부산문화회관 방문 및 전화,
이메일 접수(bsculture@naver.com)
수강료 :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수강료 납부 순서로 선착순 모집 마감
-신청서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
접수처 및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이연기
(영산대학교 교수)



부산문화회관

2014 문화대학 수강생 모집

무대예술의 결정체

오페라포

「부산 문화의 메카인 부산문화회관이 문화·예술 교육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계발과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코자 고품격 강좌를 개설합니다. 한국문화예술계 최고의 리더들과 함께하는 2014 문화대학 강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운영기간 2014. **9. 17 ~ 10. 22** / 기간 중 총 6회 실시

시 간 매주 **수요일 14:00~16:00** ※각 회별 수업시간 변경될 수 있음

장 소 부산문화회관(국제회의장)

모집인원 100명(일반인) ※선착순 접수

신청기간 2014. **8. 18**(월) ~ **8. 29**(금)

신청방법 부산문화회관(공연과) 전화접수(607-6057) or 팩스(607-6049) 접수

· 문화대학 수강자 최종 명단은 2014. 9. 2(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

수 강 료 **30,000원**(교재비 포함) 정기회원 10%할인

문 의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051)607-6046, 6057 문화대학 담당자

강좌
일정



1주 9. 17(수)

이동신(부산시향 부지휘자)

오페라의 역사2
- 시대별 오페라 정리 -



2주 9. 24(수)

박은주(부산대 교수)

오페라의 꽃 소프라노
- 오페라 "박쥐" -



3주 10. 1(수)

이소영(솔 오페라단 단장)

토스카의 사랑과 비극
- 오페라 "토스카" -



4주 10. 8(수)

이동활(음악 해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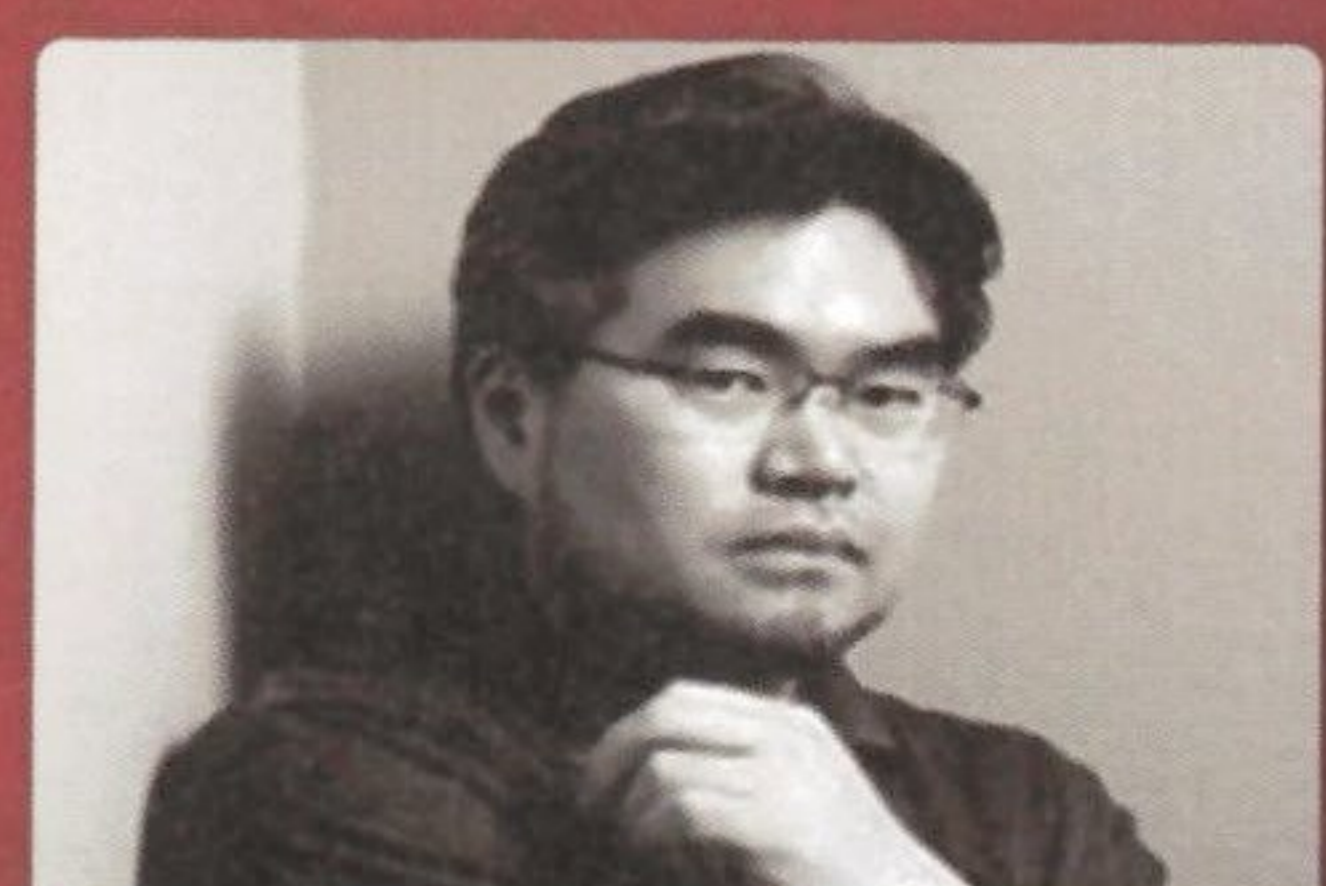
이동활의 클래식 오디세이
- 오페라 "라보엠" -



5주 10. 15(수)

황지원(음악 평론가)

황지원의 오페라 살롱
- 리하르트 바그너의 삶과 예술 -



6주 10. 22(수)

김겸(피아노치는 미술해설가)

미술과 오페라여행
- 극음악시대의 미술이야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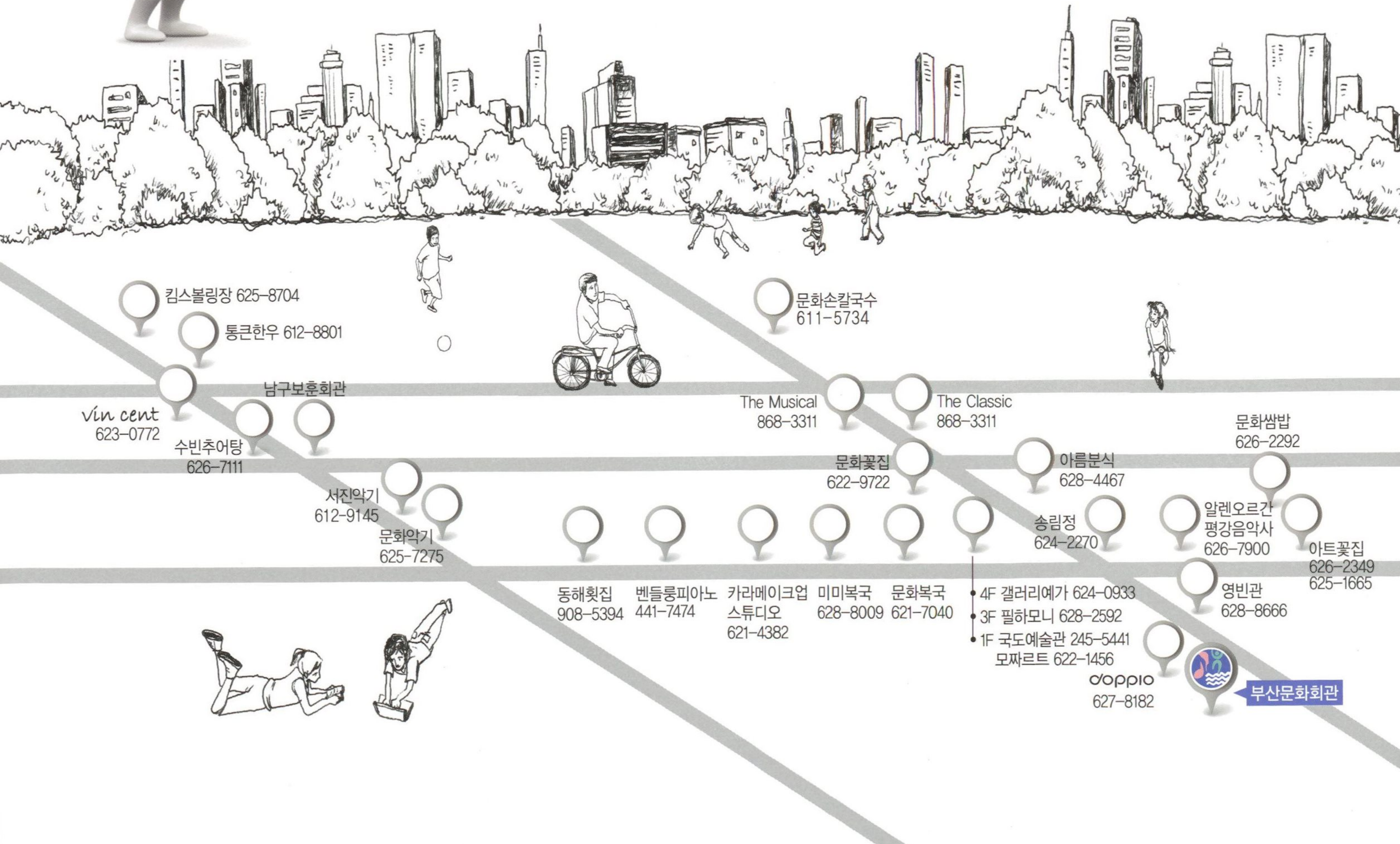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및 공연관람객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음료 10%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1층 Tel. 051)622-1456</p>		<p>부산문화회관 주최 공연티켓 소지자 커피 10%할인 (커피에 한함) Tel. 051-623-0772</p>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Tel. 051)626-2592</p>		<p>부산문화회관 주최 공연티켓 소지자 식사 5%할인 Tel. 051-624-2270</p>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시 평일 3천원, 주말·공휴일 4천원 할인 (회당 2매/조조, 심야, 3D 제외)</p>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 Tel. 051-752-9811(광안), 051-747-9812(해운대)</p>



공연시간에 쫓겨 힘들으신 적 많으시죠.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문화회관 주변 안내도입니다.



토다이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20% 할인
(평일 점심 제외)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 인페리얼 타워 6층
예약 : 051)731-7000
※본행사는 토다이 센텀점에 한합니다.

모차르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음료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림빌딩 1층
051)622-1456

하늘근거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점심특선 제외)
센텀SH벨리 210호
051)747-8244

필하모니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림빌딩 2층
051)626-2592

콘서트무지컬 'SD아이러리'

2014.7.3(목)-8.31(일)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4:00, 7:00
(월요일 공연 없음)
입장권 : 공연 3만원
장 소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문의 및 예매 : BS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공포스릴러극 '양타'

2014.7.16(수)-8.24(일)
평일 오후 7:30, 9:30, 토·공휴일 오후 5:00, 7:00,
9:0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 없음)
입장권 : 공연 3만원
장 소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스타홀
문의 및 예매 : BS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공포호러극 '2014 두여자'

2014.6.4(수)-9.7(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 없음)
입장권 : 공연 3만원
장 소 : 초록우산 카운아트홀 1관
문의 및 예매 : SM기획 1600-1602

극단 시계 제75회 정기공연 '영민수사실'

2014.8.27(수)-9.14(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4:00 (월요일, 9/7-8일 공연 없음)
입장권 : 공연 3만원
장 소 : 공간스극장
문의 및 예매 : 공간스극장 611-8518

CULTURAL SCHEDULE

2014 August 8

Table with 2 columns: Date and Event details. Includes events like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Theater Nomad Musical, and various concerts.

9월 테마여행 신청

테마여행지 추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대연동)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608-811

요금수취인
후남부담
발송유효기간
2014.11~
남부산우체국승인
제225호



1. 이번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Grid for marking answers to question 1, with columns 1-4 and rows 1-24.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20% Discount
센텀점 토다이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Discount
모차르트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Discount
센텀점 하나돈가스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Discount
Since 1981 필하모니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 Discount
콘서트뮤지컬 '다이아리'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확인됩니다.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20% Discount
공포스릴스릴러극 '용터'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확인됩니다.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60% Discount
공포호러극 '2014 두여자'
 *주말 50% 할인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확인됩니다.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20% Discount
극단 세계 제75회 정기공연 '남민수살'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확인됩니다.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심수봉과 함께하는 써머판타지 콘서트'
 8월 12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

요금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4.11~
 남부산우체국송인
 제286호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번길 1(대연동)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의 초대) 담당자 앞
 608-811

CULTURAL SCHEDULE

부산문화회관 8월 공연일정

2014 August 8

1	11:00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공연 2014 앨범콘서트 Ⅲ 코지판투테 중극장 균일 1만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14:00 부산시립극단 여름연극교실 워크샵 소극장 부산시립극단(607-3151~2)	15	19:30 부산·치대 관현악단 제42회 정기연주회 중극장 초대/부산·치대 관현악단(010-3100-2483)
2	19:00 극단 노마드 창작뮤지컬 '7월의 연인' 대극장 무료/극단 노마드(626-0116) 16:00 토요일상설무대 소극장 무료공연 30분 전부터 선착순 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6)	16	16:00 토요일상설무대-한국문화예술진흥회 후원음악극 '백설공주' 소극장 무료공연 30분 전부터 선착순 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6)
4	17:0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福岡 청소년 교류공연' 대극장 균일 2천원/부산문화회관(607-6058)	17	19:00 브니엘무용발표회 대극장 무료/브니엘국제예술고등학교(582-7671)
7	13:00 2014 부산매직페스티벌 명인렉처 소극장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조직위원회(626-7002)	19	19:30 아코르청소년오케스트라 제12회 정기연주회 대극장 무료/아코르청소년오케스트라(010-2065-2490) 19:30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 내한공연 중극장 5만원, 3만원/JSJ모던기획(010-5591-2280)
8	10:00 2014 부산매직페스티벌 명인렉처 소극장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조직위원회(626-7002)	20	19:30 한빛예술단의 Music in The Dark in Busan 대극장 무료/한빛예술단(02-989-3148) 19:30 그라운우리 가곡의 밤 중극장 오페라 21세기(010-8330-3222)
8	13:00 2014 부산매직페스티벌-국제미술대회 본선 대극장 2만원 15:00 마이클 아머 스페셜 쇼 중극장 17:00 기획공연 '더 헨즈' 중극장 2만 5천원, 2만원 17:00 로&김치 투맨쇼 소극장 19:30 나이트 매직 갈라쇼 대극장 4만원, 3만원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조직위원회(626-7002)	21	19:30 제1160회 MBC목요음악회 '무자카 비바의 해설'은 영화음악 대극장 1만원, 5천원/부산문화회관(010-760-1494)
9	13:00 2014 부산매직페스티벌-국제미술대회 본선 대극장 2만원 15:00 데이타임 스페셜쇼 중극장 2만 5천원, 2만원 17:00 월드 클로업 쇼 중극장 2만 5천원, 2만원 19:30 나이트 매직 갈라쇼 대극장 4만원, 3만원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조직위원회(626-7002)	22	19:3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공연 '팔방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대극장 2만원, 1만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3) 19:30 제23회 동아의대 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중극장 무료/DMC(010-4878-3079) 20:00 WINA Concert-내노래 소극장 균일 3만원/문화기획단 무대극감(010-4010-8406)
10	10:00 홍성훈, 김민형의 매직라디오 쇼 소극장 13:00 2014 부산매직페스티벌-국제미술대회 결선, 시상식 대극장 2만원 15:00 옴니버스 스페셜쇼 중극장 2만 5천원, 2만원 17:00 기획공연 '더 헨즈' 중극장 2만 5천원, 2만원 17:00 로&김치 투맨쇼 소극장 19:30 나이트 매직 갈라쇼 대극장 4만원, 3만원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조직위원회(626-7002)	23	19:30 제33회 인제대의대 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중극장 무료/인제대의대관현악단(010-8730-2829) 16:00 토요일상설무대-이노연 무용단 소극장 무료공연 30분 전부터 선착순 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6)
12	19:30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심수봉과 함께하는 써머판타지 콘서트' 대극장 1만원, 7천원, 5천원/부산시립합창단(607-3141)	25	19:30 김승현 귀국 피아노 독주회 중극장 초대/김승현(010-4064-0877)
13	16:0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금나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대극장 균일 1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8)	28	19:3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 중극장 2만원, 1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7) 19:30 Clazy Ensemble PASSAZIO와 함께하는 한여름밤 콘서트 소극장 균일 1만원/Clazy Ensemble PASSAZIO(010-7535-9764)
14	17:00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음악회 '청소년 해설음악회' 대극장 무료/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1~2) 19:30 부산시립무용단 '2014 한여름밤의 춤 작품전' 중극장 균일 5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29	19:3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국립오페라단 초청 비제의 '카르멘' 대극장 10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7) 19:3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 중극장 2만원, 1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7) 19:00 영화 속의 클래식 소극장 초대/칸타솔레(Cantasolle)(010-2915-1324)
		30	15:0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국립오페라단 초청 비제의 '카르멘' 대극장 10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7) 15:0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 중극장 2만원, 1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7) 16:00 토요일상설무대 소극장 무료공연 30분 전부터 선착순 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6)
		31	15:0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 중극장 2만원, 1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7) 15:00 제6회 참꽃꽃장 연주회 중극장 초대/참꽃(010-4016-7477)

2014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부산문화회관 토요일오감놀이터

얼씨구악

2014년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즐거운 '토요일오감놀이터-얼씨구악'이 부산문화회관에서 펼쳐집니다.
가족과 친구가 함께 우리 국악기를 만들고 배우면서 소통하는
오감만족 놀이터 '얼씨구악'의 하반기 즐거운 난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모집요강

모집요강 2014년 8월 23일~11월 29일(15회)

- 시 간 : 매주 토요일 10:00~12:00 15강
- ※ 각 회별 수업내용 변경될 수 있음
- 장 소 : 부산문화회관(국제회의장)

모집인원 4인이 1팀 구성, 총 20팀 모집

- ※ 팀 구성은 초등학교를 둔 가족, 친척, 친구 등으로 구성(예, 초등자녀를 둔 4인 가족, 초등자녀와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3대 가족, 두 친구 가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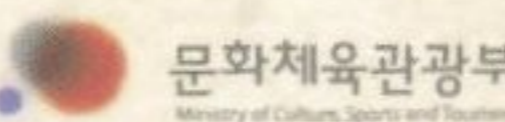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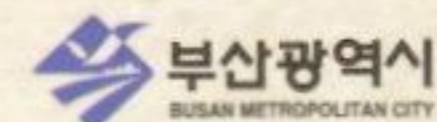
신청기간 8월 11일(월) ~ 8월 15일(금)(5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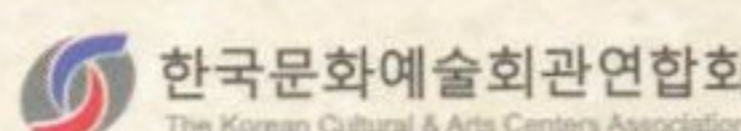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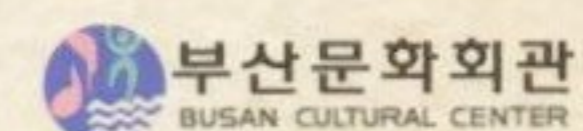
신청방법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토요일오감놀이터 게시판 선착순

- 수강자 최종 명단은 2014. 8월 18일(월)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교육강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타악기 전학수 박재현, 소금 한영길, 손한별), 외부 강사

수강료 무료(일부 재료비 별도)

주 최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

주 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부산문화회관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051)607-3100

하반기 강좌일정

8월 23일(토) 가족 장구 만들기(조립)

8월 30일(토) 사물악기 배정 후 기본 국악장단연습

9월 13일(토)/20일(토)/27일(토)/10월 4일(토)

삼도풍물가락기본 장단, 가락 익히기

10월 11일(토) 팀별 1차 발표회

10월 18일(토) 가야금이 탄생한 고령 우륵박물관 방문, 가야금체험

10월 25일(토) 소금만들기 체험, 소금강습-소리내기

11월 1일(토)/8일(토)/15일(토)/22일(토) 소금강습-민요, 동요

11월 20일(목)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감상

11월 29일(토) 종합 발표회

※ 강의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G. Bizet

카르멘 국립오페라단초청

지휘 | 이병욱
연출 | 폴 에밀 푸흐니
재연출 | 손영주
무대·의상 | 루이 데지헤
조명 | 파트릭 메우스
분장 | 구유진
합창지휘 | 염진섭

출연
카르멘 | 백재은
돈 호세 | 정의근
미카엘라 | 이세진
에스카미오 | 제상철
프라스카타 | 김민지
메르세데스 | 신민정
모랄레스 | 김지단
단카이로 | 민경환

부산시립교향악단
의정부시립합창단
CBS소년소녀합창단
진아트컴퍼니

조기에매 20% 할인 (6월 23일~7월6일까지)

2014. 8.29 (금) ~ 30 (토)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금 19:30 / 토 15:00 문 의)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607-6057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광역시 주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국립오페라단 부산문화회관
후원 복권위원회 입장권 R석 100,000원 S석 80,000원 A석 60,000원 B석 40,000원
티켓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인터파크 1544-1555 부산은행 전지점

"이 사업은 복권기금 문화나눔의 일환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여 전국의 문예회관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